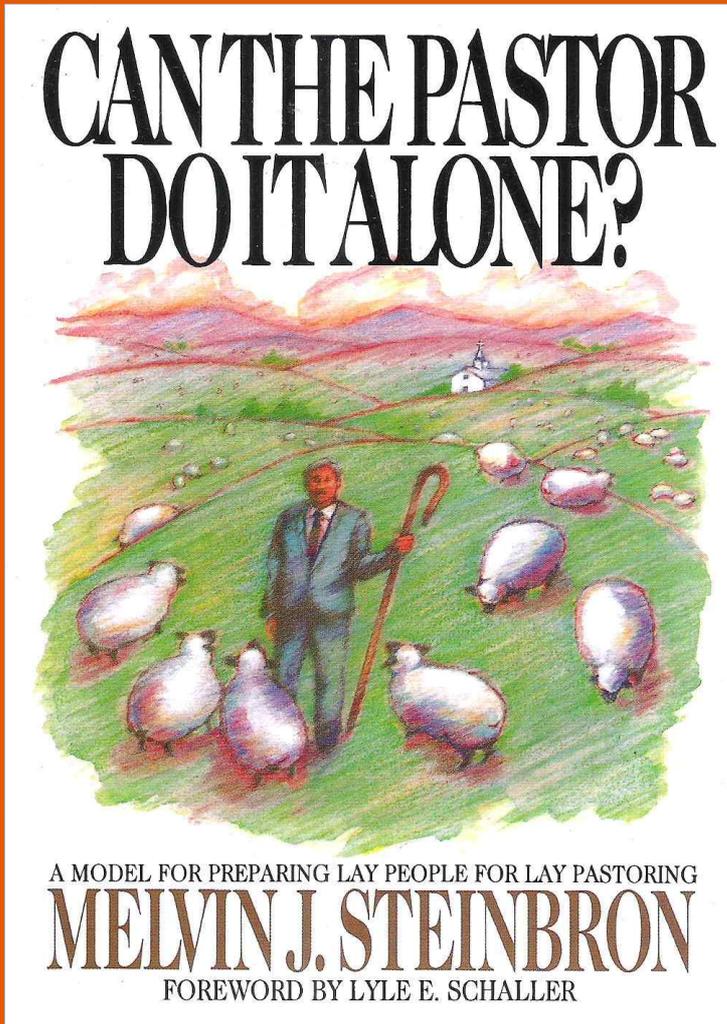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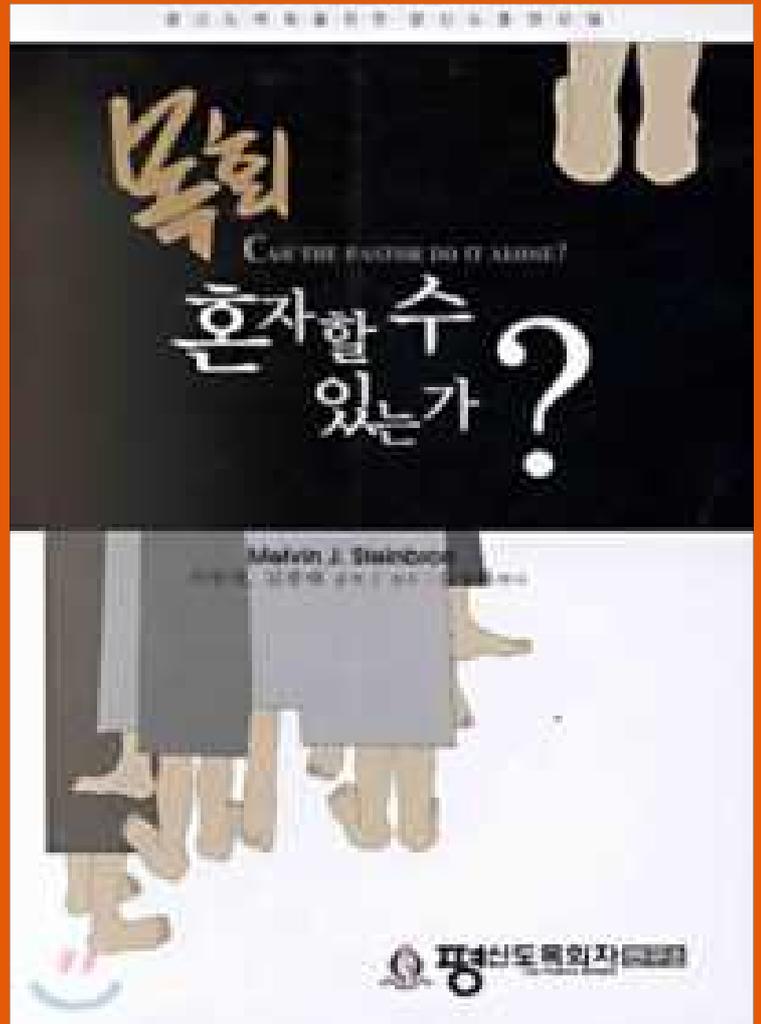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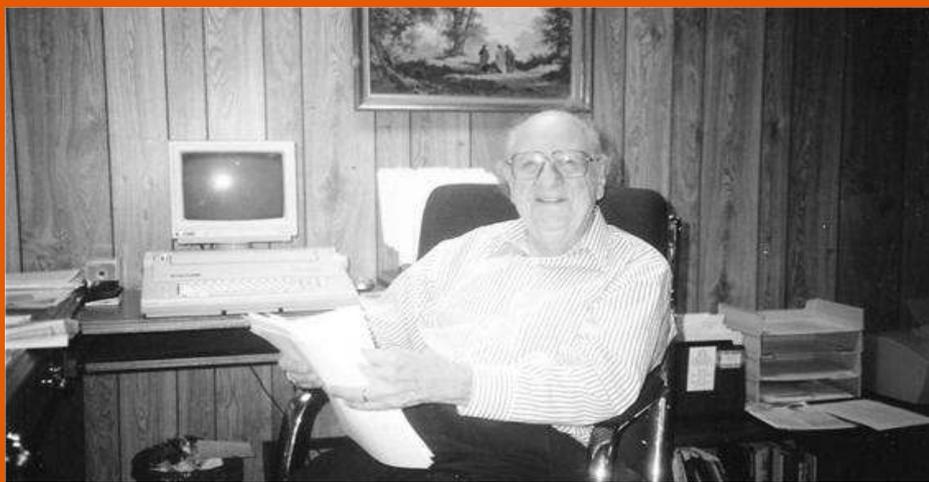
“평신도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준비시키는 모델”



© Copyright 1987 by Melvin J. Steinbr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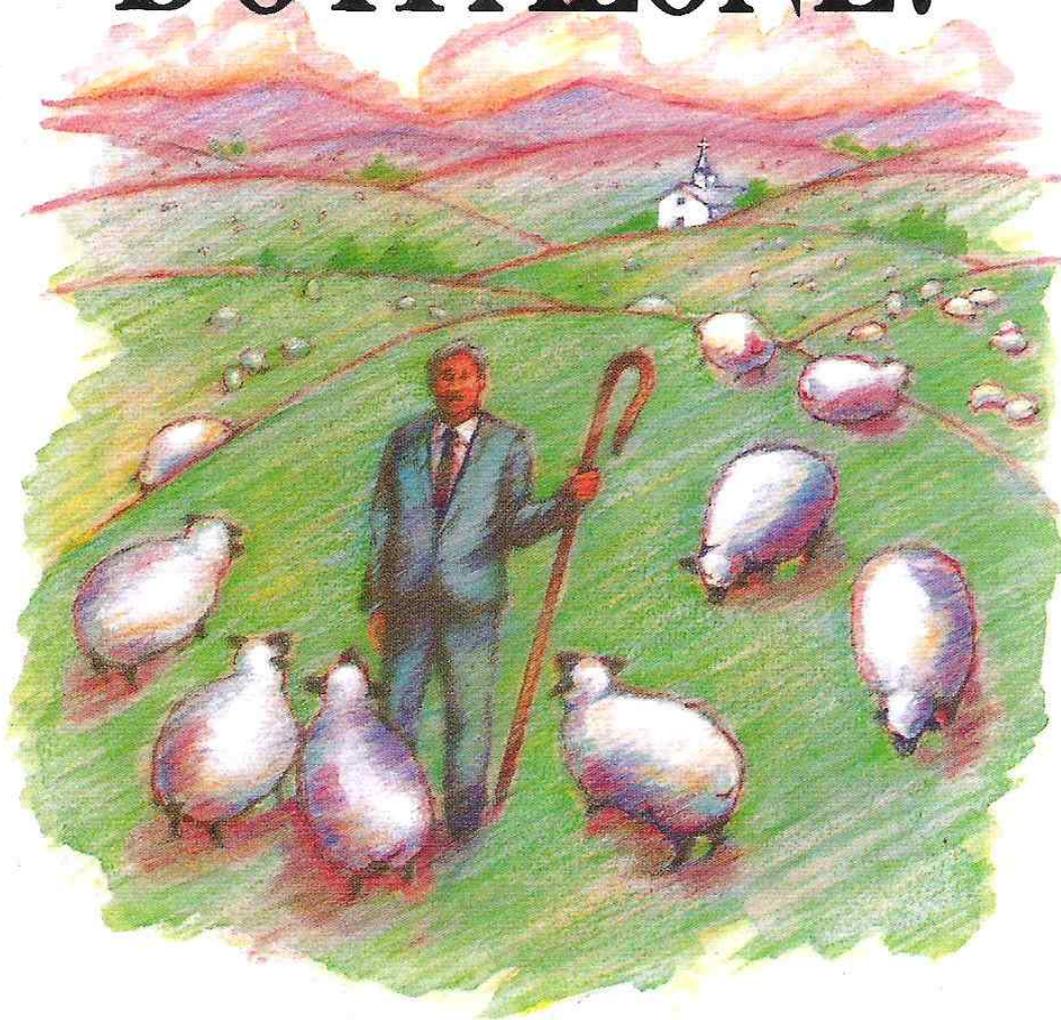


한국 평신도목회 연구소 (2001년 재판 발행)



The late Dr. Melvin J. Steinbron
Born : July 25, 1922 – Died: June 25, 2017

CAN THE PASTOR DO IT ALONE?



A MODEL FOR PREPARING LAY PEOPLE FOR LAY PASTORING

MELVIN J. STEINBRON

FOREWORD BY LYLE E. SCHALLER

CAN THE PASTOR DO IT ALONE?

A MODEL FOR PREPARING LAY PEOPLE FOR LAY PASTORING

MELVIN J. STEINBRON

FOREWORD BY LYLE E. SCHALLER



Regal

A Division of Gospel Light
Ventura, California, U.S.A.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다행히도 그의 장인이 그를 도와주었다. 스타인브론 박사도 이와같은 도움을 우리들에게 주었다.”

-D. 스투어트 브리스코어

[약어표]

CHPC-College Hill Presbyterian Church(칼리지 힐 장로교회)

EC- Equipping Center (훈련센터)

EM- Equipping Manual (훈련지침서)

ES- Equipping Seminar (훈련세미나)

LPF- Lay Pastors Fellowship (평신도목회자모임)

LPM- Lay Pastors Ministry (평신도목회)

LPMG- Lay Pastors Ministry Group (평신도목회자그룹)

MC/MP- Minimum Contact(최소접촉),

Maximum Prayer(최대기도)

MG- Ministry Group(교회그룹)

PACE- Prayer, Available, Contact,

EXample(기도, 시간주기, 접촉, 모범)

PTL- Praise the Lord(여호와를 찬양하라)

SSS- Stephen Series System (스데반사역시리즈)

역자 서문

세계 교회사에 한국교회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온 것은 평신도들의 활약이 컸다. 한국교회의 초기시대에 있었던 평양의 부흥운동이나 민 족의 해방운동이나 사회운동에 평신도들이 그 중심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1970년대 말이나 1980년대에는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성경공부 운동이 교회 안팎에서 크게 일어났고, 평신 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도 풍성히 일어나서 한국교회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특히 1980년 대에 들어서 한국 교회는 평신도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평신도를 깨워 사역자로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가 목회적인 돌봄사역(pastoral care)을 한다는 사역개념에 대해서는 빈약하였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훈련하여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평신도 목회자로서 성도를 돌보주게 하는 사역에는 관심이 적었다.

주님께서는 부활후 승천하시기전 베드로에게"내 양을 돌보라"(요 21:15-17)는 사명을 주셨다. 대부분의 교회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자상선교사명과 제훈련사명에 익숙해있고, "내양을 돌보라"는 사명에 대해서는 연약해있음은 부인할수없다. 그러나 이 두가지 사명은 똑같은 구속사적인 맥락(부활후, 승천전)에 있는 것으로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명이다. 교회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본서는 이러한 사명을 미국의 오하이오 신시네티에 있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멜빈스타인브론 목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목양사역(pastoral care)은 안수받은 목사와 헌신된 평신도가 함께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안수받은 목사의 주된 사역은평신도가 목양사역을 하도록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엡 4:11-12).

이 책은 평신도의 목양사역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스타인브론 의 두 번째 책인 "The Lay-Driven Church""실천신학적인 원리를 말한다). 이것은 평신도가 다른 평신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회적인 돌봄을 베풀 수웠는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그래서 이 이 책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물론 미국의 교회상황과 우리 나라의 교회상황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 그대로 한국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무리가 되는 수도 있다(예를들면 한국교회는 이미 대부분 다락방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평신도목회자의 PAE 사역은 양적으로 비교해 볼때에 적은 것이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보면 만만찮은 사역이다)

하지만 이 PACE 사역은 목회사역의 기본이요, 인프라이다. 모든 성도들의 상호관계를 목회적으로 상호 돌보는 사역의 관계로 시스템화 할때에 그 교회는 목회 사역의 아주 튼튼한 인프라(infra-ministry)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기초위에 무엇인들 세우지 못할까!

이 책의 저변에는 평신도 사역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평신도도 목회사역에 참 제사장으로서 목회 사역자(목회직)의 위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평신도가 안수받은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요, 목사가 하는 일을대신하라는 것도 아니다. 이 책에서는 안수받은 목사와 평신도목회자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

멜빈목사는 이 책을 중심으로 평신도를 평신도목회자로 훈련해 내는 훈련교재를 만들었다. 이훈련교재는 교회의 목사들이 훈련을 받고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회적으로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안수받은 목사와 평신도의 사역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가되기를 바란다.

김종태 목사. 서병채 목사

감수자의 글

전통적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교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목회적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명하신 주님께서 역시 "내 양을 돌보라" (요 21:15-17)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을 방치한 상태에서 목회적 돌봄을 개 교회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전임목회자들이 전적으로 성도를 돌보든가 아니면 평신도목회자들이 돌보든가 둘 중에 한가지가 있을 뿐이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는 여전도사들을 통해 돌봄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 전임 전도사의 숫자가 몇 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임목사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들만이 수행하려고 할 때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소위 매년 대심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가가지만 그것도 일년에 한차례도 오기가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평신도목회사역(Lay Pastors Ministry)의 길뿐이다

평신도목회 사역에 대한 대표적 교과서가 스타인 부론 박사의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라는 이 책이다. 평신도 목회연구소 소장이신 서병채 목사님께서 초판을 번역해 주신것을 감사드린다. 한국교회의 필요를 위해 속히 번역 출판하다보니 수정판이 필요하게 되어 좀 더 시간과 정성을 들여 수정판을 내놓게 되어서 마음이 놓인다. 평신도 목회연구원 학감이시고 평신도목회에 헌신하신 김종태 목사님께서 노력해주셔서 수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수정판은 거의 새롭게 번역된 것이다. 내용이 실제적으로 크리닉컬 테스트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에서 성공적으로 통과한 내용이어서 한국교회에 소개할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한국 교회도 속히 평신도목회를 배워서 이미 구역이나 다락방 사역들을 통해 평신도목회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목회적 돌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보강 되기를 바란다. 평신도목회 철학은 21세기 세계교회의 추세이다.

최근 한국에도 평목, 셀교회, NCD 등 오래된 개념이지만 새롭게 부각되는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 책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다시 깨워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이 전임목회자와함께 목회적 사역을 통해 교회를 잘 세우는데 큰 유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1년 8월

김상복 목사

할렐루야교회 담임
평신도목회연구원 원장
햇빛트리니티 신대원대학교 명예총장

번역 및 원본복사 허락서

1996년 12월 23일

사랑하는 형제 서병채 목사님께

보내주신 편지에 대해 감사합니다. 서 목사님께서 나의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를 갖게 되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에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영국의 존 스토틀(John Stott)목사님이 말씀하신 “두번째 종교개혁”입니다.

서 목사님께서 한국의 신학생들이 “한국교회의 장래”라고 말한 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 목사님을 통해 한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 것이라고 화신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신다니 한없이 기쁩니다. 목사님께서 나의 책을 번역하고, 또 원본을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또 한국 교회를 향한 서 목사님의 비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평신도목회협회 (LPMI USA)

멜빈 J. 스타인브런

미네아폴리스

목 차

역자서문.....	5
감수자의 글.....	6
번역허락서.....	7
서문.....	10
서언.....	11
감사의 글.....	14
서론.....	15

“외로운 유격대” 로서 반드시 가야 할 나의 목회여정: 평신도들이 목회를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

1. 평신도가 정말로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18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사랑”이 필요하다. 많은 평신도들이 남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들은 사실상 목회자가 될수 있다.	
2. 그것은 성경에 있다	24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은 평신도들에게 목회적 은사를 주셨으며 그들을 목회에 부르신다. 모세의 모델은 오늘날 그의 백성들을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준다.	
3. 평신도 목회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	27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육적이든, 이성적이든, 영적이든- 돌봄의필요를 가지고 있다. 몸 바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신자들이 평안한때이든 어려운 때이든 언제나 계속해서 목회적으로 돌봐 주어야 한다.	
4. 시작하라	31
이 목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이제 당신은 목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목회사역을 위해 평신도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이며,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5. 평신도목회자가 하는 일	37
머리글자 PACE는 평신도 목회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준다. 평신도 목회자로서 일곱가지 헌신이 있어야 한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누가 돌볼 것인가?	
6.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	45
모든 것이 준비되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 목회사역에 대해 문의 해 올 것이다. 이 목회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모집할 계획을 세우라.	
7. 평신도를 목회자로 훈련하라	53
15시간이 소요되는 훈련 세미나 자료, 12가지의 훈련 주제 중 7가지	
8. 문제들을 잘 다루라	70
목회상 일곱 개의 일반적인 어려운 문제 - 어려운 문제들은 목회를 약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해 줄 수 있다.	
9. 목회평가	78
기존 목회와 양육목회에 대한 다양한 평가방법	

10. 형태를 찾아서.....	84
"기능은 형식을 결정한다"고 하는 원칙은 목회의 구조적인 개선에	
11. 평신도목회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89
순수한 목회를 하고 있는 평신도 목회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성도들에 대해 평신도 목회자들이 직접 쓴 방문보고서	
12.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95
푸딩은 맛을 보아야 안다. 평신도의 목회적 돌봄을 받아 본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들.	
13. 평신도목회를 적용해본 교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99
다섯 명의 목사가 평신도 목회에 관해 자신들의 생각을 말했다. 그들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평신도 목회자의 능력과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14. 작은 교회의 목사는 무엇이랴 말하는가?.....	103
230명 밖에 안되는 작은 교회이지만, 2,200명의 큰 교회가 전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개발한 목회방식을 채용하여 잘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원리가 건전하기 때문에 잘 적용되는 것이다. 토마스 패리쉬 목사의 탁월한 평신도 목회사역에 대한 이야기	
결 론.....	109
참고서적.....	110
역자소개.....	111

서 문

지난 35년간 "할 수 있게 해 주는 사람"(enabler)이라는 말은 평신도 지도자나 임원들 사이에서는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단어를 게으르다는 말과 동의어로 이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enabler"들은 평신도들이 "교회운영"이나 목회사역을 도움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기를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고귀한 목표에 대한 세 가지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

첫째로, 이 책은 평신도를 격려하고 준비시키는데 있어서 지도자로서 목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 지도자의 역할이란 비전과 일과 계획과 끈기와 신뢰를 갖추는 책임을 말한다.

둘째로, 저자는 평신도가 목회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신도들로 하여금 단순히 행정업무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교회는 목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별이다.

이 책은 왜 이것이 구속사적인 예배공동체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는지, 그리고 목회사역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어떻게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책은 평신도가 평신도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 도움을 주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릴리 E. 셸러

서 언

“**말**(이 책의 저자), 평신도 목회자가 잘 되면, 자넨 직업을 잃게 될 거야! 자네가 개발한 평신도 목회(Lay Pastors Ministry)는 결코 잘 될수 없어. 평신도는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목회자는 될 수 없는 거야. 목회는 안수받은 목사의 일이야!”라고 길을 가던 친구 목사가 나에게 말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오하이오 신시네티에 있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CHPC: College Hill Presbyterian Church)의 수많은 평신도들은 성도들을 상대로 목회사역을 해 오고 있다.

1978년 9월에 우리는 다섯 명의 평신도 목회자를 선발하여 각자 5 내지 10가정을 돌보도록 하는 임상목회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로 평신도 목회자의 숫자는 131명으로 늘어났고, 500 가정을 돌보는 85개의 목회팀으로 발전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목표는 성령으로부터 목회적 은사를 받은 평신도를 모집하고 훈련하여서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전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회를 개발한 우리들은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찼었다. 각오는 물론 여러가지 문제들, 실망스러운 일들, 힘겨운 일들, 그리고 많은 고된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를 통해 드러난 효과적인 열매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가치있게 빛나게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지역에서 몇개의 교파를 대표하는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평신도를 평신도목회자로 세우는 이 훈련에 참석하였다. 여러 교회들이 이 훈련세미나 안내서 (Equipping Manual)나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했고 이 목회 모델을 채용하였다. 이 모델은 큰 교회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이 책을 쓰라는 출판사의 권유를 받은 후에 나는 이미 읽었던 평신도목회에 관한 다른 자료들과 책들을 참고하였다. 나는 덧붙일 것들이 무엇인지 찾기위해 그것들을 분석하였다.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내린 나의 결론은 이 책은 교회로 하여금 평신도드리 다른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평신도들을 훈련하여서 성도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지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 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음의 몇가지 이유가 있다:

1. 실제적인 조직을 뒷받침 하지 않은 채 목회사역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는 강한 주장이 있으나, 그러한 목회사역의 공유는 교회의 전체사역이 되지 못하고, 사역의 일부가 될 위험이 있기때문이다.
2. 현재의 목회 프로그램들은 위기를 겪고 있거나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도록 되어있지, 평소에 늘 목회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는 원리에 근거하여 전체 성도를 섬기도록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3. 목회사역을 위해 우수한 목회이론이나 신학이나 원칙들이 논리정연하게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양육모델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4. 여러가지 목회 방법들이 시도되었지만 시작에서 부터 실패하여 심한 좌절감과 무거운 죄 의식만을 남기며, 오히려 평신도목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1. 칼리지 힐 장로교회는 평신도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 이 목회사역의 지난 8년간의 기록 일지를 보면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2. 목회사역은 모든 성도가 계속적으로 목회적인 돌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양육과 사랑이 필요하다.
3. 우리가 개발한 이 모델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다 채택하여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다른 훌륭한 책들과 비교한다면, 나는 이 책을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사역의 방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사역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역을 열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으로 소개하고 싶다. 이 책에는 평신도가 어떻게 목회사역을 했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나는 다음의 몇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평신도들은 지금까지 **목회(PASTORING)에 왔다**

평신도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심지어 지난 수세기 동안 타문화권에서 선교까지 해왔다. 그런데 왜 목회는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지난 20여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전세계에 걸쳐 새로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평신도들도 목회사역을 위해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각성시키시는 것이었다.

안수받은 목사만이 목회하기 위해 한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도 역시 성령에 의해 은사를 받았고 소명을 받았다. 평신도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왔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돌봄의 사역을 진짜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적 은사를 그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조직도 만들어 주지 않았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목회의 정의와 목회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히겠다.

평신도들은 지금도 **목회하고 있다(PASTORING)**

칼리지힐 장로교회의 평신도들은 지난 8년동안 평신도목회라고 하는 조직안에서 순수하고 효과적인 목회를 해왔다. 다음과 같은 여러교회에서 "내 양을 돌보라"고 하는 사역을 해 오고 있는데, 이들은 이 책에서 언급하는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미조리주 캔사스 시의 제2 장로교회, 미시간 주의 그랜드 레피즈 시의 웨스터민스트 장로교회, 테네시 주의 낙스빌에 있는 시다 스프링 장로교회, 오하이오주 벨록의 베델 루터교회,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제일 장로교회,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채플 락 크리스천 교회, 워싱턴 DC의 트루로 회중교회 등등이다. 수년동안 우리는 이 목회사역을 해왔고 다른 여러교회와 이 사역의 경험들을 나누었다. 우리는 이 목회사역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원하는 목사나 평신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였다.

평신도들(LAY PEOPLE)은 목회하고 있다(PASTORING)

내가 이 주제에 대하여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을때에,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동료 중의 하나가 평신도를 목회자로 동일시 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하였다. 그는 평신도에 대해 목회를 돕는 자나 목회의 자원봉사자나 혹은 다른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몰라도 목회자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정말로 그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는 목회자라고 하는 명칭은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하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약에 파송받은 평신도가 목사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목사들과 똑같이 **돌보고**, 목사들과 똑같이 **방문하고**, 목사들과 똑같이 목회적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목사들과 똑같은 **목회**를 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목회자들**이다.

우리는 평신도들도 목사들과 똑같이 목회(목양)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평신도들

의 목회적 은사가 안수납은 많은 목사들의 은사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것을 알수 있다.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평신도들이 목회사역에 부름을 받아 장로들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그들은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목회할 수 있다.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협동목사인 제리 RR. 컬크와 로널드 R. 랜드와 8명의 다른 스태프진들과 이 사역을 위해 임명된 장로그룹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평신도를 목회자로 세우는 훈련센터로 부르신 것을 믿고 있다. 우리 교회의평신도 목회((2)는 국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외에 두가지 사역이 더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랜드 박사가 개발한 전도임상훈련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게리 R. 스위트 박사가 개발한 역동적인 제자 훈련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이 목회사역을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온 수 많은 평신도들과 목사들을 훈련시켰다. 우리는 훈련센터로서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누가복음 12 장 48절의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라는 말씀을 요절로 채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것을 주셨다! 그의 은사는 풍성하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신도목회자로 준비시키고 이런 목회방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센터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열심히 수행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면서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부터 어떤 제안이나 논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우리는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교회의 조언도 구하고 있다.

감사의 글

나는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주디 자렐은 나의 원고를 자세히 교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번 타자를 쳐 주었다. 말지 밀러는 이 책에 대해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고, 책의 구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말지는 10년간 나의 목회사역에 비서로, 그 다음에는 목회의 협조자로 이제는 부목사로 함께 사역하고 있다. 그리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타자를 쳐 준 잔 살리, 텔마레너, 베티 트라우트만, 멜리베스 보스만께 고마움을 표시한다(이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타이프로 치고, 또 쳤는지 그리고 여러번의 스크랩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 책을 정직하게 비평해준 갈레 와트킨슨 목사, 톰 페리쉬 목사, 데이빗 호담목사, 말리 밀러 목사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평신도목회 그룹(Lay Pastors Ministry Group)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지난 수년동안 나를 계속해서 격려해주며, 거의 1년을 넘게 나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것을 참아 준 아내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 사역은 과거에 시도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목회자그룹(LPMG)의 헌신과 창의성이 없이는 도저히 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톰과 롯스 메리스, 릴라드와 아르레너 에반스, 찰스와 도리스 말쉬, 케이스와 앤 키티, 밥과 카롤레 웰스, 데이빗과 페트 쿠퍼, 팜 헬서, 제리 박사와 패티 컬크, 찰과 스타인브론 나 자신이다.

수년 전에 찰스 말쉬는 세상을 떠났고, 몇 사람은 다른 목회에 참여하느라 빠졌고, 대신에 로이 스쿠터, 마렌 프랭크스, 짐과 말지 밀러, 마이크와 프리스킬라 데바니, 오토와 주디 자렐, 제네바 그랜트와 넬리에 프레트가 가담하였다. 우리는 진실로 이 목회의 동역자들이다.

-멜빈 스타인브론

서론

나의 목회에 있어서 그 동안 내가 어디에 있었으며,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목회여정을 말하였을 때에 내 말을 듣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항상 뭔가를 행하신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배운 신학과 이론을 목회의 실천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고민과 갈등을 말하려고 한다.

나의 목회경험 중에 첫 30년 동안에는 목회사역을 위하여 “평신도를 구비하고 훈련하여야 한다고” 하는 에베소서 4장 11,12절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1976년 1월, 나는 내가 깨달은 평신도 목회신학을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어떤 내적인 감동(나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 부르고 싶다)을 강하게 느꼈다. 나는 그 당시에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의미있는 이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 평신도목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교회는 미네소타의 바울시에 있는 란돌프 하이츠장로 교회였는데 교인이 400명 정도 되었다.

10개월 후에 나는 2,200명이 되는 오하이오주의 신시네티에 있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College Hill Presbyterian Church/CHPC)의 목양(Pastoral Care) 담당 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이 청빙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목회사역을 위해 평신도를 구비하고 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오던 것을 이 교회에서 즉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초청장에는 “목회사역과 목회사역을 위해 평신도를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적혀 있었다. 거기에 적힌 두 번째 임무인 “목회사역을 위해 평신도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청빙에 쉽게 응하게 되었다. 목회사역을 위하여 성도를 구비하고 훈련하여야 한다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헌신과 내가 이 일을 수행해 낼 것이라고 하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기대로 인하여 나는 내 목회여정의 전성기를 이 교회에서 다 보내게 되었다.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것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경제, 교육, 사회 및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일인 목회”(lone ranger)를 하는 스타일에서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공유하는 스타일의 목회로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76년 11월에 칼리지 힐 장로교회에 왔을 때에 비로소 란돌프 하이츠 교회에서 내가 실시하였던 목회의 새로운 방향은 평신도목회사역의 극적인 전환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이 목회를 위해서 평신도들의 은사를 발견해는 것에 관한 여러책을 읽으면서 “목회자이며, 교사이며, 준비시키는 자”로서의 내 역할에 대해 깊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다: 나는 평신도들이 목회하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본질은, “멜빈, 목회사역을 혼자서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주 잘못된 것이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하는 것이었다.

내가 란돌프 하이츠 교회에 있을때 3가지 일을 하였다: (1) 나는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목회사역을 위해서는 평신도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제로 설교를 하였다; (2) 주일날 아침 성경공부 시간에는 평신도목회에 관해서 가르쳤다; (3) 나는 평신도목회에 관한 책을 만들어서 그들이 읽고, 복사하고, 빌려가고, 살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있는것을 보고 나서 그 사역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느꼈다. 내가 그들에게 평신도목회 대해 가르치고 설교할때에 그들이 성령의 내적인 감동과 확신을 가지는 것

을 확실히 느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도록, 즉 목회사역을 평신도와 공유하고 평신도들이 그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드시는 의도는 이미 그 사역을 위하여 평신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많이 준비되어 있는 한 교회를 위하여 구체적인 모형을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새로운 역할을 1976년 11월에 시작하였다.

준비시키는 것과 배우는 것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청빙을 받은 후에 나는 훈련시키는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수백 명의 평신도들은 이미 전도와 성인교육이나 상담이나 성가대와 같은 전통적인 사역과 어린이 교육이나 청소년 사역이나 청지기 사역과 같은 의미있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다. 지난 10년은 나에게 있어 정말 끝임없는 도전의 세월이었다. 나의 목회가 성숙(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를 준비시키는 기술도 많이 발전되었다. 나는 주님과 동료들을 의지하여 좀더 배워야 했는데, 그 이유는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평신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전문적인 목사들이 발휘할 수 없는 지혜와 통찰력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 목사들의 지혜와 통찰력과 관점들을 크게 보완해 주었다. 그들의 실제적인 이해와 방법은 목사들의 신학적 혹은 탁상공론 형식의 접근방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이 새로운 목회방식으로 "기쁨가운데(시 100: 2)"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서 목회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또 나 혼자서 어떤 문제에 대해 씨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내 주변에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헌신되고 "소명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평신도 목회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그들을 섬기기 위한 계획과 행정과 지원해 주는 사역이 늘어난 반면, 성도들을 상대로 하는 목회적 돌봄사역은 점점 더 줄어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나 기쁜 일인가? 평신도들이 의미있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돌봄을 잘 받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대단한 만족감과 성취감에 빠진다. 나의 목회여정에 4가지 국면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1. 일인목회(Lone Ranger)** 모든 목회를 나 혼자 하고 슈퍼스타가 되려고 했을 때, 시간과 정력의 한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나는 실패하였다.
- 2. 지원하는 조직없이 평신도들에게 목회하라 고 하는 것.** 나는 평신도목회 신학에 대해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지만(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그들의 평신도목회가 가능하도록 어떤 구체적인 훈련이나 지원해 주는 조직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 3. 조직을 만듦.** 나는 설교한 것을(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을 포함하여)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나는 평신도들을 목회자로 세우기 위하여 훈련을 시작하였으며, 거기에 뒤따르는 조직을 개발하였다.
- 4. 지속적인 성장.** 나는 훈련하는 기술이 많이 늘었고, 평신도와 함께 일하는 것을 많이 배웠다. 나의 목회 전환의 여정은 그렇게 빨리 진행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었다. 이전에 나 혼자 일하던 목회 스타일이 평신도와 함께 일하는 새로운 스타일로 쉽게 바뀌어지지 않았다.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전에 일하던 스타일로 재빨리 되돌아 가곤 하였다.

나는 내가 있었던 곳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오게 되는 힘겨운 목회여정에서 효과적으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4가지 원칙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것은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협동목사요, 내가 수퍼목사라고 부르는 제리컬크 박사가 공식화한 것이다.

1. 목사는 평신도가 목회사역을 하도록 그들을 구비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며 최우선적인 사명임을 확신하여야 한다.
2.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참으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평신도 목회자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된다.
3. 목사는 이 최우선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그가 목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볼 때에 회중에게 더 나은 양질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4. 목사는 회중들이 목회사역을 상호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목사가 평신도로부터 목회적 돌봄을 받음으로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즉 그들을 통하여 중보기도를 받고, 필요한 돌봄을 받고, 상담이나 필요한 권고나 격려를 받는 것이다.

보 상

이런 목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많은 유익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

1.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기쁨
2. 증대되는 목회의 영향력 - 목사 한 명이 신자 한사람 한사람을 목회하는것보다 많은 평신도목회자가 한꺼번에 많은 신자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는 사역
3. 목회에 대한 부담감의 감소 -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수월해 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으셨다. 성경은모든 신자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 모든 은사들을 활용함으로써 회중들을 돌보는 책임이 골고루 나누어지고 따라서 목회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4. 지속적인 영적성장 -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것에 중점을 두어 훈련함으로써 더 큰 책임감과 아울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한다.
5. 과로와 가족과 소원해 지는 위험의 감소 - 목회사역을 평신도와 공유하게 되면, 성도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시간이 많아 인간관계를 더 잘할 수 있고,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목회방식을 새로운 평신도목회방식으로 바꾸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해 졌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많은 평신도들에게 목회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둘째 평신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돌봐줌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1 장

평신도는 과연 목회자가 될수 있는가?

폭풍우 소리에 놀라서 한밤중에 깨어난 어린 아이가, "엄마, 엄마, 나 무서워요! 무서워요"라고 외쳤다. 그 아이는 비 바람이 창문에 부딪치는 것을 보고 놀랐고, 번개와 천둥으로 인해 두려워 떨면서 말하기를 "엄마, 어디 계세요! 어디계세요!"라고 말했다. 엄마는 급히 서둘러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침대 옆에서 아이를 꼭 껴안고 안심시켰다. 엄마는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애야, 이처럼 무서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엄마, 전 그걸 알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전 지금 피부로 느끼는 사랑이 필요해요"라고 그 아이는 훌쩍이며 말했다.

우리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다.

거의 모든 목회자가 직면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섬기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았다.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목회 방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부로 느끼는 사랑"을 충분히 공급할수 있는 부교역자들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평신도목회팀을 세우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것은 모집하고 준비시키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하여 임명하여 평신도 목회자로서 사역하게 하는 꽤 큰 규모의 평신도 사역팀을 세우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1-12에 의하면, 신학교에서 훈련받아 안수받은 목사들은 목회사역을 하도록 하기위해 성도를 구비시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

목회사역에 헌신하도록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것은자기 백성을 돌봐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장의 마지막에 이르면, 정말이지 평신도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가족들을 맡아서 성도들을 돌보는 평신도로서의 목회경험으로 보건대 누군가가 "평신도가 정말로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예! 될 수 있고 말고요, 그들은 진심으로 효과적으로할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협동목사인 제리 컬크박사는 "찰스 피셔가 방금 죽었다고 내게 말하는 조지 베커와의 통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 말했다. "찰스 피셔는 주일학교 부장이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장로였다. 그런데 조지는 피셔의 평신도목회자였다. 조지는 피셔가 사업에 실패한 후 몇달동안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는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피셔의 남편이 죽었을 때 피셔부인은 나에게 전화하기 전에 조지에게 먼저 전화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나에게 알려준 것은 그녀의 평신도목회자인 조지였다"는 것이다.

"나는 몇 달 전 집으로 오는 길에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집으로 방금 돌아온 어떤 가족을 방문하려고 그 집에 잠깐 들른 적이 있다. 내가 그 집에 들어 갔을 때 그 가족들은 '우리의 평신도목회자가 방금 다녀갔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 평신도목회자를 아는데, 그는 병원에 매일 찾아와서 목회를 하였고, 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평신도목회자를 통해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또 한분의 평신도목회자를 알고 있는데, 그는 어떤 할머니를 도와주었다. 그는 할머니가 혼자서 생활할 수

없음을 보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런 것들이 목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 교인들 중에 꽤 많은 평신도들이 다른 성도를 위해 방문하고, 기도하고, 접촉하고, 양육하는 이런 일들이 목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제리 목사는 질문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질문에 대답한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자유를 의미한다; 그것은 감사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목회사역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¹⁾

“피부로 느끼는 사랑”

평신도는 “체감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사랑의 능력은 다음과 같은 예로서 증명된다.

한 과부 평신도목회자가 5-10명의 과부들을 목회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 과부 중의 한 사람은 아직도 남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있으며 3년째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예배에 겨우 참석할 정도였다.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녀의 가정에 병들고, 상을 당하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못했다. 교회의 목사는 너무 바빠서 그녀를 돌볼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평신도목회자가 결국 그녀를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게 했고, 그녀는 이제 교회의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30살 된 정신박약아를 가진 어떤 가족은 3년 동안 교회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그 가족은 큰 교회가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돌봐주지 않는 데에 대해 상당한 상처를 받았다. 1983년 11월에 도로서 스미스씨는 그들의 평신도목회자가 되었다. 그 여자는 1984년 4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괴로워하던 그 가족이 이달에 두 번 교회에 출석했고 부활주일에도 나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가족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엄마는 교회일에 헌신하고자 마음먹고 있다. 그 평신도목회자는 정신박약아와 친구가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기를 희망한다.

또 한 목회자는 몇 사람을 돌보도록 임명되었는데, 그들은 대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어느날 늦은 밤에 그 중에 한사람이 평신도목회자에게 전화해서 갑자기 심하게 아픈 자기의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그 평신도목회자는 그 아들과 부모를 위해 전화로 기도해 주었다.

어떤 부부는 자기들은 평신도 목회자가 필요없다고 그들의 평신도목회자 부부에게 말했다. 그런데 두 주가 안되어 그 남편은 심장마비가 일어났다. 그 아내는 교회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했겠는가? 아니다. 그녀는 자기들이 지난 번에 거절했던 그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하였다.

평신도들에게 목회적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우리 교회만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어느 교회이건 간에 돌보는 은사를 받아서 사랑해 줄 수 있고, “함께 있기 위해” 시간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이런 사역에 부름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목사들이 잘 관찰해 보면 이미 성도들을 돌보는 평신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바로 평신도목회 사역을 개발하는데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목회적으로 돌보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이와같은 의미있는 사역에 봉사하기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성경은 안수받은 목사만이 목회해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안수받은 목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양을 돌보라(요 21:16)”는 사명을 주셨다. 사실 그는 예수님과 거의 4년을 같이 지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베드로로부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벧전 5:2)고 사명을 받은 장로들은 사실 신학교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바울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함이라"(고전 12: 2)²⁾

현대의 종교개혁

성경은 평신도에게 목회사역을 개방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사역을 하도록 초청하고 있다. 안수받은 목사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에서도 종교개혁의 "신자의 제사장직" 선언에 따라 이런 사역이 거의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단지 슬로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이 목회적으로 돌보는 일에 헌신하도록 구비시키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일으키실 때까지 400년 이상이나 실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그것을 자신들에게만 적용시켜왔기 때문이다. 16세기의 종교개혁시대에 교회는 평신도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현대의 종교개혁은 평신도에게 목회사역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목회사역에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 일인가!

완고한 저항

수세기 동안 내려온 목사와 평신도의 전통적인 역할(목사는 목회를 하고, 평신도는 목회를 받는)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데에 아주 부적절하다. 아직도 평신도에게 목회사역을 개방하기 위해 조직을 개발하는 일은 수세기 동안 관행으로 자리 잡아온 완고한 저항에 부딪히는데 그것은 세가지이다:

1. 목사는 "평신도를 목회자"라고 하면 그것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저항한다 ("내가 목사다")
2.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목회사역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그럴 가치도 없다고 느끼기에 저항한다("내가 다른 성도들을 상대로 목회한다고?")
3. 성도들은 목사가 목회하도록 그들에게 봉사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한다("내가 아프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안수받은 목사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훈련되고 임명받은 평신도들이 성실하게 목회적인 돌봄을 수행해내는 것을 쉽게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신학교육이나 안수 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목회자들을 칩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평신도들은 목회적인 돌봄을 잘 수행하 내기 때문에 재빨리 인정을 받고 있다.

가정은 사실로 증명되었다.

우리는 평신도목회(LPM)를 개발하기 시작할때에 "평신도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겨인들은 평신도목회자의 목회를 받아들일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평신도목회자들로부터 보고들은 이 가정이 사실이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입증하 것이었다.

이 목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와 또 다른 목사 그리고 15명의 평신도들이 함께 일하려고 모였다. 우리는 이 그룹을 "목회그룹(Ministry Group)"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 가정을 시험해보기 위해 목회 임상 사역 (Pilot Project)을 실시해 보기로 하였다. 우리는 이 목회가 단지 탁상공론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임상목회사역은 6개월간 계속되었다. 그때에 목회그룹(MG)중에 5명이 5가정에서 10가정을 목회하기위해 지원하였다.

가정방문을 하고나서 첫번째로 보고한 사람은 찰스 말쉬였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방문약속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비록 피터슨 가족들은 나를 몰랐고 나 역시 그들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지만 피터슨은 내가 방문한 것을 매우 기뻐했다. 나는그의 가족과 직업 그리고 날씨등에 관해서 얘기했다. 나는 그들에게 평신도 목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목회사역에 대해 보고하는 찰스의 목소리나 눈빛이나 열심을 볼 때에 마치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했다. "이들 중에 두 사람은 교회를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들은 교회의 목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껴. 그들은 설교의 어떤 점에 대해서는 못 마땅해 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설교자들에게 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들은 2.3주 동안 만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 나는 그 집을 나오기 전에 함께 기도했다. 나는 그 젊은 부부와 다시 만나고 싶어 견딜수가 없었다."

이 보고 후에 양육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피터슨 부부는 교회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였을뿐만 아니라 2년 후에는 그들 부부가 평신도목회자가 되었다.

찰스에게 주어진 6개월간의 목회임상사역 기간은 그후 7년이나 계속되었다. 그가 평신도로서 그 동안 사역해오고 발전시켜왔던 모든 목회사역은 그가 죽어야 만이 그만두게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었다.

우리는 "평신도들도 정말로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라

최근의 많은 연구들을 보면, 돕는자의 역할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효과성을 잘 확인해 주고 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칼커퍼(Robert Carkuff)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인들도 전문적으로 돕는자들 만큼이나 효과적으로 도울수 있기위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목적과 문제들에 있어서 일반인들도 자겨증있는 전문가들 보다는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위해 배울수 있고 이해한데로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전문가들 보다는 나을수가 있다.³⁾

많은 평신도들은 다음의 세가지 자질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을 그들의 목회사역에 적용할수 있을것이다:

1. 정확한 공감적 이해
2.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따뜻함
3. 순수함⁴⁾

몇 년 전에 나는 두 개의 글을 읽은 바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이따금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들려 주곤했다. 그것은 나에게 평신도도 진실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오스카 퓨크트(Oscar E. Feucht)의 정의인데,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목회의 한 팀(a ministerium)이 될 수 있다"⁵⁾는 것이다.

둘째는 사무엘 사더드(Samuel Southard)의 대담한 입장인데, "많은 성도들은 우리 목사들이하는 일을 대부분 할 수 있다 ... 목사의 임무는 성도들이 목회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것이고, 행정과 모본을 통해 그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⁶⁾는 것이다

신자들의 목회직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알라스트 캠벨(Alastair Campbell) "모는 신자들의 목회직"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책 「**목회적 돌봄 사역을 재 발견하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회적인 돌봄을 전문가적인 틀안서만 본다면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목회적인 돌봄이란 한 개인의 인격적인 성실성에 근거한 인간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많은 지식의 총적이나 인간관계의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과 두려움과 상 실과 사망의 음집한 골짜기에서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태도에 달려있다.⁷⁾

캠벨은 목회적으로 돌보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사랑(enfleshed love)”이라고 하였다.⁸⁾ 우리 목회 그룹의 평신도목회자들은 목사들이 바빠서 시간을 내어줄 수 없는 그래서 소홀히 취급받아온 수많은 성도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우리는 “신자의 목회직”을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회의 당회와 제직회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1978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사역을 잘 하고 있는 평신도목회(LPM)를 공식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는 평신도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것이나 이 주제와 관련된 책을 통해 깨달은 것은 평신도목회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실과 슬픔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들인 케네스 미첼(Kenneth R. Mitchel)과 험버트 앤더슨(Herbert Anderson)은 그들의 책인 「모든 상실, 모든 슬픔」에서 모든 돌봄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말없이 편안하게 들어주면서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 그들의 고통이나 혼란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것; 강한 감정이 표출되었을 때 격려해 주는 것; 감정적인 버팀목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⁹⁾

평신도와 목사는 이러한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평신도들은 일반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더 내어줄 수 있다.

나는 미국의 건강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테이킹 타임(Taking Time)지의 저자들을 통하여 평신도들에게 상당한 신뢰감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암에 걸린 사람은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여기있다(I am here)”고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¹⁰⁾

정부가 일반인들에 대해 이런 신뢰감을 갖는다면 교회가 평신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심할 필요는 더욱 없다. 어떻게 감히 안수받은 목사만이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에서 평신도들에게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 신뢰는 평신도가 다른 평신도에게 “변화가 많은 세상속에서 신실하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 가능했다. 또한 그들은 직업적인 목사보다도 더 자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목회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자질들을 확인하였다. 즉 공감력, 따뜻함, 순수함, 돌보는 태도, 경청해주는 것, 격려해 주는 능력등이다.

목회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자격요건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학위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하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평신도나 전문적인 목사는 다같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목회적으로 돌보는 강력한 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다. 평신도들도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목회를 개발하기 시작할 때에 전제하였던 가정중의 하나를 확증해 주는 것이다. 즉 평신도들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인들이 평신도목회를 수용할 것인가?

평신도들이 자기 동료들의 목회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실제로 평신도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신도가 목회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를 갖추는 것은 다른 평신도들이 그들을 목회자로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좌우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 “예, 그들은 수용합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지만 약간의 예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예외의 경우에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평신도는 안수받은 목사라고 해서 그들을 언제나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모든 목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성도는 목사가 심방 오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예배에 출석하고 이따금씩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자신의 소명을 잘 인식하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잘 훈련받고, 교회로부터 임명을 받은 평신도 목회자들이 담당하는 목회사역을 성도들이 잘 한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평신도 목회자들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개방적이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이다.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교회에서도 평신도 목회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케네스(Kenneth) 박사는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사역을 위해 평신도들을 훈련하고 조직해 주는 시스템인 스테반 시리즈(Stephen Series) 창설자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로 평신도의 목회를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확실하게 예! 라고 대답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 중에 90%나 혹은 그 이상으로 스테반 목회자의 방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스테반 사역을 받기위해서는 적절하게 준비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¹⁾

그러므로 이제 이 장을 시작할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요컨대 평신도는 충분히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가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 결론은 성경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Notes:

1. 이 이야기는 평신도목회자를 훈련하는 비디오 테이프에서 제리 컬크 박사가 말했다. 그 비디오 테이프는 이 책의 저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258 페이지 있는 강의).
2. 앞으로 이런 참조에서 성경을 인용할 때에 이탤릭체로 된 단어나 구절은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거나 설명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3. 게리 스위튼의 박사학위 논문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조직적인 인간관계의 훈련모델의 발전"에서 인용하였다(Ed.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1975), p. 135.
4. Samuel Southard, *Training Church Members for Pastoral Care*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82), p.76.
5. Oscar E. Feucht, *Everyone a Minister* (St. Louis, MO: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4), p. 8.
6. Samuel Southard, *Comprehensive Pastoral Care*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75), p. 7.
7. Alastair Campbell, *Rediscovering Pastoral Care*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1981), p. 41.
8. Ibid., pp. 46-47
9. Kenneth R. Mitchell and Herbert Anderson, *All Our Losses, All Our Griev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p. 117.
10. (암에 걸린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미국의 암 연구소인 건강연구소가 발행하는 테이 키 타임지 28페이지에서 인용
11. 스테반 시리즈는 이 책의 기본개념을 설명하는데 아주 철저하고도 잘 조직된 시스템의 한종은 예이다. 그것은 조직과 행정과 훈련과 목회적돌봄사역을 하고 있는 평신도사역자들을 지도감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스테반 목회사역과 접촉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1325 Boland, St.Louis, MO 63117, Phone (314) 645-5511 를 참고하라.

제 2 장 그것은 성경안에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자동차 범퍼에 붙여놓은 이와 같은 문구들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는 확실하다.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들도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누가 그것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1. 그 개념을 보여준다.
2. 서로 돌보라고 권면한다.
3. 성령께서 믿는자들에게 목회적인 은사를 주신다고 가르친다.
4.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예들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나는 목회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언급하였다. 이제 내가 말하고자하는 목회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이다. 목회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 정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 제하고 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돌봐 줄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 돌보는 힘은 인간 관계속에서 나온다; 기독교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계속적으로 돌보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한다.

최초의 평신도목회자들

평신도 목회의 개념은 성경에서 생겨났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 "내 양을 돌보라(요 21:16)"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는 고기를 잡는 옛 직업으로 되돌아 갔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라"(벧전 5:2)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유를 들은 장로들 역시 돌보는 사역을 하기 위해 어떤 공식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성도(sa1nts)들에게"라고 쓸 때에 그들 중에 대부분은 목회은사를 받았으며, 그 은사들은 교사인 목사에 의해 지도되고 강화되었다. 그는 결코 목사안수를 받은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니었다(엡 4: 7-12를 보라).

하나님께서서는 평신도가 돌보는 사역을 하도록 부르신다.

이 성구나 다른 성경본문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만일에 평신도들이 자원한다면 그들은 목회자들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순수하고 효과적인 목회자가 되도록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무엘 사더드는 이 결론을 다음과 같이 지지했다: "많은 성도들은 우리 목사들이하는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목사의 임무는 성도들이 목회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것이고 행정과 섬기는 본을 통해 그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¹⁾

사더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이 목회 시스템에서는 목사들의 우선적인 사역이 바뀌어져야 한다. 목사는 환자나 고독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기 보다는 아프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건강한 평신도들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²⁾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부르신다. 그는 이사야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위로하라(이사야 40: 1)"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요구하신다. **위로하라(comfort)**는 단어는 라틴어 con 과 fortis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 의미는 "함께 있으므로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것이다. 목회에 대한 묘사를 얼마나 잘 나타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시 142:4)라고 한 시편지자의 탄식과 같은 것이 교회 안에 없기를 바라신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전문적인 목사만이 목회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와 같은 탄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것 - 으로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소홀히 여겨지

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그의 제자들이 그가 했던 것처럼 목회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즉 돌봐주고, 도와주고, 용납하고, 고쳐주고, 위로하고, 확신을 심어주고, 중보기도를 해주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한 마리의 잃은 양 비유는, 아무도 "갈라진 틈새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회적인 돌봄을 위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충고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 18:14)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회를 혼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소홀히 하게되는 목사는 양무리를 버린 일로 인해 스가라 선지자들로 부터 비난을 받은 어떤 목자보다 더 나을것이 있는가?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 "(스가라 11:16). 의도적으로 소홀히 되었든지 아니면 나태해서 소홀히 되었든지 간에 궁극적인 결과는 똑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모세는 배워야 했다.

모세가 비록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돌보지는 못했다. 그의 장인 이드로가 볼 때 모세는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 도와주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그들중 많은 사람들의 청원을 듣지 못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출 18:17)라고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평신도 목회에 대한 성경적 모델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

1. 한사람이 모든 사람을 목회하려고 했던 전통적인 방법은 적절하 지 못하다: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리고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출 18:18),
2. 만약에 평신도들을 구비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율법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 라"(20절).
3. 목회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 "재덕이 겸전(兼全)한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21절).
4. 조직은 단순하였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21절).
5. 임무는 구체적이었다.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22절), 그들은 작은 일들을 판단했다. 그러나 아주 큰 일은 모세에게 의뢰했다.
6. 결과는 현저했다:
 - (a) "그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22절).
 - (b)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이다"(22절).
 - (c)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23절).
 - (d)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평안히 갈 것이다"(23절).

모세의 위대함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솔직함에 있었고, 또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일 만큼 겸손함에 있었다. 그는 즉시 실천에 옮겼다. "모세 가 벽에 부딪혀 힘들게 된 것이 오히려 그를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었고 또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확신한다.

민수기에서 또 하나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민 수기11:14)라고 하였다. 많은 목사들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는가! 절 망에 처한 모세는 결국 사람들의 짐을 자기와 함께 나누어 질 70명의 장로 들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다.

모세와 같이 나도 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수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지난 수년간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들 어왔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즉각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나는 전통적인 목회방법을 꾸준히 지켜왔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나의 피곤을 자랑으로 삼았고, 그러는 가운데 나의 가족을 소홀히 해 왔었다. 나는 교인들에게 필요한 목회를 할 수 없었으며,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마저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방법은 매우 탁월하다. 민수기 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민수기 11:17)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신(Spirit)"이 대문자 S 인지 혹은 소문자 s인지 즉 그것이 하나님의 영(Spirit)인지 모세의 영(spirit)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하나님은 오늘날에 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목회사역을 위해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을 목회사역에 부르시고, 각자의 목회사역에 열매가 맺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다(고전 12:7-11).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요 14:16, 17);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내적 성장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목회를 위해 성도를 구비 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한다(롬 8:9-11, 고전 12:4-11); 누가 역시 성령 은 전도와 목회사역을 위해 권능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눅 24:48, 29:행 1:8).

우리의 목회그룹이 평신도 목회를 위해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을 때(4장 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성경이 목회사역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정말로 생산적인 연구였다. 왜냐하면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데 기운을 불어 넣어 주었고, 성도들에게 맞는 목회적인 돌봄을 위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해 주었다.

Notes

1. Samuel Southard, *Comprehensive Pastoral Care*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75), p. 7.
2. Ibid., p.6.

제 3 장

평신도목회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그것이 필요한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것 한 가지를 말하십시오. 이것은 아마 당신의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나 혹은 휴가 때에 가고 싶은 곳에 대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8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읽은 것은 평신도 목회자를 훈련하는 세미나 내용중의 일부이다. 등록자들 중에 네 명을 한 그룹으로 나눈다. 그들은 서로 이름을 알려주고 그들의 삶에 대해 얘기들을 주고 받는다.

8분이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명은 나머지 세 명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친구나 친척, 또 잘 알고 지내는 어떤 사람의 필요나, 가족 중 누군가의 필요나, 또는 당신 자신의 필요에 대해 말하십시오, 지금부터 8분을 사용하십시오.”

“자, 이제 각자는 다른 사람이 말한 그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는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네 사람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네 사람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룹의 기도가 거의 끝나갈 때에 부드럽게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한다. 기도가 다 끝난 사람들은 함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모두 다 눈을 뜰 때 까지 조용히 부른다. 이런 모임은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다. 거룩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형성 될 것이다.

이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아 십니까?” 침묵이 흐른다. “여러분은 지금 서로에게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아하”라고 한다. 그들은 거기에 함께 있었다. 그들은 들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기도해 주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에 공감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를 가지고 있다

이 경험은 훈련 세미나 중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였다. 다른 것들도 많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누구에게나 염려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가?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 모두가 삶이 잘 되어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늘 기도받고, 돌봄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가끔 평신도 목회자가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목회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팀에 있는 평신도 목회자 중의 한 사람인 붓(Ruth)이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한 여인이 있는데 자기가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붓이 우리 그룹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한지 8개월째 될 때의 일이다. 그녀는 몇 번이고 전화를 했지만 방문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알리지 말고 그냥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갑시다.” 라고 제안했다. 우리가 같이 가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 여자는 문을 열 어주었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을 소개하고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저는 지금 바쁩니다. 그러나 들어오세요.”라고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때까지는 그런 대로 좋았다. 나는 그 여자가 부엌에서 뭔가 바쁘게 요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응접실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룯과 나는 뭔가 얘기 해 줄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곧 부엌일을 마치고 우리와 즐거운 얘기를 주고 받으며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그녀는 손수 막 구운 쿠키까지 우리에게 대접했다. 우리는 같이 이야기하던 중에 그녀가 병약한 어머니를 옆방에 모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가 낮에 일하러 가면 “어머니를 돌봐 주는 사람”이 온다고 말했다. 이 말은 그녀가 밤과

주말에는 어머니를 돌봐 주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녀에게도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붓은 그녀가 평신도 목회자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었다. 평신도 목회자인 린이 전화했을 때 그녀가 친절하게 응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우리가 떠날 때에 두 여인은 얼싸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해서 같이 만나기로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교환해 주고 있지 않는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필요들을 인정하기를 꺼려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목회적인 돌봄사역을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병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생활에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을 어겼고... 어떤 사람은 장모가 지난주에 죽고...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의 "필요"를 말해 주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좋은 친구 30명이 둘러 앉은 자리에 같이 있게 되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독특한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깊이 한 신된 자들이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목회사역에 연관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목회자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돌봄은 프로그램은 계획되어야 한다. 돌봄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의 다른 부분 즉 교육, 전도, 예배, 재정, 재산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를 상대로 하는 목회적인 돌봄 사역을 위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돌봄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바라든가, 전적으로 목사에게만 맡긴다든가, 또는 자신의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긴다면, 하나님의 가족 중 어떤 사람은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만약 그들이 돌봄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부분적이든가 아니면 때늦은 사역이 될지도 모른다.

교회는 분명히 목회적인 돌봄사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의도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필요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간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나 잘 나서지 않은 사람인 경우의 필요에는 제때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 케네스 호그 박사는 (Dr. Kenneth Haugh)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도들은 교회의 여러가지 계획 즉 예를 들면, 새로운 파이프 오르간을 구입하거나 스테인 유리창으로 바꾸는 일이나, 목회자를 충원 한다거나, 시설을 확장하는 일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돌봄을 위한 목회사역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하여 다른 부분처럼 철저한 계획을 요구할 때에는 공감과 이해를 얻는데 그리 쉽지 않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사실 돌봄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거나 어떤 필요가 있거나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 회중들을 불러 헌신을 구할 때 그것은 회중들 자신과 그들의 삶의 중심을 드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형성하라

지금 당장에는 어떤 위기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어떤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때에 어떤 사람은 저런 때에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삶의 현실이다.

결혼한지 얼마 안되는 부부가 평안한 가정생활을 잘 꾸려가고 있었는데, 이들 가족을 우리 팀의 평신도 목회자가 충실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왔다. 남편의 심장 질환이었다. 병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결혼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들 부부는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평신도 목회자는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고, 또 연락을 끊지 않았다. 평신도 목회자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들 부부는 상담을 해보자는 그 평신도 목회자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결국 화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을 잘 돌봐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돌봐주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 묵회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해 놓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평신도 묵회자의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묵회는 또한 양육하는 일이다

필요들에 대해서 말할 때, 영적인 양육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묵회라는 것은 위기가 없을 때에도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양육과 관계유지를 병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점차 묵회의 범위를 넓게 해준다:

1. 비위기 때의 관계형성
2. 위기 중에 돌봐주고 도와주는 일
3.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일

전통적 묵회 방식은 단지 그 사람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하도록 하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 관계에서 물러나지만 그러나 평신도 묵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괄적 사역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 어떤 묵회 방식은 사람들을 교회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더 많은 대화를 하게 한다. 평신도 묵회도 이런 목적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그 성도와 그 가족에게 충분히 묵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준다. 이것은 영적인 양육을 포함한다.

우리는 평신도 묵회자들에게 말한다. "여러분이 묵회할 때에 그들은 묵회적 돌봄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은 단지 담임목사가 올 때까지 임시로 그들을 돌보거나 접촉하는 사역자가 아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묵회자이다!"

전체적인 돌봄

사도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고 가르친 것은(행 20:28), 그들이 어려울 때에만 돕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에도 함께 축하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도 도와주라는 것이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돌보라"(벧전 5:2)고 요청했을 때, 그것은 장로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격려하고, 그들이 절망스러워 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 묵회 사역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돌봄이요, 포괄적인 돌봄이다.

사무엘 사더스는 "묵회적 돌봄을 위한 교회 신자들의 훈련"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 사무엘 사더드는 평신도가 이런 전체적인 돌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과 같이 말했다. "묵회적 돌봄이란 상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넓은 용어이다. 그러나 그것은 감독이라는 뜻을 포함한다. 즉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²⁾

에베소서 4장은 이와같은 묵회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그 "묵회사역"은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성취해야 한다:

1.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2. 신앙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
3. 사람들이 성숙하도록 돕는 것
4.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5.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6.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

7. 몸의 각 지체가 적절하게 일하도록 도와 주는 것

8. 사랑 안에서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12절-16절을 참조하라)

우리가 이런 넓은 의미에서 목회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목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분명히, "예, 그렇고 말고요"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에게 돌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그룹이 있다. 성령에 의해 자비나 긍휼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목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목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 런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좌절하게 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멈추게 될 것이다. 평 신도들은 목사들이 목회사역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성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충 분히 알려지고,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다른 교회에서 문의해 올 것이다

누구에게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또 하나의 대답이 있 다. 바로 다른 교회들이다. 평신도에 의한 순수한 목회는 미국에 있는 교 회에도 비교적 새로운 것이지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도 새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신도 목회 모델을 칼리지 힐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는 미국의 전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다. 또한 캐나다,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으로부터도 문의가 들어 온다.

만일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평신도에게 목회사역을 개방한다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웃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평신도목회 를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문의해 올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의 목회 프 로그램 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의 교회 안에서 행하 시는 새로운 사역의 한 부분이다.

이 프로그램이 널리 퍼진 한 좋은 예가 있다. 우리 교회 교인의 어머니 가 테네시 주의 채타누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심한 질병을 앓고 있 었을 때, 그 분을 상대로 목회적 돌봄을 베푼 한 평신도 목회자의 이야기 이다. 우리 교회의 교인은 자기 엄마를 간호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 그 런데 거기에는 자기를 중앙장로 교회에서 온 평신도 목회자라고 소개한 한 사람이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자기 딸 만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목회적인 돌봄을 주기 위해 거기에 온 것이었다. 그런데 그 중앙장로교회는 몇 년 전에 이 평신도 목회사역을 도입했다.

누구에게 평신도 목회가 필요한가? 모든 사람이다! 우리가 대답을 이렇 게 확정하고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목회자 들을 파송하는 목표를 세우자고 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다.

Notes

1. 1985년 스테판 시리즈의 여름호에서 인용, Stephen Ministries, 1325 Boland, St. Louis, MO 63117.

2. Samuel Southard, Training Church Members for Pastoral Care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82), p. 18.

제 4 장

이제 시작하라

우리 교회는 돌봄의 목회사 역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평신도 목회를 시작하였다. 그 때에 우리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는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참 많았다. 그러나 그 외침에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많은 문제들은 주목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인간관계 및 고용문제 등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들어주고, 함께 있어 주는 일과 같은 지원해 주는 도움이 그들의 필요에 부응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방문을 받거나 기도를 받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 양노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병약한 사람들은 거의 무시되고 있었다. 게다가 영적인 필요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이다.

"교회도 크고 목회자들도 많은데 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심방하는 것을 볼 수 없으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이 많았다.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주목할만한 사실인데,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으면, 큰 교회는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교인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서로 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큰 교회 사람들은 작은 교회의 목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기 성도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돌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작은 교회의 사람들은 큰 교회의 교인들이 목회적 돌봄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쪽 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는 작은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왔고 지금은 목회자가 많은 큰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전통적인 목회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교회의 크기에 관계 없이 적절한 목회적 돌봄을 줄 수가 없다. 현대목회의 요구는 너무 커서 큰 교회의 목사나 작은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이나 성도들의 가족들이 원 하는 대로 목회를 다 해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목회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과로할 정도로 뜨겁게 일하는 헌신적인 목사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목회자의 시간과 에너지의 제한으로 인해 사람들의 필요가 소홀히 될 때에 그들은 상당한 상처를 받는다. 이러한 좌절감과 상처에 무거운 죄책감마저 더해진다.

그 동안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을 고려하기 위한 각성집회가 1975년 5 월에 개최되었다. "각 위원회는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목회 적으로 돌봐 줄 책임이 있다... 목회 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돌봐주지 못 하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모든 회중에 대해 책임이 있다"

비록 이 행사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 방향으로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 수 없었다. 이것은 마치 미국정부가 좋은 프로젝트를 위한 법안 통과는 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지 못해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회방향은 담임목사님이 "당회는 우리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 언제 그런 목회를 실시 할 것인가?"라는 외침의 발판이 되었다.

평신도 목회사역을 위한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역할

목회사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담임목사와 그리고 나 세 사람은 담임목사 의 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시점에서 평신도 목회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에서 실제적인 실행으로 옮겨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성도는 설교를 통해서 평신도 목회사역의 개념을 배우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양육을 받아 왔다. 이런 가르침은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14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5장에 분명히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 칼리지 힐 장로교회에서 수 년 동안 가르침이 있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이기도 한 목사들은 목회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구비시켜 이한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우선적인 소명이다. 그것은 목회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2. 모든 신자는 목회를 위해 은사를 받았다. 이런 은사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의미있는 목회사역에 사용될 수 있다.
3. 예수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목회사역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그의 주권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이런 교훈을 폭넓게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목회의 개발을 위한 길이 준비되었다.

인식에서 부터 필요에 부응하기

1978년 초 우리는 목회적 필요를 조사하기 위해 목회그룹을 만들었다. 이 목회그룹은 선교와 전도와 목회와 같은 구체적인 목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예배와 교제와 양육은 이런 구체적인 목회를 실천하는 그룹 모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룹 멤버들은 그들의 목회사역에 대한 책임 뿐 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나누기도 하였다.

우리의 목회그룹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목회자 몇 명이 함께 하였는데, 지난 일년 동안 헌신한 제리 컬크와 나였다. 나머지 15명은 모두 평신도들이었는데 목회사역에 관심 있어서 뽑혔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목회주제에 관한 많은 성경공부와 관련된 서적을 읽고 난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주제를 가지게 되었는데 후일에 조직구성에 초석이 되었다.

1. 평신도 목회자의 자질들
2. 목회사명(평신도목회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3. 헌신기간
4. 모집(평신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작성)
5. 구비시킴(기초과정과 계속과정)
6. 가족할당(평신도목회자 각자에게 가족을 할당)
7. 조직
8. 감독(평신도목회자들을 감독하는 평신도목회자들 '목자'라고 부른다)
9. 책임(보고서)
10. 권위(파송)
11. 커뮤니케이션(평신도들에게 보내주는 월간소식과 교회주보에 실는 내용들)

12. 평가

목회임상사역 프로젝트

1년 동안의 연구와 계획 후에 우리는 목회임상사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계획을 현장에서 시험하는데 6개월 정도가 필요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목회그룹의 5명이 6개월 동안 5-10가정을 목회하기로 자원했다. 5명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가족들을 방문하고, 우리의 가정을 시험해보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했다.

목회임상사역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이것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처음에 6개월간 목회임상사역을 실시했던 그들은 그 이후 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사역을 하였다. 원래 계획에도 없었던 이런 상황이 생기므로 말미암아 순수한 목회적 관계에서 삶의 유대가 더 강화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다.

다음 단계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

우리들은 이 목회를 위해 사람들을 더 모집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이러한 모집의도는 청중에게 잘 이해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여서 훈련되고 평신도목회자로 위임받아 임명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시행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은 힘이 덜 들고 죄책감도 많이 줄어들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소홀히 취급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평신도들은 전에 없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일을 계속 수행하였다.

함께 시작하라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평신도 목회를 시작하려면 먼저 취해야 할 첫 단계가 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고 특히 목회에 관심이 있는 일단의 평신도그룹을 먼저 모집하여서 그들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한다. 평신도들은 목회에 대한 개인적인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필요를 함께 생각하고 목회를 함께 개발하는 데에서 생겨난다. 처음부터 평신도들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상아탑"식으로 목사 혼자서 계획하는 것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지난 목회기간의 대부분을 "상아탑"식으로 혼자 일해 오던 것에 익숙해 있던 목사로서 나는 동등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평신도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천천히 배워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이상과 정신 그리고 나의 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목회계획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동등한 소유의식을 갖게 되었다. 나는 평신도들이 실제적인 접근, 창조적인 아이디어, 배우는 일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존경심을 가졌으며 또한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나를 필요로 했고, 나는 그들이 필요했다. 우리는 서로서로 필요했다.

말린 윌슨(Marlene Wilson)은 자원 전문가들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돕기 위해 스스로 만든 계획에 헌신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에 의해서 종종 간과되었다. 그러므로 좋은 계획을 실천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계획을 세우는데 영향력을 미칠 사람들을 처음부터 포함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재미있는 실례를 경험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평신도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목회그룹에서 발표할 때이다. 나는 그것을 설명해 나갈 때 과거에 하던 방법인 나의 "상아탑"식 접근방법을 사용했다. 나는 내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한 것을 준비해서 그 모임에서 발표했다. 모든 사람은 나의

제안을 집으로 가져가서 연구를 했으나 다시 만났을 때에는 잘 받아 들이는 것 같지 않았고 의견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목회그룹의 리더인 톰 해리스(Tom Harris)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해하기에 당신은 물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다."

우리 모두는 웃고 말했다. 그러나 톰은 요점을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을 분명히 이해했다. 나는 그의 지혜로운 말을 비굴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받아들였다. 나의 고상한 아이디어는 그것대로 좋았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이지 못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평신도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계를 함께 만들기 시작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은 목회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서, 혹은 평신도 혼자서 설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둘이 함께 할 때 만이 제대로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칼리지 힐 장로교회에서 이런 목회를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싶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는 떨기나무 수풀 속에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와서 그 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를 보내리라."(출 3: 7-10).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즉 "나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에 있는 내 백성의 탄식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목회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는 음성을 듣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목회사역을 평신도들에게 개방할 것을 원하신다고 확신한다. 이 일을 이루는 한가지 방법은 목사와 평신도가 한 팀이 되어 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목사의 전문적인 목회훈련과 경험이 평신도사역자의 지혜와 실제적인 지식이 함께 잘 어우러지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자기 백성을 잘 돌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토마스 길러스피(Thomas Gillespi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와 같은 목회는 안수받은 목사들이 목회사역을 평신도들에게 위임하려 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꺼이 움직이려 하고, 평신도 목회자들이 스스로 섬기려 나서려고 할 때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회중을 준비시키기

교회 안에서 평신도를 순수한 목회에 불러들이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며, 어떤 면에서는 혁명적인 일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원리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교회의 목사가 평신도들에게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인 것에 대하여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면, 평신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후보자들이 많이 등록하였을지라도 회중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함께 평신도들의 목회사역을 서로 주고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회중을 준비시키는 데에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1. 평신도 목회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한다.
2. 설교, 가르침, 공부, 토론 등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어라.
3. 교회 후보와 목회서신을 통해 교인들과 대화하라.
4. 당신의 활동과 비전과 계획들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그 들을 초대하여 이런 것에 동참시키도록 하라.
5. 주중에 혹은 주말마다 "평신도들의 간증 시간"을 가져라.

6. 평신도의 목회적 은사나 평신도의 목회참여에 관한 책을 골라서 팔거나 빌려준다(이런 책에 대한 주제별 참고도서 목록을 만들어라).

7. 이미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라. 어느 교회가 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격려하고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라.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목회그룹을 위해 헌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세 단계

우리는 평신도 목회를 시작하고서 몇 년이 지난 후 이 목회에 세가지 단계가 있음을 알았다.

단계 1. 개발 - 목회를 함께 하면서 하는 개발

단계 II. 실행 - 목회현장에 적용하는 실행

단계 III. 유지 - 계속해서 이대로 전진하는 유지

개발단계는 1년이 걸렸는데, 그 이후에는 세 단계가 모두 동시에 진행되었다. 예를들면:

단계 I. 개발은 계속되어야 한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무엇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이 잘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배운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연구와 평가와 기도와 모임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원래의 계획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변화를 경험한다.

단계 II. 실행도 계속되어야 한다. 어떤 평신도 목회자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새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교인이 새로 등록하면 그 사람을 돌볼 새로운 평신도 목회자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사역이 완전하도록 하려면 아마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우리들의 경우 새로운 평신도 목회자를 다 온전히 세우는데 1회에 15시간으로 1년에 3차례씩 훈련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단계 III. 유지도 계속되어야 한다. 발생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진행 과정을 수정하고, 평신도 목회자들을 정기적으로 모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고, 훈련하고, 사역을 평가하고, 목회의 지도감독을 한다.

인식에서 실행으로

요약해보면, 다음의 7단계는 어느 한 교회가 평신도 목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서 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 필요를 채우기까지의 과정을 언급한 것이다:

1. 교인들을 준비시킨다(56페이지를 참조하라).
2. 목회그룹을 함께 세운다.
3. 조직을 설계한다(창의, 채택, 적용).
4. 12가지 요소들을 준비한다(51페이지 참조하라).
5. 공식위원회(당회나 재직회)가 채택한 계획을 가지라.
6. 모집하고 구비하고 파송한다.
7. 평신도 목회자에게 가족을 할당한다.

다음 장에서는 평신도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목회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Notes

1. Marlene Wilson, How to Mobilize Church Volunteers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3), p. 49,
2. "목회의 동역자"란 책에서 제임스 L. 갠로우(James L. Garlow)가 인용(Kansas City, MO:Beacon Hill Press, 1981), p. 9.

제 5 장

평신도 목회자가 하는 일

평신도목회에 대하여 처음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말해서 평신도 목회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가 다음의 네 가지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그들이 실제로 성도들을 상대로 목회사역을 하게 되면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네 가지 영역은 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머리글자만 따서 PACE 라고 하였다.

P- 말은 가족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한다(Pray).

A - 필요시에는 시간을 내어 준다(Be Available).

C- 말은 가족들과 규칙적으로 접촉한다(Contact).

E- 신자로서 본이 된다(Example).

PACE는 평신도목회의 심장이다. 그것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목회이다. 이 사역의 첫 번째 목회 지도자였던 톰 해리스(Tom Harris)는 PACE 에 대한 두 가지 실제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만약에 이런 목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만 실시된다면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2. 만약에 평신도 목회자가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그들은 거기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생각해보자.

기도하라 (Pray).

이 사역의 목회 그룹의 지도자인 로이 프랭크스(Roy Franks)는 '우리 집을 방문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성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라고 요청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신다는 것 외에도 기도의 다음 네 가지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

1. 기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2. 기도는 조용히 **관계를 맺어 준다.** 왜냐하면 기도는 은밀하게 접촉 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날마다 주마다 신실한 기도를 깊게 함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강한 연대감을 깊이 느낀다고 말한다.
3. 기도는 **책임감**을 강하게 해준다. 기도는 그들의 어깨에 잔뜩 지어져 있는 목회의 짐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며 그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잡게 하는 것이다.
4.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평신도 목회자 사이의 **창의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즉 기도할 때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언제 방문하 얼마만큼 접촉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한다. 나는 기도가 효과적인 목회의 열

쇠라고 믿는다.

가능한 시간을 내어주라 (Available).

첫 방문시에 평신도 목회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교인들에게 "만일 당신 에게 기도제목이 있어서 기도받기를 원하신 다거나, 내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꼭 전화를 주십시오"라는 말을 해 줌으로 그들이 원하 면 가능한 시간의 범위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이런 확신을 심 어주기 위해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준다. 평신도 목회자가 가능한대로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에 신뢰가 가면 교인들은 기도제목이 있거나 도움이 필 요하면 자연스럽게 전화를 하게 될 것이다.

접촉하라 (Contact).

우리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이 섬기는 교인들과 접촉하기를 요청한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파송받든지 한 달 안에 첫 방문을 하게 되는데 집으로 찾아가서 서로 친숙하게 되고, 평신도 목회에 대해 설명해 주고, 상호 발전 적인 관계를 위하여 서로가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 한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이제는 평신도 목회자가 있다는 것과 평신도 목회자의 이름을 알려주는 편지를 발송한다. 첫 번째 접촉 이후에는 대부분 전화나 편지 혹은 주일날 교회 에서 지나다가 만난다거나 가벼운 이야기등으로 이루어 진다. 어떤 평신도 목회자는 그들이 섬기는 교인들을 집으 로 초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식당에서 만나기도 한다.

이런 우연한 만남을 통해 평신도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목회를 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평신도 목회자가 정기적으로 신실하게 접촉하려면 5-10가정 정도가 알 맞다. 5가정 이하가 되면 이 목회를 실시할 때에 우선순위나 성장을 향한 충분한 도전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한 평신도 목회자는 18 가정을 목회한 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평신도 목회자에게는 10가정도 너무 많을 수도 있다. 이 목회자는 거의 매일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가족을 돌볼 수가 있었다.

본이 되라 (Example).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딤후 4:12)"라고 명하신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PACE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본이 되라는 말씀이다.

본이 된다는 것은 평신도 목회자는 성도이고, 그가 섬기는 가족은 죄인들이라거나, 전자는 성숙한 사람들이고 후자 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거나, 전자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거나, 전자는 이미 도달한 사람들이고 후자는 아직도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고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회개와 겸손과 신앙과 이타주의에 있어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 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강함과 약함을 깨달아, 우리의 강함은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굳게 두고, 우리의 약함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바꾸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우리는 모두 같은 여행을 하는 동료이고, 신자들의 삶에서 어떤 진보가 있는지 서로를 통해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동료 의식은 목회사역을 상호개방하지만, 동료들은 그들에게 있는 어떤 것을 서로 나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만약에 내가 섬기는 성도가 나보다 신앙이 더 성숙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나 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그들에게서 배우라.

나는 전문적인 목사이지만 수년 동안 우리 교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내 주위에는 나 보다 더 열심히 기도 하고, 더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더 많이 아는 평신도들이 있었다. 이 런 경우에 나는 더 많이 성숙하고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부터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 본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목표는 본이 되는 것이지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7가지 약속

파송되기에 앞서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PACE에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우선적인 헌신이지만, 전체적으로 7가지가 있다:

1. PACE를 실시한다.
2.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
3. 시간과 에너지를 드린다.
4.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몇 년이든지 계속한다.
5. 훈련하는 일에 계속 헌신한다.
6. 책임있게 감당한다.
7. 교회와 목회지도자에게 순종한다.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로 준비시키는 세미나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친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주고, 서로를 용납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약속들을 주의 깊게 설명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훈련 세미나때에 평신도 목회자를 서너명씩 그룹을 지어 7가지 약속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서로 나누게 하고, 이 일에 어느 정도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하게 한다. 끝날 때에는 평신도 목회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한다. 일단 이런 헌신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은 평신도 목회를 실시하는 자들에게 표준이 된다. 어느 하나라도 버릴 것은 없다. 만약에 평신도 목회자나 이 목회 프로그램에서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버리게 되면 이 목회의 중요성이나 효과는 줄어들 것이고 질과 사기는 저하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미루거나 혹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정중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음 단계를 따르라:

첫째, 평신도 목회자와 함께 7가지 약속들을 다시 보고 원래의 기대를 분명히 하라.

둘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으라.

셋째, 문제를 인정하고, 필요시에는 협상하라.

협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1. 돌볼 수 있는 숫자로 가정을 줄인다 - 그러나 5가정 미만은 안된다.
2. 새로 등록된 교인들로 바꾼다.
3. 평신도 목회자의 개인적인 어떤 위기가 끝날 때까지 목회사역을 잠시 쉬게 한다.
4. 다른 길이 없으면, 평신도 목회자의 사명에서 해방시켜 준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 기도는 정중하고 부드러운 사태 수습에 필수적이다.

목회-넓은 범위

목회의 범위는 참으로 넓다. 목회의 한쪽에서는 평신도 목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훈련을 시키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고,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고, 소명을 확인시키고, 성도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따라오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다. 다른 쪽에서는 성도들의 필요와 평신도 목회자들의 헌신에 따라 단순히 목회적으로 돌봐주는 일이기도 하고, 당신이 실제로 돌본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양극단을 예증하기 위한 다음 두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점심을 먹던 평신도목회자 부부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요즘 이 목회사역을 그만두어야 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고려해 왔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성도가 훈련을 받으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도를 매일 또는 매주 만나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했다.

그들의 이런 제자훈련 목회의 스타일은 이전의 목회 경험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들은 그 성도들이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진실로 소망했다. 그러나 그들은 평신도 목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훈련이란 개념으로 오해하였던 것이다 (39 페이지를 참조하라).

나중에 이 부부는 성도들을 제자화 시키는 것과 목회적으로 돌보는 것의 차이를 배우는 데에 마음이 열렸다. 며칠 후에 나는 군대 생활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차이점을 설명했는데, 이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 목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정터를 상상해보라, 두 군대가 서로 마주 대하고 있다. 각 군대는 나름대로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토는 지리적인 경계(강, 골짜기, 길, 평야 등)에 따라서 상대방의 영토를 대하고 있다. 마주보고 있으므로 접촉이 일어난다. 적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눈으로 관찰 할 수 있다. 순찰차가 적의 공격을 정찰하며 왔다 갔다 한다. 싸움이 가끔 일어나기도 한다. 늘 마주 대하여, 접촉을 하며, 압력을 가하여, 또 어느 한쪽의 지배 하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사령관은 자신의 여건과 목적에 따라 압박의 강도나 전투할 기간이나 감당할 지역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

차이를 좀더 분명히 해주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당신의 목회사역은 PACE로 구성되어 있다. 접촉(C)은 어떤 사람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강하게 훈련시키는 제자화 사역이 아니다. 접촉사역은 목회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돌봐주고, 관심을 보이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다. 누가 '당신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이야'라고 말한 것처럼 되어야 한다. 수많은 종류의 접촉과 친절한 개인방문, 편지, 전화, 교회에서 만남(등등)은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것과 그들의 필요나 당신의 시간주기에 따라서 다양해 질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목회자로서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격려해 줄 수도 있고, 개인적인 관심을 보일 수도 있고, 중요한 날이나 기념일을 함께 축하할 수도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볼 수도 있고, 필요하면 가능한대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나눌 수도 있다.

헬렌 아이콜츠(Helen Aicholtz)가 말한 것처럼 목회의 범위 중 또 다른 한쪽 끝은 목회란 그저 돌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당신이 목회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나는 평신도 목회에 관해 전반적인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모친은 연세가 90인데 나와 연락이 잘 안되고 있다. 모친은 퀘벡주에 있는 몬트리올의 한 양노원에 계시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늘 걱정이 된다. 내가 그 양노원에 전화했을 때, 직원들은 그녀에게 아무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내 모친은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내 모친은 내 편지를 통해 나와 나의 염려를 잘 알고 있었고, 나를 만나서 내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다. 그들은 내가 해 왔던 것을 계속 해주기를 제안하였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친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모친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모친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평신도 목회와 유사하다. 내가 믿는 바의 평신도목회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책임과 감사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요구하면서 책임감을 가질 것을 권유했다. 우리 목회팀 중의 한 사람인 게리 스위트 박사(Dr. Gary Sweeten)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기대한 것(expected)**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 **검증된 것(inpected)**에 대한 보고서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요구한 보고서는 평신도 목회자들이 목회 활동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들이다(나는 이런 보고서들을 통해 교회의 온 회중과 간접적으로 계속 접촉한다).

감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목회를 잘 해나갈 때,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헌신들이 힘을 잃게 되고, 많은 계획들이 중도에 포기되는지 모른다. 우리는 단지 신자이기 때문에 칭찬을 하지 않아도 피곤을 모르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을 인내 중에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 할 것이라고 하는 뭔가 잘 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성경은 사람에게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존경이 필요할 때 꼭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한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롬 13:7)."

목자들과 목회감독

그러면 "평신도 목회자들은 누가 목회 할 것인가?"하는 질문을 해야 하고, 그것은 필요한 질문이다. 평신도들이면서 교회의 등록교인인 목자들이 이 평신도 목회자들을 목회한다. 목자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이다: (1) 목회적으로 돌보는 것과 (2) 목회적인 감독이다.

목자들은 목회자로서 평신도 목회자들이 그들의 가족들에게 PACE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이 5-10명의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똑같은 사역을 수행 한다. 목회감독자로서 그들은 추가된 역할이 있다. 그들은 평신도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직이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목회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별도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그들의 목자와 그들이 섬기는 성도들로부터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고독이나 좌절감 같은 것이 생길 때에 적절한 목회감독이나 격려가 없으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전형적인 목회감독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이렇다: "폴, 세리, 요즘 목회 어때요? 말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함으로 어떤 강력한 힘을 자극할 수가 있다. 이러한 질문은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목회활동을 그들의 약속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들의 목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책임감을 일깨워 준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으며, 대개는 자신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 를 말한다. 목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약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도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목회에 대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기 위함이다. 평신도 목회자가 "자, 이제 내 목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당신의 목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라고 말함으로써 서로의 목회를 돌봐 주는 일이 되는 것이다.

목회감독 차원에서 대화를 할 때에 사례별로 목회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수도 있다. 목자는 평신도목회자와 함께 다음의 다섯 단계를 따라서 진행할 수도 있다:

1. 목회활동이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중요한 화제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한 여성도의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며, 이것 때문에 그 여성도의 마음은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2.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요 이슈를 확인하라, 예: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관심은 덜 중요하다.
3. 문제를 바라보며 대안에 대해서 토론하라, 예: 남편을 충실히 사랑하는 아내를 격려하도록 하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즐기도록 하고, 그리고 그녀의 영적인 성장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4. 신학적인 해석을 하라. 이 모든 것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해 하도록 노력하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박하다(히 3:8 참조하라), 그녀는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빌4:6). 그녀의 삶은 남편에게 어떤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벧전3:1-4).

5. 목회활동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하라. 예: 그녀의 염려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나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위해 성실하게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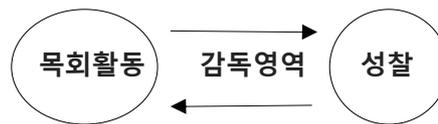
목자의 특별한 임무는 평신도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잘 준비된 해답을 주는 시간이 아니다. 요컨대 목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대화를 이끌어 갈 것이 아니라 평신도 목회자들을 배려해 주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세히 살피라

목회감독의 놀라운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목회감독은 목회를 실시하고, 목회를 하는 한 방법인 데, 목회는 목자 한 명과 평신도 목회자 한 명 이상이 그들의 목회에 대한 자기인식과 능력과 성경적 이해와 성육적인 헌신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한 방법으로 비판적인 성찰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오! 이 정의는 너무 어렵습니다! 목회를 실시하는 것과 목회에 대해 성찰하는 방법을 말해 주시오."

1. 목회사역의 상황이나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a)무슨 일이 일어났고, (b)왜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c)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평신도 목회자는 자신들이 한 일이나 경험을 말함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비판적으로 돌아 보는 것이다.
2. 목회사역에서 어떤 평신도 목회자는 감독사역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과 도구들을 얻어 가지고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다. 목회활동과 성찰 사이에 흐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 낼 수 있다.



3. 부정적인 경험과 실패들은 평신도 목회자들과 나누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런 것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아주 유용하다. 긍정적인 경험들은 인정해 주고 축하해 주어라. 언제나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숨기는 평신도 목회자들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
4. 목회 감독은 대화로 하는 것이다. 목자는 (a)들어주고, (b)관찰하고, 그리고 (c)질문함으로써 도와 줄 수 있다. 감독은 평신도 목회자로 하여금 자신의 목회 상황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거울을 제공하는 것이고,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사역을 들여다 보게 하는 것이다.

"목회 감독의 정의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목회 감독을 받음으로 인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말해주시오

자기 인식 -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는가?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잘 알 수 있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능력 - 목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필요성을 찾거나 옛날기술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목표는 우수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적 이해 - 만약에 그들이 사역의 효과성 측면에서 성장해야 한다면 성경지식이 풍부해야 할 것은 필수적이다. 목자들이 목회감독시에 그들의 성장을 나누게 되면 평신도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성장에 격려를 받을 것이다.

헌신 - 헌신은 목회사역과 주님께 하는 것이다. 양육과 기도가 없으면 성장보다는 오히려 침체가 일어날 것이다.

내 말을 기억하라! 평신도 목회자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흥 미로운 것은, 사회 사업가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만족은 다음 네 가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경우에 따라서 책임을 공유하는 일, (2) 어려운 경우에 지원해 주는 일, (3) 문제들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4) 개인 성장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런 것들은 목자들이 평신도 목회자들을 지원 하는 역할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좋은 감독은 지원하는 입장에 선다. 그것은 바로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확신을 심어 주고, 격려 해 주고, 강하게 해주고, 기술을 복돋아주고,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 마음속에 걸어 자리잡고 있는 자료들을 살짝 만져 주므로 그것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목회적 돌봄사역에 사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 평신도 목회자가 이 사역을 그만 두려고 문의했을때, 우리 복자 중의 한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가 들은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이 나에게 누군가를 방문해주기를 원했던 것과 같이 나도 누군가의 방문을 받고 싶다." 목자들은 그들의 목회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평신도 목회자들 역시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감독은 평신도 목회자를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동역자 입장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그들이 동료로 대우받으면 감독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고, 그들을 복종하는 위치에 놓으면 감독에 부정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감독에 대한 저항이 있다면, 그것은 감독자체가 아니라 감독자의 자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감독자는 감독할 자격을 얻어야 한다. 평신도 목회자가 지식이 증가하고, 기술이 향상되고,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창조적이 되어 감에 따라 감독자는 더 도전을 받게 된다. 평신도 목회자는 감독에 의해서 어떤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감독은 평신도 목회자의 목회를 강하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즉 "내 양을 돌보라"는 것을 잘 수행하도록도 움을 주는, 일종의 목회활동의 중재자 역할로 이해 하여야 한다. 당신은 아마 누군가 끈질기게 감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게 되기만 하면, 목회감독은 정말 목회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상호 나누는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양심적인 목자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좋은 목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질문할 것이다. 목자가 좋은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과 행동을 가져야 하고, 또 그 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1. 들을 수 있는 능력
2. 분별력과 주인의식
3.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4. 자신의 목회스타일과 다른 것에 대해 열린 마음
5. 돕는 관계로 만들어 가는 능력
6.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7. "평신도 목회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감각(말 보다는 감각으로 현실을 다룰 수 있는 능력)
8. 평신도 목회자의 성장을 기다리는 능력과 그들의 삶을 조정하려고 하는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9. 성장에 대한 평신도 목회자의 저항감을 파악하는 인지능력과 성장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때를 언제 조사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10. 목사와 평신도 목회자들 간에 더 깊은 개인적인 통찰력을 기르기 위하여 지속되는 과정에 대한 성찰의 능력

11. 평신도 목회자와 함께 대화의 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이 장에서 평신도 목회자와 목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는 사람들을 이런 목회로 불러 들이는 것에 관심을 돌려보자.

Notes

1. 나는 이 정의에 대해 오하이오 주의 데이톤에 있는 연합신학원에 봉직하는 케네스 폴리(Kenneth Pohly) 박사의 도움을 입었다. 그의 책 71페이지 있는 그림이나 "목회적 감독"에 대한 것을 참고하라. 본서 마지막에 있는 도서목록을 참고하라. 지금은 그 책이 출판되어 있을 것이다.

제 6 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

지원서 양식에 "당신은 왜 평신도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 이런 질문의 답변을 몇개 옮겨 적었다. 이것을 통해 교회는 성도들이 평신도 목회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런일에 헌신하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2.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가 되었다고 생각 한다.
3. 나는 항상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고, 이런 목회는 나의 은사와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고 본다.
4. 아내: 이것은 나와 나의 남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남편: 나의 아내와 함께 목회하기 위해서이다.
5. 나는 이 목회에서 내가 받은 상담훈련이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6. 주님을 섬기고 나 자신이 신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이다.
7. 나는 헌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한다.
8. 나는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의 사랑을 나누는 평신도 목회자가 되고 싶다.
9.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다.
10. 나는 결코 안수받은 좋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평신도 목회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 같다.
11. 나는 소명을 느낀다. 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은사를 가졌다고 믿는다.
12. 칼리지 힐 장로교회는 안으로부터 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평신도 목회자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13.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목회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헌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14. 누구나 도움을 받아야 할 어떤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데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15.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 한가지씩을 주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16. 하나님은 나에게 참 좋은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뭔가 더 하고 싶다.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돕기를 원한다.

왜 사람들이 지원하는가?

말린 윌슨은 자신이 쓴 책, 「교회의 자원자들을 어떻게 동력화 할 것인가」에서, 왜 사람들이 자원자가 되려고

하는가에 대해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8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8년을 넘게 200여명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사역자들을 임명한 나의 경험으로 볼 때에, 윌슨이 자원자들의 자원 이유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은 평신도 목회자들에게도 그대로 사실이라고 나는 믿는다:

1. 그들은 자신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2.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효과가 있기를 원한다.
3.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든가 아니면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4. 그들은 어떤 '돕는'단체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한 회원으로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5. 그들은 스스로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6. 그들은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누기를 원한다.
7. 그들은 고독하지 않기를 원한다.
8. 그들은 지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모세야, 모세야!... 자,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뿔에서 모세를 주도적으로 부르셨다(출3:4을 보라), 모세는 사양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였다. 모세는 결국 항복하고 말했다. 결과는 이러 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목회로 부르신다. 성경에는 그 예들이 너무나 많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다 (삼상 3장), 사무엘은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계속 불렀다. 사무엘은 응답했다. 결과는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8-20).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도적으로 부르셨다.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강해서 그들은 즉시로 따라갔다. 결과는 이렇다: 그들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

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가진 확신은 하나님께서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전체 성도를 목회적으로 돌보기 위한 목회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충분히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비록 내가 이 책을 쓰는 지금에도 성도들을 돌볼 평신도 목회자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 목회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에 격려를 받고 있다. 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와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알게 되리라 믿는다.

팔짱을 끼고 있지 말라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까지는 '예'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기도 할 때까지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는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다가 가는 것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평신도 목회 차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는 팔짱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죄의식을 갖도록 부담을 주지도 않는다. 사람들을 선발할 때에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상대방을 실망시키기를 원치 않 아서이다. 그들은 어떤 죄의식을 느끼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접근 방법은 첫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다음

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지의 여부에 대해 주의하라고 부탁한다. 우리는 그들을 신병 모집하듯이 한다면
가 반드시 예라는 대답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것을 정직하게 주님께 맡기고, 그들
에게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 우리는 그들이 대답하도록 도와 줄 뿐이다. 우리는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응답이 없는 것은 예와 같은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명부를 만든다**든가 **모집한다**라는 말보다는 **부른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들의 부름은, 하
나님의 성령의 역사, 평신도 목회에 대한 그들의 관점, 그리고 우리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결정된 다고 본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에 의해 이 사역에 임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하든가 아니
면 효과적이 되지 못한다.

“소명”

우리 목회 그룹이 이 목회를 개발해 나갈 때 “소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부딪혔다. 만약에 “소명을 받은 사
람”이 목회를 해야 한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여야 한다. 나는 평신도들에게도 모세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으
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확신과 내가 이전에 안수받은 목사가 되었을 적에 가졌던 경험과 같은 강한 확신이 필요
하다고 제안했다. 이런 분명한 소명감이 없으면, 그들은 낙담하여 중간에 그만 두거나, 또는 힘없이 계속하거나, 효
과적이지 못한 사역을 계속 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목회그룹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작업해 나갈 때에 **소명**이란 말이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을 찾는 데에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회 그룹의 회원들은 자기들이나 또는 대부분의 직업적인 목 사들이
목회사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 게 되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
명**에 대해 이와 똑같은 이 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18명으로 구성된 아주 헌신적인 목회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
다. 우리는 **소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 질문을 했다: (1)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 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는가?” (2) “당신이 하고 있는 목회사역에 어 떻게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들 모두는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목회사역에 들어오게 된 것 은 사람들 숫
자 만큼이나 다양했다. 다음과 같은 반응들이었다:

1. 나는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2. 재직회에서 나를 지명했다.
3. 나는 이 일에 흥미를 느꼈다
4. 나는 이런 일을 늘 해왔다.
5. 나는 봉사하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처럼 봉사했다.

이런 이유들이 그들의 사역에 “소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님의 부름의 실체는 그저 생각하기 보다는 심사숙
고 할때에 더욱 분명해 진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난후에 소명을 확인하도록 그와같은 도움을 받는다면, “소명”을
확인하기가 더 쉽다.

무릇 그 마음(영)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에스라 성경 을 통해서 배운다(에스라 1:5).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의 마음을 -
심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조직에 의해서,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 움직여서 평신도 목회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목회활동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의 내 적인 마음상태를 움직
여서 평신도 목회자가 되도록 하시든지 한다는 것이 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 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기로 하였다.

나는 이런 문제와 여러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 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를 많이 했다. 이 목회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나는 과거에 이 목회를 개발할 때에 가졌던 좌절과 괴로움과 기쁨이 뒤섞인 경험을 했던 과거 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더 쉽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이 목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를 신실하게 수행하게 되면,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동시에 모든 신자들은 목회를 위해 혼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상단에 서정교하고 가르침 사람들은 살아 계시는 상생님께 민감하게 반응 다. 이 같은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에 등장하고 싶어했었다.

목회를 위한 다양한 은사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생각해볼 때에 목회를 위한 본질적인 은사는 **공홀**이다. 그림 공홀의 은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순수하게 공감하는 일과 민담히 여기는 능력이다. 또한 그것은 이런 느낌들을 돕는 관계로 변화시키고, 그것을 기꺼이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나는 어느 작은 그룹에서 목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들을 적어보라고 했다. 그들이 적은 것 중에는 '공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공홀의 은사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나는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다.
2. 나는 간호원이기에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이 편안하다.
3. 나는 사람들에게 의심보다는 축복을 주며, 그들에 관해 경솔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4. 나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
5. 나는 잘 참는다.
6. 나의 남편은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어떤 설문지(Modified Houts Questionnaire) 로 테스트를 했을 때 **공홀**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지난 35년 동안 이런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발견하고서 매우 기뻐했었다.

로마서 12:6-8, 고린도전서 12:4-11 그리고 28장, 베드로전서 4:8-11 에 있는 은사들은 목회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공홀은 효과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케네스 킹혼(Kenneth Kinghorn) 박사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발 견하도록 도와주는데 필요한 6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1. 너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로 개방하라.
2. 목회사역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당신의 열망을 검토하라.
3. 교회의 생활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요들을 밝 혀보라.
4. 봉사하고 목회하는 당신의 노력의 결과를 평가하라.
5.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6. 다른 신자들의 반응에 항상 귀를 기울이라.

사랑은 모든 은사를 통합하는 것이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 목록의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뒤에 나온다:

1.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롬 12:9)
2.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고전 13:1)
3.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벧전 4:8)

장래에 평신도 목회자가 될 사람은 모두 은사를 테스트 하라는 말은 아 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킹혼의 여섯 단계를 따 라서 자신이 직접 진단해볼 수도 있다. 테스트 없이도 사람들은 긍휼의 은사를 이해할 수 있고, 만일에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대개는 알 것이다.

우리의 계획

평신도 목회의 필요성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목회사역으로 부르실 수 도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1. 목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홍보책자를 항상 자료 진열대에 준비해 놓았다.
2. 목회에 관한 논문들을 교회월간지에 규칙적으로 게재했다.
3. 가끔 목회에 필요한 참고 서적들을 소개하였고, 강단에서 광고를 통해서 알려주곤 했다.
4. 목회그룹의 회원들은 주님께서 목회로 인도하시는 사람들을 "양 육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5.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가족 중에 좋은 평신 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헌신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보라고 부탁한다.
6. 연중 세 차례의 훈련 세미나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a. 후보나 월간소식지를 통해 세미나의 목적, 날짜, 장소들을 게시한다.
 - b. 정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평신도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라고 요청한다. 목회그룹의 회원을 통해서 전화하여 혹시 의문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게 하고, 그들이 세미나 등록을 하는데 격려하도록 한다.
 - c. 등록받는 책상은 세미나 3주전 주일 아침에 미리 준비한다. 거기에는 평신도 목회자나 목회그룹 회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가 편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안내하여 등록하도록 유도한다.
 - d. 가끔 우리 교회의 협동목사인 론 랜드(Ron Rnad) 박사는 자 기가 기도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이 목회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우리 평신도 목회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거기에 같이 참석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목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말해 준다. 그들은 또한 질문에 대해 주기도 한다. 그때에 그들은 평신도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 기도해주기를 원한다. 2주 후에 론은 전화해서 주 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본다. 주님의 스폰 인도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세미나에 등록한다.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실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목회에 계속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회중을 목회하도록 목회적 은사 를 주시고, 이 목회에 필요한 충분한 사람들을 불러 주시므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격려하신다.

"소명"을 확인하는 것

그러면 목회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 들여야 하는가? 평신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어야 하는가? 물론 이 두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우리는 지원자의 인격적인, 영적인, 또 목회적인 자질들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하에서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절차가 있다: (1)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선택했다(출 18:21); (2) 12사도는 집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을 선택했다(행 6:3). 그리고 (3) 바울은 디도에 대해 그 교회의 지도자로 장로들을 세우고 결정할 때에 고려해야 될 자질들을 많이 언급했다(딤후 1:5-9).

이 목회에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목회그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원자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자질에 기초하여 그들의 소명을 확인하고 생각해 보라고 하였다.

1.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2.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합당한 이유들(그 이유를 지원서에 기록하도록 한다).
3. 목회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표시
4. 훈련 세미나로 잘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5. 교회내 다른 봉사나 책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가끔 우리는 사람들을 거절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다른 사역이 무엇인지 찾도록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역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회 즉 기도하고, 돌보고 영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사역을 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결코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회경험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가 이런 목회를 조직하고 그들을 목회자라고 인정해 주기 오래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여기서 평신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다섯 가지 단계를 제시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훈련 세미나에 참석하라.
2. 지원서를 작성하라.
3. 받아들이라(소명을 확인한 후에)
4. 장로들의 안수를 받고 임명을 받으라.
5. 목회할 수 있는 가족을 할당받으라.

평신도로서 목회를 하려면 이 모든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가? 장로나 집사와 같이 교회의 공식 기관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은 교회의 회중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평신도 목회자가 될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 과정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장로나 집사중의 어떤 사람은 평신도 목회자가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목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제직들은 목회보다는, 행정이나 가르침과 같은 사역이나 역할을 위해 은사를 받았다. 목회를 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은사를 적재적소에 맞게 목회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령께로부터 은사를 받고 부름 받아 목회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 직분의 기간이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역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집사이든지 장로이든지 또는 아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목회사역을 계속하여야 한다. 평신도 목회자들 중에 몇 사람은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8년간 목회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제직들도 준비되어서 그들도 평신도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두 가지를 권고한다: (1) 모든 제직들에게 목회자가 되도록 강요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역할에 맞는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 그들이 재직 기간이 끝난 후에 목회자로서의 계속 섬기기를 원하면 그들을 훈련시키라, 뉴저지주의 리지우드 에 있는 웨스트사이드 장로교회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만약 작은 교회에서 평신도 목회를 실시할 경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교회는 그들 나름대로의 필요를 확인하고, 교인들의 자원을 조사해서, 목회를 위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의 조직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보 상

목회에는 축복이 있다. 내가 평신도 목회 프로젝트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지도교수 중 한 분이 물었다. "멜, 평신도 목회자를 위해서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슨 불신자 같은 질문인가!"하는 것이었다. "누가 그것을 통해 뭔가를 얻을려고 할 사 같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주는 목회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당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오?"라고 되물었다.

평신도목회자는 그것으로부터 뭔가 얻을 필요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나는 이 새로운 도전에 관심을 가졌고, 평신도 목회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1. 영적 성장을 가속화 시켜준다. 그것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2. 새로운 우정과 깊은 교제의 즐거움이 있다. 신앙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른 것으로서는 도저히 대신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삶의 유대가 이루어진다.
3. 자신의 은사가 의미있는 목회에 유용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적인 성취감을 갖게 된다.
4. 돌보는 사람은 돌보는 사역 가운데에서 돌봄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39)고 하셨다. 톰 해리스(Tom Harris)는 "생수의 강은 양 방향으로 흐른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의 디어필드에 있는 트리 니티 신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콜린스(Gary Collins) 박사는 이 '보상'을 "돕는 자 치료원리"(Helper-Therapy Principle)라고 이름 붙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돌볼 때에 돌봐주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에 우리는 자주 내가 유용하게 쓰임받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만족감과 자존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어떤 거리를 두고 문제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주었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가치와 개인적인 능력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5. 미래의 보상 -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 5:4).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약속이다.

다음 장에서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시켜 왔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Notes

1. Marlene Wilson, How to mobilize Church Volunteers (Minneapolis, MN:Augsburg Publishing House, 1983), p.

87.

2. "영적 은사와 교회성장"에 대한 설문지(Modified Houts Questionnaire)는 찰스 E. 풀러 연구소(Charles E. Fuller Institute)에서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다. P.O. Box 989, Pasadena, CA 91102,

3. James L. Garlow, Partners in Ministry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1981), p. 94.

4. Gary R. Collins, The Joy of Caring (Waco, TX: Word Books, 1980), p. 16.

제 7 장

평신도를 목회자로 훈련하라

"당신은 우리를 잘 가르쳤 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는 말은 평신도 그룹을 묘 사하는 시사 만화에 나오는 한 문장인데, 아마 교회의 제직들이 목사를 깜 짝 놀라게 하려고 만든 것 같다. 그러나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은 결코 일 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실직의 염려없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준비시 켤 수 있다.

목회를 위해 스스로 헌신한 분들의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은 필수 적이다. 그들은 준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 당신이 준비시키는 일을 하 도록 부르신다. 적당한 준비는 그들이 무엇인가 하도록 소명을 받았다는 느낌에 확 신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목회를 위한 그들의 잠재능력을 극대화 시켜주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준비된 평신도는 아래에서 보여 주듯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중심에서 있 다.

세 명의 준비시키는 자가 있다:

1. 목사들과 교사들.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하여금 목회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엡 4:11, 12).
2.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행 1:8), 평신도나 직업적인 목사에게 뭔가 좋은 일 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의 노력과 기술을 효과 적으로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3.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딤후 3:16, 17), 목회자는 반드시 성경에 따라 살아야 하며, 성경에서 배운 대로 성장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성장을 위해 성경을 사용 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12 주제

우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세미나를 개최하여서 15시간 동안 12 주제를 가지고 평신도 목회자를 준비시킨다. 우리 는 매년 세 번의 기회를 가진다. 우리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 5주제를 살펴보았다:

- 주제 1. 평신도 목회의 개념(제1장)
- 주제 2. 평신도 목회의 성경적 기초(제2장)
- 주제 3. 누구에게 돌봄이 필요한가?(제3장)
- 주제 4. 평신도 목회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제5장)
- 주제 5. 목회감독(제5장)

개 교회에서 성도들을 구비시킬 때 메뉴얼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다음 과 같은 주제와 순서로 가르치면 될 것이 다.

주제 6- 전문적이 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구비시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전문적 인 일을 위해 비전문적인 사람들을 준비시

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전문적이 되는 것과 하나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구별하려고 한다.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전문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에 수준 높게 사명을 실행하고 수준 높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신도 목회자는 이런 점에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전문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1. 너 자신이 되라(Be yourself) - 어느 누구를, 특히 직업적인 목표를 모방하려고 하지 말라, 모방이라는 것은 당신이 아닌 어느누군가 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언어, 자신의 인격으로 목회하라.
2. 인간이 되라(Be human) - 어떤 직업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냉정하거나 엄격하거나 또는 비인간적이 되지 말라, 순수하게 사람들을 돌보라, 자신의 자발성을 억누르지 말라.
3. 맡은 일을 감당하라 - 잡담을 할 때가 있으나 해야 할 일을 잊어 서는 안된다. 당신이 거기에 왜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위기를 다루라: 용기를 주라: 문제가 해결되는 질문을 하라: 즐거워 하라: 신앙과 삶에 본이 되라: 기도하라.
4.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 당신은 완전한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할 수 있고, 갖고 있는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계속 배울 수 있고, 배우는 기회를 통하여 목회기술을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5. 당신의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라 주님과 교회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부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목회하는데 사용하라, 사람들이 당신의 품행을 볼 때에 신뢰심을 가져야 한다. 요 15:16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 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6.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당신은 하겠다고 말한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당신이 약속한 것을 실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왜 못하는지 이유를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7. 위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주라 위급한 경우에 언제나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은 의사의 경우이다. 왜냐하면 의사는 밤 낮 환자에게 헌신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섬기는 성도들에게 헌신된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들에게 언제나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이다.
8. 자신 있게 행동하라 - 여러분은 언제나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하인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교묘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예'와 '아니오'를 적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9.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문이나 도움을 구하라 -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당신이 섬기는 성도를 전문가에게 연결해 주거나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 당신 보다 더 유능하다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의뢰하라.
10. 자신을 용서하라 - 당신은 실수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실수의 원인을 조사하고, 미래에 그와 유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하여 그것들로부터 배우라,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라. "인간은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평신도목회자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해 줄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의 나의 초기 목회를 되돌아 볼 때, 평신도들은 나의 실수와 부족을 분명히 받아 주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 나는 전문적인 목사로서 목회를 해나가면 해 나갈수록 평신도들이 목사들에 대해서 더 참고, 견디고, 용납한다는 것에 매우 놀란다. 그러나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용납한다는 것은 보충훈련(equipping)을 통해서 자신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도 그것을 귀찮게 생각해서 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연약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다."

주제 7 - '어떤 사람이 되느냐' (Being)하는 것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Doing)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구비시킬 필요가 있다: **인격(Being)**과 **사역(Doing)**이다. 'Being'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고, 'Doing'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활동과 과업 지향적인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 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 시간과 정 성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가 쉽지 않다.

나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결혼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 (right person)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는 말로 언 제나 결론을 내린다. 결혼에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맞는 말인가?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 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목회를 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 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는 내 생애에 있어서 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기 보다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 옴소서, 인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기 보다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동정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기 보다는 동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기 보다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고하기 보다는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원리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 7:17, 18). 만약에 내가 좋은 나무로 자라는 데 적절한 관심을 둔다면, 좋 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의지로 분투노력 하여 무엇을 실행하려고 하 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사람, 돌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것과 돌보는 것은 삶의 한 방식이 되어야 하 는 것이지 때때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기능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 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완전한 모델

예수님은 가르침의 본보기였다. 그는 종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는 단순히 종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요 13:12-16).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는 단순히 어떤 경우에만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요 15:34, 35). 그는 단지 '친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 려야 한다'고 가르치기만 하지 않았고(요 15:13, 그는 자신을 주는 사람이 있기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가르침을 친히 본으로 보여 주셨다. 예수님 의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이셨는 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 들 바로 그 분이시기 때문이다. 목회자인 우리도 똑같은 원리여야 하는데, 우리가 행하 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그 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간다(롬 8:29).

바울은 이 원리를 가르쳤다. "되다"라는 단어는 디모데 전서 3:2-13에 8번이나 나타나며, 다른 데서도 15번 정도 나타난다. 지도자는 지도자(목 사, 집사 등)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도자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공식사역 팀은 어떤 팀을 재조직하여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 팀 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사 람들이 **되는** 것에 헌신해 야 한다"는 교훈에 일치하여 일을 하려고 애썼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 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하였다(딤후

4:12을 보라). 그들은 단지 디모 데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 인가를 봄으로써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목회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귀로 무엇을 듣는다는 것 보다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목회자인 우리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 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 역시 장로들에게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고 할 때에 이런 원칙을 가르쳤다(벧전 5:3). 그들의 양들은 경건과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되었다. 그들은 교사들이 행하는 것을 보므로, 즉 본을 보므로 가장 잘 인도받을 수 있다.

목회자는 따뜻하고, 민감하고, 이해력이 있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게리 콜린스 (Gary Collins) 박사는 그의 책 크리스찬 상담에서 상담자는 곧 목회자라고 말했다: 상담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자 하는 인격이 되었을 때에 그의 기술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인격 은 바로 따뜻함과 민감함과 이해력과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기꺼이 만나려고 하는 성품이다.

또 다른 심리학자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말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할려면 치료자는 진실하고, 인간적이어야 하고 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한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는 치유하는 사람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으로서 그 기술을 사용 하느냐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 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문적인 상담가의 영향력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 말이 강조하는 것은 목회자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신자로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다. 목회는 바로 성실한 사람을 요청한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다면, 다른 사람도 당신에 대해서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정말로** 그들을 위하고, **진실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성실하게** 예수님과 그들에게 헌신한다면, 목회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진심을 정말로** 알게 될 것이다.

신실함은 목회적인 돌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성품이다. 알라스타 캠벨(Alastair V. Campbell)은 신실함이란 것이 목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5가지의 중요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편의주의나 이해타산이나 시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종의 내적인 강인함을 말한다.
3. 신실함이란 어떤 목적에 대해 일관성을 견지하는 태도와 철저하게 충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신실함은 어떠한 희생이 예상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내적 진리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5. 신실함이란 내적으로는 꾸준하고, 외적으로는 정직한 것으로서 이러한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인격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신도이든 목사이든 목회를 할 때에 신실함이 없이는 효과적일 수 없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때에 우리들에게 신실할 것을 요청하신다. 그들이 관심하는 바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마 20:25),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하는 것이었다(26절), 제자들 중의 두 사람은 크게 되는 원칙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충고와 교훈은 목회자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명을 완 성하는 길은 안수나 파송에 의한 직분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신실 한 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도록 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신실함 -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순수함, 돌봄의 진실성, 그리고 우리의 안과 밖의 일치성 - 은 목회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효과적인 목회를 만들어 준다.** 평신도 목회자들이 효과적인 목회를 간절히 원한다면 신실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왜냐 하면 이것이 없이는 효과적인 목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목회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면 보다 많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뭔가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실망하게 되어 그만두거나, 단지 의무감 때문에 겨우 매달려 있는 꼴이 될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효과적인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열쇠이다. 좋은 인간관계의 열쇠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다.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신실함으로는 구비시키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술로만 구비시키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효과적이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목회를 하도록 구비시키는 것이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유명한 치료학자인 칼 로저스(Carl Rogers)는 세속적인 상담에서도 단지 어떤 지적인 과정이나 혹은 훈련 과정이라는 수단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지식과 훈련 과 가르친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접근방식으로 부족하다. 칼 로저스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 변화한다는 것을 알았다. 상담에 있어서 칼 로저스가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는 **효과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제 8- 개인의 영적 건강을 위한 교훈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것이 잘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엡 5:1).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닮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선결조건이 된다.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어느날 아침에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처럼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6:30부터 7:30까지 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어느날 아침 나는 시편 103:8을 묵상하면서 읽고 있었다. "여호와 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즉 자비로움과 은혜로움과 인내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와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된 것이다. 만약에 모든 목회자가, 즉 그가 평신도이든 목사이든 간에, 자비와 은혜와 인내와 사랑에 있어서 좀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그 목회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거의 가까워 질 것이다. 훈련 세미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사람들에게 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 하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리적 순수함이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다음의 4단계를 따르면 유익할 것이다:

1. 반복(Repetition)
2. 집중(Concentration)
3. 이해(Comprehension)
4. 묵상(Reflection)

둘째로 기도제목을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것은 시장을 보러 갈 때 상품목록을 적는 것과 같다. 그 중에 한가지 기도제 목은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당신을 닮게 하옵소서, 즉 나에게 잘못된 는 사람에게 대해 자비롭게 하시고, 다만 몇 사람에게 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참 고, 또한 날마다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주님, 오늘도 인내하 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오늘밤에 이웃집의 개가 짖어서 그 집에 찾아가 말할 때에 화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훈련세미나에서 새로운 평신도 목회자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칠 때에 그들에게 3분의 시간을 주고 꼭 개인적으로 기도할 구체적인 제목 5가지를 적도록 한다. 그 다음에 2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도록 한다.

우리의 기도를 구체화 시키고자 할 때에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게 하거나 종이 위에 그리도록 하는 것은 수천 마디의 말 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기도제목을 구체화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기도제목을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기도응답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성도가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기 딸과 이런 말로 이야기 하는 것을 상상하도록 요청하였다: "미첼,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간에 얘기가 없었구나.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며 얘기 좀 하는게 어떨겠니?"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그의 상상력을 사용하니깐 기도가 너무나 구체적이 되어 신난다고 하였다. 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상상력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 도록 권고하신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과 부가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관은 말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눅 18:1-7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원 하는 것인지 혹은 얼마나 필요하여 요청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데 사용하 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목회해야 하는데 목 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제리 컬크 (Jerry Kirk) 박사는 우리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 나는 대부분의 목회가 효과가 없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등의 원인은 대부분 이런 교훈들을 받아들 이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리차드 포스터의 다음 말은 목회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심사 숙고해 볼만한 말이다. "우리를 인간 영혼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훈련이다 기도 한다는 것은 변화된다 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 장 중요한 수단이다". 평신도 목회자들이 기도하도록 구비되지 않고 하 나님과 함께 매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대 부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으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더 자주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둘루스에 있는 10살 난 손녀의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가 그 아이와 그 아이의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을 때에 그 애는 뜨거운 초코렛 한컵을 가지고 내게 왔다. 컵 바깥 부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나는 귀여운 애예요." 그 애는 내게서 조금 떨어져 있었었는데, 나는 그 애가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컵을 살짝 돌렸다. 아무 런 말이 없었다. 어떤 행동도 없었다.

결국 내가 그 글을 가리키며, "트레이시, 이 글 보이니?" "예, 저 읽었 어요." 그 애는 곧 바로 독특한 제스처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에 나는 그 애의 갈색 눈을 깊이 바라보면서, "나는 네가 그 글을 읽었을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네가 그것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 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관해서 말할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든지도 모른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권고이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목회한다. 당신은 인간이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님이시다. 성령은 믿는 자와 함께 계시고 믿는 자 안에 계신다(요 14:16, 17). 하나님의 양떼를 순수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돌보기를 원하는 목회 자는 이미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해 져야 한다(롬 8:9-11, 엡 5:18).

어거스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목사가 정원사인 한 성도를 방문했다.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한 목사는 "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했다.

그때 정원사는 공손하게 그러나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지요"라고 대답했다. 만약에 목회사역이 제대로 될려면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 일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방문하고, 만나고, 듣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신 일이다. 오 순절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능력을 주셨다. 예수님의 영(Spirit)은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Spirit)이라고 믿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령은 그 들로부터 영원히 나오는 것이다(요 15:26). 첫 번째 제자들에게 거주하여 사신 똑같은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들어오셔서 똑같이 사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 덧붙여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그럴려면 성령에 대해 바울과 누가의 글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고, 어떻게 서로가 보완해 주는지를 알아야 한다. 바울은 우리가 회심할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내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목회사역을 위해 구비시키는 것은 성령의 단회적 사역이다(롬 8:9-11, 고전 12:4-11)고 주장한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인 전도사역과 목회사역을 위해 힘을 부어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의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전자는 내적이고 후자는 외적이다. 그것 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성령의 능력은 곧 목회의 능력이다.

에베소서 5:18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명령형이다. 성령론을 안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 지는 것은 아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형이며, 우리가 성령에 대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해 진다는 것은 능동형이다. 따라서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해 질려면 의도적이 되어야 한다. 한번은 아주 내성적이고 수줍은 한 청년에게 어떻게 그 생생한 방문 보고를 할 수 있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그는, "나는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기를 기도 했고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라고 대답했다. 그건 정말 의도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에, 그것이 전화든지, 편지든지, 또 방문이든지,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성령이시여, 이 목회사역을 위해서 이 순간에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나는 나의 사랑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 이상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나이다. 나를 채우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행하는 훈련 세미나에서는 이 주제를 위해서 대학생 선교회에 서 나오는 교재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를 사용한다. 끝마칠 때에는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서 마친다. 그것은 훈련 세미나 경험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순간 중에 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의 훈련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훈련으로 옮긴다. 목회의 심장은 PACE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제를 생각해 보자.

주제 9- 방문 전략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에게 임명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첫 방문을 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먼저 가족들에게 평신도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편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낸다. 우리는 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한다. 편지에는 그들이 평신도 목회자들로부터 첫 방문을 받을 것이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의 글과 함께 담임목사님의 서명을 담는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방문시간을 약속하기 위한 전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라.
2. 방문하기 전에 기도하라
3. 자신을 소개하라 - 문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방문 목적 을 설명하라.
4. 가벼운 이야기(small talk), 즉 사진, 화초, 애완동물, 날씨, 직업, 등의 주제로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라
5. 가족, 지역사회, 교회 등에 대해서 물어보라, 일종의 청감있는 이 야기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간다.
6. 교회소식이나 신앙동 공동 관심사에 대해 얘기한다.
7. 평신도 목회 즉 그들이 PACE를 이해하도록 평신도 목회에 대하 여 설명한다. 그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분 별히 하도록 하라. 그들 에게 기도나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라, 그들에게 평신도 목회에 대한 설명이 있는 브로사를 주라,
8. 떠나기 전에 기도하라,
8. 떠날 때에는 은혜스럽게 떠나라, 너무 오래 머물지 말아라, 당신 을 영접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 라, 다음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하라
10.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반감하라 - 그들의 관심 필요가 영작상태 등등에 대해서
11. 방문일지 기록 - 이것은 당신의 다음 방문들을 잘 연결해주고, 나아가 관계를 수립하고, 그 가족의 신앙 을 세워 주는 데에 도움 이 된다. 자녀의 이름과 애완동물의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기념 일과 생일과 같은 의미있는 날을 기록해야 한다. 직장이나 학교 의 위치는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다. 취미나 관 심 분야에 대한 기록도 도움이 된다. 다음에 만날 시간과 장소를 메모해 놓으라.
12. 첫 방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

"여보세요, 저는 데이빗 쇼라고 하는데요, 당신의 새로운 평신도 목회 자입니다. 어느날 저녁에 한번 방문할까 하고 전화드리는 데요." 데이빗은 첫 방문을 위해 전화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우리는 첫 방문의 전체 과정 즉 전화를 하는데에서 부터 보고서를 작성 하는 것 까지에 대해 역할극의 필요성을 알았다. 이것은 세미나 그룹을 둘 로 나누어 진행한다. 각각은 방문을 실시해보는 역할이다. 이 역할극은 세미나에 서 퍽 흥미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첫 방문 시간이 다가오면 그것은 꽤 도움이 된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다.

첫 방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방문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전반적인 목회적 관계를 위한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집을 방문하면 그것 은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카드나 편지나 전화나 가게나 교회에서 지나다가 우연 히 만나는 그런 류의 모든 접촉을 쉽게 해 주며,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가능하게 해 준다.

어떤 것을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린다. 이 목회를 시작한지 5년 후 에야 첫 방문시에 필요한 것을 추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경험있는 평신도목회자가 새로 헌신한 평신도 목회자를 정기적 방문에 함께 데리고 가도 록 요청 한다. 이것은 새 평신도 목회자가 첫 방문을 하기 이전에 시행되어 야 한다. 이 실습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경험있는 평신도 목회자에게는 재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넬리 프렛(Nellie Pratt)이 작성한 첫 방문 보고서를 읽어 보면 그녀의 마음을 읽는 것 같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 람들의 삶에 접촉하는 것으로, 그녀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1. 즐거운 방문 경험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 심장 수술을 끝 내고 집에 막 돌아온 이후 6월경에 전

화했다. 그녀는 최근에 손목 이 부러져서 고생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방문객을 맞을 준비 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많이 나았고, 그녀의 손목도 많이 좋아졌다. 나는 카드 한 장을 써서 보냈기에 그녀는 내 전화번호 를 알고 있었다. 우리는 만나서 즐거웠고, 좋은 얘기들을 나누었다.

2. 가장 즐거운 방문이었다. 존스 부인은 평신도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했었으나 아파서, 갈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의 사로 근무하던 병원에 기독교 지원 그룹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기도를 통해서 지원함으로 그 일이 성공 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 모두 방문을 즐거워했던 것 같다. 그녀는 전에 평신도 목회 자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언제든지 그녀의 사무 실에 들르라고 했다. 나는 전화하고 방문할 것이다. 나는 그녀가 교회활동을 그만 두어서 염려되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 할 것이다.

4.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졌다. 그 여자는 전에 평신도 목회 자, 코흐(Koch)씨를 모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 었다. 그녀는 너무 바쁜 사람이지만 늘 유쾌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늘 화요일 저녁 모임을 통해서 수년 동안 그녀를 알아왔 다. 그녀는 나에게 꽤 감명적인 사람이다. 나는 자주 전화 하고 방 문하고 또 그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5. 나는 이 여자를 방문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전화에서 그녀는 매우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른 교회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내 전화번호를 갖고 있고(내가 생각하기로), 필요하면 내 게 전화한다고 했는데 전화해 주지 않았다. 내가 전화했지만 그 녀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내가 7월 10일에 전화했을 때 그 녀는 아주머니를 데리고 해밀턴 병원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아주 머니(정맥염을 앓음)를 병원에 데려 다준 후 윌슨 부인과 딸은 두 주간 밀틀레(Myrtle) 해변가에 갔다가, 그 후에 나와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친 절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했고, 내 이름을 친근하 게 불러 주었다. 혹시 그녀를 못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집에 갈 것이고, 만약에 그녀가 집에 없다면 책자와 카드를 문 앞에 두고 올 것이다.

6. 나는 그들과 세 번 얘기했다. 그들은 꽤히 응했지만 친해지기는 쉽지 않았다. 로빈슨씨는 씨애틀에 있는 데 그의 아내는 7월 11일 에 그와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7월 22일경 돌아올 예정인데 돌아 온 후 곧 바로 나를 만나기로 했다.

7. 나는 약속시간(저녁 7:30)에 갔다. 그러나 아무도 집에 없었다. 나는 좀 기다리다가 카드와 책자를 남겨두고 왔다. 스미스 부인은 9시에 내게 전화했다. 그녀는 집에 늦게 들어 왔다. 우리는 다음 에 만날 약속을 할 것이다.

주제10- 목회자의 권위

만약에 평신도들이 순수한 목회를 하려면, 그들에게 목회할 수 있는 권 위가 주어져야한다. 주제 6- "전문가가 되는 것에서 간단히 설명했 듯이, 평신도 목회자는 자신의 권한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지 부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서술하는 것이 좋겠다.

평신도 목회자의 역할은, 그들이 소명을 확인하고 훈련을 받아 임명되 었기 때문에 임명된 직분이다. 히브리서 13:7, 17절을 보면, 평신도 목회 자의 가족(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들이 회계할 자들인 것처럼 저들의 영혼을 돌보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똑같은 성경말 씬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닮아야 한다고 이해한다. 그것이 바로 권위이다!

여러분의 주님과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목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위를 주지 않고, 이런 두려운 목회적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권위를 주셨다: "내가 너를 선 택했고 지명했다(요 15:6)". 여기 '지명했다(appointed)' 라는 말은 흠정 역 성경(KJV)에서는 아주 강한 표현인 '성직자로 임명했다(ordained)'라고 번역했다. 당신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 다(마 16:19)고 했다. 앨버트 반즈(Albert Barnes)는 그의 신약주석 (Notes on the N.T.)에서, 열쇠를 가진 사람은 접근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고, 집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열쇠는 감독의 상징이며, 능력과 권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여러분의 주님,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목회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둘째로 여러분의 교회가 권위를 주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여러 분의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평신도가 교회의 성도들을 목회하도록 준비되고 파송된다면 교회의 공식기관(제작회 또는 당회)은 당신에게 권위를 주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파송을 받을 때 여러분 에게 인수하는 장로들이 허락해 주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양떼 를 돌보라고 하는 신성한 책임을 맡겼다.

두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첫째, 권위의 본질은 무엇인가?

1. 그것은 봉사이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막 9:33-35).
2. 존경받을 일이지, 멸시당해서는 안된다(롬 12:3).
3. 본이 되는 것이지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벧전 5:3).
4. 그것은 동등한 것이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다(롬 12:10).
5. 상호 복종하는 것이지, 강압적인 것이 아니다(엡 5:21.,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은사를 천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은사들이 능력있게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은 자신이 목회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즉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인도하고, 교훈하고, 도전하고, 인정해 주고, 격려하고, 강하게 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존경을 받을 권리를 준다.

목회 할 권한을 **얻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비록 그 권한이 주님과 교회로부터 주어졌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적당하게 그리고 올바른 정신으로 사용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

두번째 질문: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방금 말한 그러한 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권 위는 당신을 진실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울 것이다. 그 권위는 그것 이 당신에게 주어진 목회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넓은 사역을 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 을 수 있다: "좋은 목자가 되려고 할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마가복음 9:35에 대한 저자의 의역)"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당신을 그 위치에 있게 해준 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신은 교회와 주님에 대해 책임이 있다. 평신도 목회 자로서 당신은 이런 권위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계산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용하여야 한다. 당신에게 인수하는 사람들과 당신을 목회한 이들에 의해 인정된다 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가?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계산하는 날에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 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마 25:23)"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가?

마지막으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힘의 초점에 달려 있다. 피터 와그너(Peter Wagner)가 전문적인 목회자에 대해 언급한 것은 평신도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된다:

목사가 그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으면서 자신도 목자 밑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권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에 목사가 그 권위의 힘이 자기 인격 안에 있다고 제한할 때 그는 권위주의자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지배권과 리더십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여러분과 나는 종이다.

주제 11-평신도 목회자는 듣기를 잘한다

나이든 한 지혜로운 올빼미가
참나무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보면 볼수록
더 적게 말을 했다.
그가 말을 적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들었다.
왜 우리는 그와 같이
지혜로운 새가 되지 못할까?

-작자 미상

듣는 기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발하기를 원하시는 것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야고보서 1: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충고 한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느낌과 그들이 말하는 이면에 상황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자신의 랍비를 방문하여 감정을 참지 못하며, "선생님,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친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다. 제자의 말에 감동 이 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랍비는 "내 아들이여, 내게 말하라.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어디서 마음이 상하였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아는가?" 너무나 당황한 젊은이는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이 어디에서 마음이 상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 대해 랍비는 대답하기를, "너는 내가 어디서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며,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마음이 상한 랍비로부터 젊은이가 배워야 할 것은, 상대방의 느낌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이 말한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이면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훈련 세미나 시간에 이런 경청기술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가지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원칙들은 소개한다. '경청'은 복잡한 기술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가능하면 평신도 목회자들이 경청에 대해 추가훈련을 받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으로 기본 원리들을 소개한다.

1. 우리가 경청하고 있는 동안 들은 것을 이해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노림들과 일한 내용이 무엇이고, 말하지 않는 이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는 듣고 있는 동안에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 배우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사 같은 때 이것을 나에게 말할까? 그리고 왜 그것을 지금 나에게 말할까?"
3. 우리는 듣고 있는 동안에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1분 동안에 약 150개 정도의 단어로 얘기할 수 있지만 듣는 것은 약 500내지 600단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시간'(lag time) 즉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다.
4. 잘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말해야 하거나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상대방을 격려해 주는 것이고, 경청의 태도는 그들과 그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말하려고 한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줄 수가 있다.

5.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사실 다른 아닌 평신도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언 어와 비언어와 느낌들에 대해 공감과 이해와 순수함으로 동조해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듣는 방법

기본적으로 두 가지 듣는 방법이 있다. 첫 째는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스처로 관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동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말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내적으로 몸부림치는 고통과 의심과 두려움과 기쁨과 흥분과 감사 등에 대해 누군가 들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들어주지 않으면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의 깊은 욕구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을 알 때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온통 집중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애로운 행동이다.

두 번째 방법은 능동적으로 듣는 것이다. 능동적인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내가 어디에선가 읽고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점을 분명히 해 준다. "나는, 당신이 내가 말한 것에 대해 당신이 이해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들은 것이 내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깨달았 는지는 의아스럽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이다.

충고를 한다거나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 대신에 능동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나타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반사경청(reflective listening) 또는 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라고 한다. 만일에 누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하는 경우에, 듣는 기술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듣는 사람이 어떤 방안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경청의 힘이다. 말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점을 찾 았다고 하는 만족감을 가질 것이다. 문제 해결점은 이따금 그 사람 안에 있다. 능동적인 경청은 그것을 표면화 시켜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능동적인 경청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가족: 평신도목회자가 섬기는 성도, 평목: 평신도 목회자)

가족: 나는 우리 목사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목: 그는 당신의 질문에 대해 뭔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 나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자기와 같이 심방가자과 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평목: 당신은 그와 함께 가정 방문을 하곤 했습니까?

가족: 물론 그랬습니다. 거의 정기적으로 매주 또는 두 주에 한 번씩 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환자에게 성찬식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평목: 당신은 그 일을 즐겨 하셨군요.

가족: 나는 뭔가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평목: 당신은 이제 그가 당신과 함께 심방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느끼는군요.

가족: 나는 그가 나와 함께 심방 가는 것을 그가 원치 않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는 뭔가 나 자신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목: 당신은 왜 그가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가족: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가 직접 나서서 그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목: 당신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가족: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그에게 전화해서 좀 만나자고 말하겠습니다.

주제 12- 신뢰성 유지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어"라 고리(Lee)는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믿을 수 있어. 나는 비밀을 지켜 줘야"라고 마크(Mark)는 약속했다.

비밀을 지켜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목회자로서 책임의 일부이고 좋은 돕는 관계를 맺는 초석 중의 하나이다. 이 기초 위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대화가 가능하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당신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신뢰를 주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믿는다. 당신은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정중하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목회관계에 있어서 신뢰성이 깨어지면 이 신뢰의 특별한 은사는 분명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한 성도가 사적으로 이야기 했던 것에 대해 당신이 비밀을 지켜 줄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믿지 못할 때에, 그 사람과의 돕는 관계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사람이 일단 신뢰성을 상실하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더욱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성이 무너지면, 그 동안 신뢰관계에 있던 특별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초래하여 결국 어느 누구하고도 사적인 감정과 문제들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상황이나, 자신들에 대한 매우 사적인 일을 당신과 나누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사적인 정보가 어떻게든 공개 되면, 그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 부끄러워 하고, 또한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들의 명성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우리가 베푸는 목회적 돌봄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두가지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목회관계에서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public knowledge)와 비밀을 지켜줘야 할 정보 (private knowledge)의 차이는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공개적인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다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얘기를 출산했다든가 건강이 회복되었다든가 사망이나 사고 등은 공적인 정보이다.

사적 정보(private knowledge)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이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치 않은 임신, 가정불화, 정신병원의 입원, 어떤 이상한 종류의 수술, 어떤 신체적인 문제, 이혼, 약물사용, 또는 알콜 중독 등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적인 것인지 공적인 것인지 잘 분간되지 않는 애매한 경우(gray areas)가 있다. 어떤 때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도도 부탁하고 동정심이나 관심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가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미심쩍으면, 그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이전에 당사자와 상의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려 병원에 있는 사람인 경우, 공적으로 알리기를 원할 수도, 또 원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그 것을 남에게 알리기 전에 본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때는 남에게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허락을 해준 사람이, 그것이 자신이나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를 주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뢰에 관한 부분에서 가십(gossip)과 중상모략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의에 따르면, 가십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상모략은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정보를 나누는 것은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중상모략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신뢰성을 유지한다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어서 꼬치 꼬치 물어 올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가끔 우리는 어떤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말해줄까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만큼 자아 훈련이 필요하고, 신뢰성의 원칙을 유지하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

계속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목회사역을 하는 사람은 신뢰에 관한 주제든지 아니면 다른 주제든지 간에 계속해서 자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함께 하면서 한가지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평신도 목회자들을 임명한 후에도 그들을 계속 준비시켜야 하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2년 전에 이런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도전하였다.

Level 1 - 기초준비 과정으로 15시간

Level 2 - 경청과정, 대인관계의 기술 그리고 성경공부

Level 3 - 상담과 전도에 대한 훈련, 성경공부

이런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책을 한권씩 엄선하여 정기적으로 구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작은 그룹으로 모아서 2시간 정도 개론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책을 택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준 대표적인 두 권의 책은 게리 콜린스의 '돌봄의 즐거움과 쥬아니타 르안(Juanita Ryan)의 「**옆에 있는 것(Standing by)**」이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매년 연장 교육을 받는다. 많은 교회에서는 이 중요성을 깨닫고 목사들이 이런 방법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바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은사와 시간과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은 평신도목회자들을 위해 목회적인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갈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질문을 위한 시간

질문들은 훈련과정에서 자신을 경험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세미나 스케 줄에 질문과 대답할 시간들을 넣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1. 우리가 목회할 가족들과 적정인원을 선택할 수 있는가?
2. 평신도 목회자로 헌신하는 것을 다음 기회에 결정할 수 있는가?

3. 평신도 목회자들로서 도움이 더 되도록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은 없는가?
4. 우리는 우리가 섬길 가족을 어떻게 할당받는가?
5. 특별히 지원해 주는 조직이 있는가?
6. 만약 어떤 성도에게 특별한 사역이 더 필요해서 평신도 목회자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그의 사역을 조정해 줄 수 있는가?
7. 성도를 지역에 따라 할당하는가?
8. 남편과 아내는 함께 목회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따로 사역을 해야 하는가?
9. 부부가 함께 평신도 목회자로 섬기고 함께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가질 때에 한쪽은 방문에 대해 다른 쪽은 접촉에 대해서 주요 책임을 분담하는 식으로 해도 되는가?
10. 5가정 미만으로 목회해도 되는가?
11. 우리들에게 달마다 일어나는 전형적인 일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가?
12. 이 목회에 대한 헌신은 몇년인가?
13.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새로운 사람이나 혹은 더 많은 사람을 목회할 수 있는가?
14. 특별한 경우 즉 장기질환자나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결혼문제 등에 대한 목회 훈련이 따로 있는가?
15. 독신은 독신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만 목회해야 하는가?
16. 영적인 질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17. 재정적인 필요들은 어떻게 다루는가?
18. 카드나 선물 그리고 다른 소모품의 비용을 충당해 주는가?
19. 이 목회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는 평신도 목회자를 갖지 못 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20. 이 목회사역을 위해서 한 달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

동기부여

“저는 저희 목회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프랭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3년 동안 좋은 목회를 하고 난 후에 그는 열정과 비전과 소명감을 잃고 말았다.

동기부여는 단지 기본 훈련 세미나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다. 두 종류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1) 어떤 사람을 평신도 목회사역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과, (2)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목회사역에 들어오도록 동기부여를 할 경우에 언제까지 계속 해야 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은 사실, 이상주의에 의해 서 목회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목회를 실시하는 현실에서는 새로운 강력한 동기부여가 계속되지 않으면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부여란 어떤 사람을 고무시켜서 내면적인 동기를 가 지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평신도 목회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목회할 때에 살아나야 하고, 성도를 향하여 목회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계속 살아 있어야 하고, 목회를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 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프레데릭 헬쯔버그(Frederick Herzberg) 박사는 동기부여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1)성취감, (2)일을 했다는 인식, (3)일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과 일 자체에 대한 흥미, (4)책임을 지는 기회, (5)성장과 발전의 경험이다. 평신도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에 그들의 필요들은 성취되었고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동기부여 가 되는 요인들을 촉진시키는 것은 목자들과 목사의 책임이다.

우리가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3개월에 한번씩 평신도 목회자 모임을 갖는다.
2. 편지로 하든, 전화로 하든 월간사역보고서에 대해 피이드백을 해 준다.
3. 목자들은 자기가 맡은 평신도 목회자를 규칙적으로 접촉한다.
4. 교회신문에 모든 이슈들을 사진이나 글로 실는다.
5. "목자들의 소명"이라는 제목의 월간지를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보 낸다.
6. 시시때때로 전화나 편지, 혹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회에서 직접 접촉하거나 돕는 자를 통해서 접촉한다.
7. 목회 그룹이 평신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도한다 는 것을 알린다.
8. 매년에 한 번씩 사역축제나 서로 친교하는 연회를 가진다.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든지 간에, 또는 헌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든지 간에, 목회하는 사람은 문제와 늘 씨름해야 할 것이다. 무거운 부담을 갖 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들을 통해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평신 도 목회자들이 성숙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라. 이제 평신도 목회 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 지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Notes

1. 이 주제에 소개된 사상은 1983년 스테반 사역에서 발간한 '전문적이 되는 것'이라는 주제의 스테반 시리즈 지도자 매뉴얼에 담겨 있는 개념에 근거한 것이고, 거기에 충분히 개발된 것이 들어 있다. 스테반 사역을 통해 허락을 받으면 각색이나 사용이 가능 하다 (1325 Boland, St. Louis, MO 63117)

2. Dr.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Waco, TX:Word Books, 1980), pp. 14, 15,

3. Ibid.

4. Alastair V. Campbell, Rediscovering Pastoral Care (Philadelphia, PA:Westminster Press, 1981), p. 23.

5. Ibid., pp. 23-25.

6. Campbell, Rediscovering Pastoral Care, p. 21.

7. 그 설명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된 조그만 문서의 내용인데, 요청하면 무료로 보내준다 (주소는 지도자 안내서 36?? 페이지에 있다).
8. Richard Foster, *Celebration of Discipline* (New York: Harper & Row, 1978), pp. 59, 60,
9. *Ibid.*, pp. 30-40.
10. *Ibid.*, p. 39.
11. Available from Campus Crusade for Christ International, Arrowhead Springs, San Bernardino, CA 92414.
12. 첫 방문에 대한 역할극 비디오는 이 책의 저자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see p. 258).
13. Peter C. Wagner, *Leading Your Church to Growth* (Ventura, CA: Regal Books, 1984), p. 115.
14. quote from Rabbi Yechiel Eckstein in November 1984, *Christian Life* article "What Christians Need to Know About Jew."
15. 이 주제의 많은 부분을 스테반 시리즈의 자료 사용허가를 받아 각색하였다 (1325 Boland, St. Louis, MO 63117),
16. Quoted by D.B. Heusser, *Helping Church Workers Succeed*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80), p.32.

제 8 장

문제들을 다루기

목회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거기에는 신혼시절이 있다. 다음의 글은 평신도 목회 사역의 초기에 쓴 것이다.

이 사역을 실행한 이후 생긴 첫 열매가 첫 번째 보고회 때에 분명히 드러났다. 거의 모든 평신도 목회자가 자기들에게 할당된 가족들을 다 방문했다. 그들의 마음은 첫 목회경험으로 뜨거워졌고, 모든 가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신혼여행과 같은 분위기가 끝나고 이제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을 다루어야 했다. 목회를 지도하는 우리나라 목회를 실행하는 자들은 다같이 문제 앞에서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문제들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평신도 목회의 유효성과 실 행가능성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역보고 를 듣고 기뻐했다.

일반적인 어려움

목회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7가지 일반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다루었던 방법은 이 목회의 신혼초기와 같은 국면을 지난 다른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도 이 목회를 시작하지 않은 사 람들, 즉 이런 목회를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잠재적인 문제들을 알고 있으면, 뭔가 미리 손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루도록 준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려움 1-어떤 사람은 평신도 목회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들은 평신도 목회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들 이 필요한지를 잘 모를 것이다. 넬리 프렛은 이런 종류의 저항을 경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첫 방문 보고서에 기록했다:

딘(Dean) 씨는 집에 없었다. 딘씨 부인은 전화로 자기는 이런 일에 '포함'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 기로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 방문을 허락하였다. 처음에는 약간 차갑게 대했지만, 곧 마음을 열었고, 나는 그녀 의 말을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우리 는 그녀의 딸이 데리러 와 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할 때 까지 계속 이야기 했다. 그때 나는 곧 바로 그 집을 나왔다. 그녀는 나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했으며, 자기를 돌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이 평신도 목회자는 저항에 부딪혔을 때에 적극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목회관계가 지속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 들리는가? 모든 사람이다! 돌봄을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돌봄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 모두가 필요하다. 모든 평신도 목회자가 이 점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신도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소위 "목자" (shepherd)라고 말하는 평신도 목회자들의 목회를 받는다. 제직회에서나 당회에서 평신도 목회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면 이 목회를 받아야 하는 성도들이나 이 목회를 해야 하는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큰 목회적 도움이 된다.

목회사역을 줄이기

만약에 어떤 성도가 계속해서 평신도 목회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신도 목회자는 목회사역을 줄일 수도 있다. 그들은 신실하게 기도해주는 정도로 사역을 줄이고, 대신에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생일카드를 보내는 것이 좋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저항적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거기에는 많은 인내가 요구된다.

이런 경우에 하나의 공식처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MP/MC(Maximum Prayer/Minimum Contact), 즉 기도를 많이 하고 접촉을 줄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를 지나치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촉을 하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다른 평신도 목회자도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의 백성들이 누군가로부터 돌봄과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 평신도 목회자는 이렇게 줄여서 사역을 하는 방식도 여전히 목회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런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모두 목회사역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줄이는 것은 실제적인 사랑과 목회적인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면으로는 그 사람의 사적인 권리에 대해 존경을 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MP/MC의 사역방식은 미래를 위해서 특히 그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목회관계를 발전시 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이 휴면인 것 같은 이 시간은 평신도 목회자의 헌신이 검증되는 기회이다. 그들의 저항이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계속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 사역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필요로 한다. 거부하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보고를 받아들인다.

어려움 2-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접촉이나 방문이 어렵다.

첫째, 어떤 사람은 정말 바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들의 스케줄은 너무 꽉 차서 가정 방문 같은 또 다른 활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인내와 민감한 지구력이 요청된다. 이럴 때 평신도 목회자는 그들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까지 간단한 전화 심방이나 편지나 카드로 사역할 수 있다. 사람들의 개인 시간과 "내 양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요청 사이에 균형이 잘 유지될 필요가 있다. 사실 활동 지향적인 평신도 목회자가 일을 적게 하고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나중의 더 큰일을 위해서 인내와 신실함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종의 대기만성 (delayed gratification)의 원리와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 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마 25:21).

어려움 3-평신도 목회자가 바빠서 성도를 소홀히 한다.

포고(Pogo)는 "우리는 종종 적(the enemy)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했다. 성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너무 바쁘거나 또는 연기하기 때문이다. 목사는 존경심을 가지고 평신도 목회자를 만날 필요가 있다. 평신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소명에 비추어 볼 때에 목회사역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검증받고 있는 것이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평신도 목회자의 헌신은 안수로 입증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규적으로 접촉하라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뜻이다. 그래서 평신도 목회자들은 존경과 사랑과 민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은 평신도 목회자들이 헌신을 새롭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딤후 1:6). 이 성구에 힘입어 평신도 목회자들이 새 출발을 하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는 좋은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의 성도를 소홀히 한 평신도 목회자들은 어떤 궁지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을 오랫동안 접촉하지 않다가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부끄럽게 된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만나지 않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죄책감은 커지고, 접촉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여보세요, 저는 스티브 피어슨입니다. 연락드린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데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겠어요? 저는 당신의 집을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소홀히 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을 정기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새롭게 헌신하려고 할 때에는 전화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편지를 쓰도록 조언을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대개 평신도 목회자가 인식하는 만큼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어떤 행동을 취하라.

말린 윌슨은 그녀의 책, 『어떻게 교회의 지원자들을 동력화 할 수 있는 가에서 "만약에 지원자들이 빈둥거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을 전부 '그만두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그녀는 네 가지 단계를 강력히 추천한다.

첫째, 당신은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목자와 목사와 평신도 목회자가 함께 훈련 세미나에서 가르친 헌신들을 되돌아보고, 파송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첫 단계는 이따금씩 해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를 분명히 분석해보고, 당신의 기대를 말해야 한다.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라, 그 다음에 느낌을 들어라. 이유에 대한 평신도 목회자의 관점을 수용하라. 공감하라. PACE라는 분명한 기대를 다시 말 해주라.

세 번째, 대안을 함께 강구하라, 예를 들어: 1) 목회사역을 쉬게 한다. 2) 헌신을 새롭게 한다. 3) 가족을 줄여 재조정 한다. 4) 대화중에 나타난 다른 가능성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서로가 동의한 대안을 선택해서,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당신이 섬기는 일곱 가정을 언제 방문 할 수 있는가? 또는, 당신이 섬기는 가족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빼고 싶은 사람은 없는가?" 목자가 지원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말린 윌슨의 4단계에 다섯째 단계를 추가한다: 그것은 '기도하라' 이다. 대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면전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라, 기도제목은: 1. 함께 얘기하는 동안 주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2) 소홀히 한 일과 게을러서 연기했던 것을 고백: 3) 목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4) 일반적 그리고 특수한 임무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5) 목회관계를 성취하기 위해 성령에 의존,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목회접촉이 되도록, 그리고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는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어려움 4 - 사람들은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평신도 목회자나 안수 받은 목사는 그것을 좋아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일단 구세주나 구조자나 혹은 해결사가 아니다. 그렇다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적절한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교회들은 고소를 당한 충격적인 사실도 있다. 그러므로 만일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평신도 목회자나 안수 받은 목사는 의뢰인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간단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가 있으면 담임목사나 교구목사에게 연락하라.
2. 들어주는 것이나 함께 있어 주는 것이나 또는 기도해 주는 것이 상을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일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담당 자에게 연락하라.

3. 영적인 것이나 성경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문제 등에 직면하거나,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 이상의 상황이나 행동을 요구하게 되거나, 당신의 대답이나 해결방식 이상이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역자에게 연락하라.

치료사들, 의사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도와준다. 목사는 그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함께** 있어 주는 사람이다. 간혹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다.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문제들을 전부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내가 환난 날에 그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시 91:15).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단지 함께 하신다고 하였는데,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시 23:4)고 하였다. 요점은 목회자의 역할이란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에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목회자들의 인격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 는 것을 계획하셨다. 두려움에 놀라서, "나는 피부로 느끼는 사랑이 필요 해요"라고 말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저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들의 좌절과 혐오감 등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때 가 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목사들은 함께 있는 것이 곧 뭔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종종 최고의 감사는 충고를 하거나 문제를 고상하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준 사람에게 돌아간다.

실패가 아니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그들이 받은 훈련과 경험 안에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한다. 그들이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 패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함께 있어 주었으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신도 목회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에 좌절하거나 실패 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옆에 있으면서 조용히 혹은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 그들은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며, 당신을 사랑하고 돌본 다는 것을 단지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에 단순히 함께 해 준 하나의 좋은 예가 있는데, 5년 동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사역을 한 일이다. 그것은 그 사람을 석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방문해 주는 일을 한 것이다. 또 하나의 예는 말기암 환자와 함께 있어 준 것이다. 목사는 그 사람을 영웅적으로 구출해 내는 것이 아 니라 단순히 그와 함께 있어 준 것이다. 평신도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무력 함을 인정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형제 자매들인 그 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 랑과 힘있는 위로가 흘러 들어 갈 것이다. 정신병 치료사요, 교수요, 저술 가인 주아니터 르 얀(Juanita Ryan)은 "위기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가들 보다는 신실한 친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큰 슬픔 중에 있었던 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곤란 중에 있는 당신을 만져주시고 위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기도하십시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은 그의 팔을 벌려서 곤란을 당한 동료의 손을 끌어 안았다. 그의 친구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어요! 나는 그 사람이 나를 팔로 안아줄 때 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그때 그는 그의 눈이 열렸고,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오. 당신의 팔이군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은 그저 가장 가까이 있는 팔을 사용하신 것 이야"라고 그의 친구는 지혜롭게 대답하였다.

우리 목사는 고난의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으나 이따금씩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팔이 될 수는 있다.

어려움 5-평신도 목회자들은 영접과 목회사역의 효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내 가족 중의 세 가정은 우리를 아름답게 영접하였으나 다른 세 가정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았다. 사실 첫 번째 세 가정은 가족같이 느껴졌으나 나머지 세 가정은 못생긴 오리새끼와 같았다."

이와 같이 목회의 현실은 다양하다. 따라서 평신도 목회자들은 어떤 가족들이 멀리 서서 쌀쌀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하여 물러 서지 말아야 하고, 사람에게 따라 영접과 사역의 효과 정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받아 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비판을 받아서는 안된다. 비판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자꾸 멀어진다고 해서 그들의 감정을 개인적으로 상하게 하면, 목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평신도 목회자를 뜨겁게 환영하지 않거나 혹은 그들이 별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개인적인 관심과 신실한 기도가 좀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종의 아가페 사랑, 즉 반응에 상관없이 자신을 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문둥병자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 감사 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고, 고쳐주셨다. "나는 베네트(Bennets)를 위하여 신실하게 기도했고, 그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돌봐 주었지만, 어떤 결과도 보지 못했다."라고 데이빗은 말했다. "그들은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을 목회한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포기하려고 한다!"

사무엘 사더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신도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헌신하는데, 그들이 거절하거나 영적인 필요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상태로 있게 되면 매우 실망하게 된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목회의 본질로서 용납과 사역의 효과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목회하는 가운데 용납되는 정도와 효과의 정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언제나 따뜻한 환영만을 받을 수는 없다.

어려움 6-분명한 필요나 위기가 없을 때에는 어떤 식의 목회를 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지 않으면 목회할 필요가 없다는 착각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보내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PACE에 표현된 평신도 목회의 기본 개념을 분명히 파악하지 못했다.

목회의 다른 형태

위기가 없을 때에는 목회가 충실한 우정의 형태를 취한다. 좋은 목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믿음의 삶을 개발 하도록 도움을 준다. 다음의 강한 주장을 주의 깊게 읽어 보기를 바란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목회는 그들의 대부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벼운 대화나, 우정을 주제로 하는 이런 저런 이야기나 자신의 주제가 담겨 있는 간단한 이야기는 그때에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평신도 목회자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접촉할 때이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 않으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에 상관이 없게 된다.

삶의 긴밀한 결속은 위기가 일어날 때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 사람들과 무게 있는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이리 저리 꼬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거나, 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건져 주거나, 어떤 기교를 취하도록 지혜로운 조언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 충실한 우정과 일상적인 대화도 역시 어떤 기교가 요구된다.

위기가 없어도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라.

평신도 목회자들은 위기가 없을 때에 술선해서 구비할 필요가 있다. 질 병이나 상처나 실직이나 화재나 사망과 같은 어떤 위기에 반응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결혼이나 자녀출생이나 졸업이나 생일과 같은 좋은 일들에 대해 반응하는 비교적 단순한 목회활동이 되는 이유는 이러한 위기와 사건은 매우 단순한 과정, 즉 위기와 반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들이 있다. 목적, 시간, 통보, 그리고 임무

1. **목적**은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이 병원으로 급히 간다고 하자. 이런 경우 목회방문의 목적은 이 미 확인된 것이다.
2.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있다.
3. 당신은 위기가 생겼다고 **통보**를 받았다. 당신이 사역을 하도록 누군가 알려주었다.
4. **임무**의 초점은 위기에 있다. 위기를 풀어 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위기의 본질을 보면 대체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범위가 좁혀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목회사역적 측면에서 보면, 곧 란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살아나도록 하여야 한다.

평신도 목회자는 위기가 없는 경우에 술선수범해서 다음과 같은 네가 지 일로 접촉하여야 한다:

1. **목적**을 정하라. 예를 들어,
 - a.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한다.
 - b. 가족들 모두가 좋아할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본적인 것부터 다룬다"
 - c.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2. **시간**을 정하라, 위기가 아닌 경우는 오늘이나 이번 주에 꼭 만나 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연기하지 말고, 우선 당신의 시간을 정하고, 그 성도에게 편리한 시간을 조정한다.
3. 접촉사역에서 **주도적**이 되라. 평신도 목회자는 그 가족이 방문해 주기를 위해서 연락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성도가 평신도 목회자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다.
4.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 예를 들어, "나는 그냥 방문해서, 좀 더 친해지고 싶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지 알아 보고 싶다."

어려움 7- 어떤 사람은 안수 받은 목사가 아니면 목회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쿠룩만스가 나를 방문했는데, 그가 목사인지 알고 싶다." 마이스 터 부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가 목회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 들이 지 않았거나 그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 여자는 또 말했다. "나는 나의 평신도 목회자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좋은 부부이다. 그러나 나에게 목사가 필요하다면, 나는 컬크 박사를 원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첫째로, 에베소서 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사인 목사를 불러서 성도들이 목회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한다. 우리는 준비되었으므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목회하도록 평신도를 부르셨고,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목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온 교회가 믿도록 일해야 한다. 이런 것은 설교, 가르침, 또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강단에서 일관성 있게 설교하는 것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목회사역을 받아들일 이도록 하는 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특별반이나 교회신문에 내는 글을 통해서 목사 혼자서 목회사역을 하는 것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하도록 변화시키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담임목사가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가 하는 설교나 교육이나 글들은 호소력이 약해진다.

셋째로, 당회는 교회가 회중들을 돌봐주는 방법으로 평신도 목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회 앞에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조치는 조직이 갖추어지고, 목회사역이 다 준비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확고하게 일관성 있게

목사와 평신도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달라진 것, 하나님께서 교회가 에베소서 4장과 베드로전서 5장과 다른 여러 성경에서 진지하게 말하는 평신도 목회사역을 수행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을 확고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그와 같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결정을 고수해야 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평신도들에 의한 순수한 목회에 대해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을 알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존경할 필요가 있다.

예외

두 가지 실재가 강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킨다. 첫째로, 어떤 나이든 사람들은 안수 받은 목사 외에 다른 사람의 목회는 목회라고 결코 느끼지 않을 것이다. 평신도와 목사들이 함께 목회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많은 평신도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성실하게 접촉함으로써 평신도 목회를 하여 나이든 사람들을 극복하는 것을 보는데, 안수받은 목사가 동시에 목회사역을 한다.

평신도 목회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목회사역에 부르신 순수한 목회자라고 믿는 것은 과도기적인 때에는 매우 중요하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또한 많은 노년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절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기 위하여 전통적인 원리에 따라서 처신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실재는 직업적인 목사들이 목회사역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는 아주 큰 일들만 담당하였고, 다른 일들은 유능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위기나 무서운 질병이나 죽음이나 상담이나 훈련 같은 것은 큰 일들로서 안수받은 목사가 담당하여야 한다.

어떤 것이 "큰 일"이고, 어떤 것이 "작은 일"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간 평신도 목회자의 은사와 경험, 그리고 담임목사의 유용성에 의존해 있는 문제이다. 그 선을 긋는 일은 과학적이거나 보다는 예술적인 문제이고, 객관적이거나 보다는 주관적인 것이다. 이런 과정은 평신도 목회자들과 안수받은 목사사이의 열린 대화, 상호 존경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실패나 방해나 거절하는 일 없이 일어날 수 있다.

맞거나 혹은 틀린 것을 구별해 보라.

어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언급한 이 장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사실이라고 믿어온 5가지 가정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며 평신도 목회자들을

매우 약하게 할 것이다. 다음의 각 진술을 '맞다'고 생각하면 T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F에 ○표 하기 바란다.

- T F 1. 평신도는 훈련 없이도 목회할 수 있고, 지속적인 훈련 없이도 효과적으로 목회할 수 있다.
- T F 2. 헌신한 모든 평신도는 스스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목회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 T F 3. 평신도 목회자들에게는 인정해 주는 것이나 감사나 인도나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혹은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 T F 4. 헌신적인 사람들은 찾을 필요도 없이 모두 스스로 찾아 올 것이고, 평신도 목회자들로 자원할 것이다.
- T F 5.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고, 또한 잘 준비된다면 목회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다섯 개 모두 F에 표를 했다면, 여러분의 점수는 A+이다. 위의 진술은 모두 틀린 말이다. 만약 이 중에 어떤 것이라도 맞다고 생각하면 평신도 목회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잘못된 전제를 잘 다루거나 없애게 되면 어려움은 오히려 새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문제 때문에 실패하기 보다는 그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다루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순수하고 효과적으로 돌보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어려움을 확인하고 다루는 일은 효과적이고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목회에 필수적이다. 이제 우리는 목회에서의 약점을 다루고 강점을 살리는 목회평가로 넘어가고자 한다.

Notes

1. 이 내용은 나의 목회학 박사 논문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절한 목회적인 돌보기'(1979)에 있다. 이것은 목회학 박사 사무실과 오하이오 주 데이론에 있는 연합신학 (United Theological Seminary) 도서관에 있다.
2. Marlene Wilson, How to Mobilize Church Volunteers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3), p.95,
3. Juanita R. Ryan, Standing By (Wheaton, IL: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1984), p.188,
4. Samuel Southard, Training Church Members for Pastoral Care (Valley Forge, Judson Press, 1982), p.26,

제 9 장 목회평가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한 가지 중요한 일은 그 우주선의 방향을 조종하는 것이다. 쏘아 올린 그 우주선이 계획된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주선의 방향을 계속 조종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신도 목회 사역을 평가하는 일은 우리가 설정한 목적과 목표에 비추어서, 사역의 거리와 방향 즉 성과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과정이다.

올바른 성과측정을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알 필요가 있다.

1. 우리가 시행하려던 계획대로 하고 있는가?
2. 예상한대로의 결과를 가져왔는가?
3.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계획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4.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만약에 목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정말로 알기를 원하면 평신도 목회자들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1. 지난 달에 몇 명을 접촉할 수 있었는가?
2. 그들이 당신을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접촉횟수를 측정하는 사역의 양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인간관계의 성격과 수준을 결정하는 사역의 질적인 부분이다. 이 두 가지 평가는 목회의 맥박을 느끼는 데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목회사역의 양과 질, 즉 목회가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목회를 감독하는 사람들은 목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목회사역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양과 질에 관한 정보는 목회의 목적,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평가하는 데 아주 가치가 있다. 아래의 예들이 이 세 가지를 잘 구별지어준다.

목적 - 목적은 평신도들이 목회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면서 뭔가 좀 환상적이다.

목표 - 목표는 어떤 특정한 날자에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성취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목적인지 목표인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한가지 방법은 날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구체적인 목표 - 어떻게 평신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교육과 정의 스케줄을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두 번째 구체적인 목표는 첫 강의에는 25명 정도 등록을 받는 일이다. 한가지 목적(purpose)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목표들(goals) 중에 하나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목표(objectiv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목표들은 이루어진다. 목표들이 차례로 이루어지면 목적은 달성된다. 목적은 비전이다. 목표들이나 구체적인 목표들은 이 비전을 성취시키는 데 필요한 행동단계들이다.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

이 대양이 되듯이, 구체적인 목표들은 목표를 이루고, 목표들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평신도 목회의 목적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절한 목회를 시행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목표들 중의 하나는 평신도가 목회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을 만드는 일이다. 구체적인 목표들 중의 하나는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돕는 일인데, 즉 내 개인적인 경우를 보면, 하나의 과정이 어 때해야 하는지를 연구해서 그것을 기록하여 목회 운영 그룹(Ministry Group)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일이다.

첫 번째 평가

목회는 시작되었다. 우리는 목적이 제대로 성취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 육개월 짜 평가를 실시하였다. 우리는 이 목회가 정말로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두가지 전체 즉 첫째, 평신도들은 효과적으로 목회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성도들은 주변 성도들의 목회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평가도구로는 "기독교인 들이 영향을 받는 근원들" (Christian Impact Sources, 188 페이지를 보 라)을 사용했다. 평신도 목회를 받은 성도들에게 평가하도록 부탁했는데, 1에서 10까지의 등급으로 그들에게 미치는 7가지 영적인 영향력의 근원들을 제시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놀랐다! 그들은 우리가 설정한 두 가지 가정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다. 평 신도 목회자들의 영향력은 담임목사와 같았다. 평신도 목회자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스태프진들 보다는 높았다. 다른 매체들도 즉 라디오, TV, 책, 잡지, 테이프, 이웃, 다른 교회들도 평신도 목회자들 만큼 영향을 주지 못했다.

두려워 말라.

담임목사나 다른 스태프들은 이런 평가에 대해 자신들의 전문적인 사역이 나 이미지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런 목회가 발전되는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표시라고 믿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목회가 회중들에게 요청되는 목회적 돌봄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목회를 질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주요한 평가를 실시했다 (두 가지 평가 양식이 부록의 "지도자 안내서"에 있다). 하나는 평신도 목회자들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목회를 받은 성도들의 관점이다.

평신도 목회자들의 관점

평신도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목회의 70%정도는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 10가정 중 7가정 이 규칙적으로 접촉되어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인 정할 만한 수준이지만 더 높은 퍼센트를 높이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격려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3. 평신도 목회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받을 필요가 있다. 접촉하기 전에 그 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대화를 하고 난후 기도로 그들을 세워주 거나, 대화를 하다가 기도로 전환하기 위해 그들을 더 준비시키 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4. 평신도 목회자들 중에 어떤 이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확립하기 위 해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 람이 있다. 목회의 본질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과 따뜻한 인 간관계를 유지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돌 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임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5. 평신도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가족 중에 있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세워 나가는 데에 진지한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 평신도 목회자들의 거의 백퍼센트가 평신도 목회 월간지를 읽는다. 그런 것을 읽음으로써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안다.
7. 평신도 목회자들은 책이나 테이프나 특강이나 다른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일에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8. 왜 월간사역 보고서가 필요하며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신도 목회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목회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그들을 목회적으로 돕기 위해 계속해서 목회 현장과 관계를 유지하는 주요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받는 대상들(Christian Impact Sources)

기독교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근원들이 있다. 당신의 영적인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 1쪽으로, 영향을 많이 주면 10쪽으로 체크를 하라.

대상	1	2	3	4	5	6	7	8	9	10
담임목사							√			
부목사						√				
평신도목회자							√			
라디오/TV			√							
책, 테이프, 신문						√				
이웃	√									
다른 교회			√							

참고: 조사를 받은 사람들중에 75%가 "평신도목회자"에게 5 또는 그 이상의 점수를 주었다면, 평신도목회 사역은 아주 "적절한 것"이다.

우리가 이 평가를 통해 배운 교훈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역도중이라도 올바른 방향(in-flight correction)으로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역 도중에 목회를 계속해서 개선해야 함에는 틀림없는 일이다.

성도들의 관점

우리는 평가서를 무작위로 뽑은 성도들에게 보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적인 목회정보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1.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 돌봄을 받았다고 느끼는가?
2. 평신도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접촉하는가?
3. 사람들은 평신도 목회자들의 방문을 얼마나 원하는가?
4. 평신도 목회를 얼마나 상호관계 속에서 실시하는가?

5. 평신도 목회자들과 가진 중요한 경험은 무엇인가?
6. 상호 관계가 더 깊어졌는가 퇴보되었는가?
7. 그들의 영적 삶에 가장 효과적으로 미친 영향들은 무엇인가?
8. 사람들이 가지는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어떠한가?

70 퍼센트는 효과적이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했다.

다시 말해 평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70 퍼센트 정도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만약에 100명의 직업적인 목사들이 자신의 목회를 평가해서 70 퍼센트가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종종 나는 주장한다. 당신은 아마 성도들의 평가서에서 다음과 같이 쓰여진 것을 읽고서 액 좋아할 것이다. 나의 평신도 목회자가 내게 해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1. 크리스마스나 생일 때에 우리를 기억해 준 일
2. 필요할 때에 전화를 해 준 것
3. 예수님과 나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준 일
4. 경청해 준 일
5. 잘된 일에 관심을 보여 준 것
6. 친구가 되어주고, 얘기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전화하도록 확신을 심어준 일
7. 슬픈 일에 깊이 공감하고 도와준 일
8.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나 목사는 평상시의 위기나 갈등은 전혀 모르고, 극심한 위기가 생길 때에만 찾아온다.
9. 출산했을 때에 저녁식사를 준비해 온 일
10. 나의 남편과 나의 직장을 위해 기도해준 일
11.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분명히 해준 것

다른 반응들도 많이 있었는데, 나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평신도목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말하고 싶다.

1. 일대일의 목회개념은 아주 좋다.
2.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
3. 나는 그들이 언제나 마음이 열려 있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지원해줄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느낀다.
4. 이런 목회의 가치를 한 두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일대일의 경험이며,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도움받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5. 평신도 목회의 좋은 점을 충분히 다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것보다도 드라마틱했기에 우리의 필요는 더욱 더 큰 것이었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전화하거나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항상 거기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다.

6. 평신도 목회는 나에게 큰 축복이었고, 평신도 목회자들은 나의 새로운 친구였다.
7. 모든 교회가 이런 목회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그것을 굳게 믿는다.
9. 사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크다. 평신도 목회가 사람들의 관계를 가 가까이 해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인들을 잃어 버릴 것이다.
10.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회중을 돌보게 하는 일을 맡기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만나러 오는 평신도 목회자가 있고,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 이야기도 평신도 목회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반응인데, 평신도 목회를 개선해야 할 내용들이다.

1. 평신도 목회자가 너무 많은 가족들을 돌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어떤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 평신도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고작해야 우리에게 전화 해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만 나기 위해 예배를 드릴 때 어디쯤 앉느냐고 묻는 것이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다.
3. 나를 섬기는 평신도 목회자는 병원 근무시간(36시간 교대)을 마치고 나를 만나러 오는데, 너무 피곤해 보여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나는 그런 방문이 정말 싫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는 그를 위해 별도로 기도하지 않았으며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4. 평신도 목회자들을 선정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 같고, '가족'과 잘 맞도록 짝을 지어야 한다.
5.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에 그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 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 목회자로서 은사가 없는 듯 하다.

많은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는 월간 사역보고서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 월간 사역보고서에는 양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포함하여야 한다. 얼마나 많이 접촉했는지, 어떤 종류의 접촉이었는지, 누구를 먼저 만났는지 등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다른 종류의 접촉과 비교해 볼 때에 가정 방문의 횟수가 충분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보고서들을 정기적으로 분석한다. 나나 혹은 평신도 목회자들의 목회자들이 평신도 목회자들 각자에게 편지나 전화로 평가에 대해 전해주기 때문에 이 보고서들은 그들을 지원해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보고서들을 통해 종종 문제들이 표출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자기 평가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목회목표들을 그들 스스로가 세우도록 도 전한다. 이 목표들은 그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12-14에 있는 말씀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에 따라 그들이 섬기는 가족들이 영적으로 더 깊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울 수도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1. 그들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히브리서 6장 4, 5절 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한다. 신앙생활에서 맛보는 영적인 실제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가정 방 문을 할 때 얘기 할 수 있다.
2.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격려한다.
3.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4. 성경지식이 자라가도록 도와준다.
5. 평신도 목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는 데 도와준다.

평가의 다양성

형식을 갖춘 잘 계획된 전반적인 목회평가는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실시 되어야 한다. 목회의 각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역시 매년 실시되어야 한다: 훈련,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평신도 목회자 모집, 목자들, 보고서, 행정, 분기별 혹은 월간모임 등에 관해서이다.

평가방법들은 아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때에는 어떤 양식에 의한 보고서 보다는 개인접촉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어떤 때에는 평신도 목회자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함께 평가회를 가질 수도 있다.

목회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양식이 잘 개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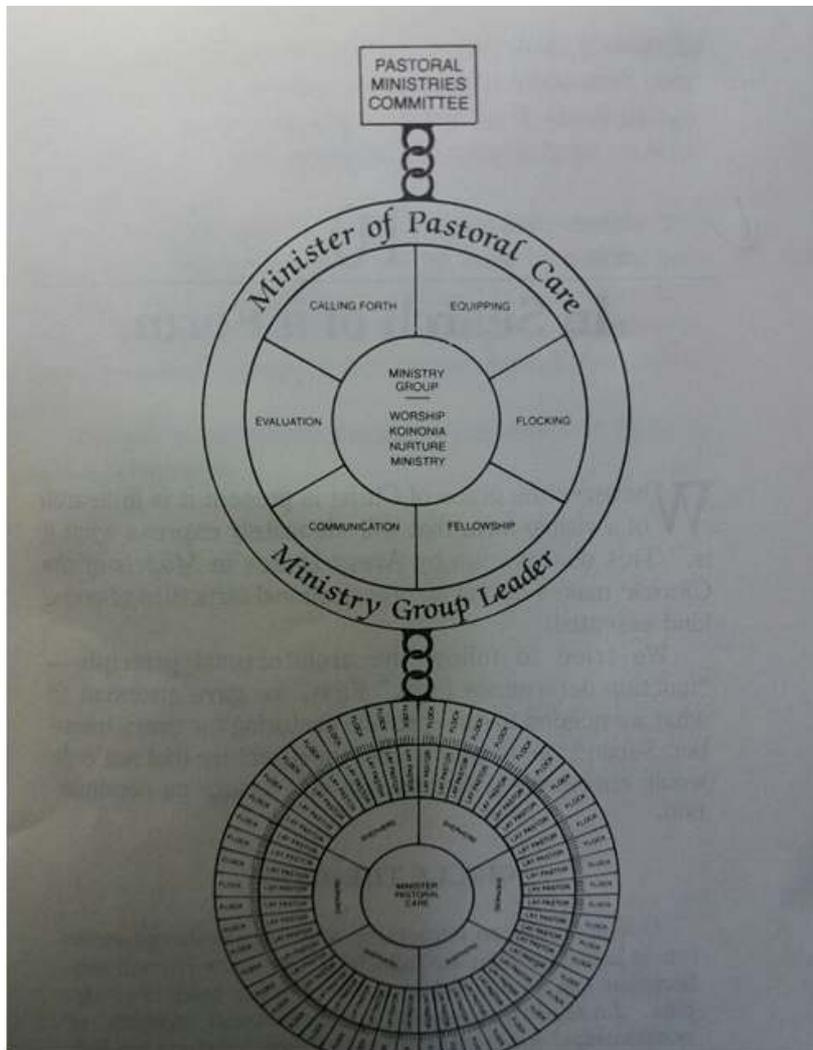
제 10 장 조직을 갖추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그것을 적당하게 표현하는 분명한 형식이 있다." 애버리 둘스 (Avery Dulles)가 그의 책, 「교회의 모델」이란 책에서 밝힌 이 관점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조직 기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능이 형식을 결정한다"고 하는 건축술의 원칙을 따르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즉 "모든 회중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둘째로 우리는 단지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원(circle)의신학

리더십과 조직적인 구조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소위 "원의 신학"에기 초한다. 인간관계는 사다리나 혹은 수평적인 관점에서 정의 될 수 있다. 사다리는 인간관계의 계급적 조직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사다리 올라가기"라는 것이다. 원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나누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원의 신학은 에베소서 5:21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는 말씀과 빌립보서 2:3, 4의 "아무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라는 말씀 속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동등하고, 그의 사랑과 그의 우정과 그의 교훈과 그의 명령과 그의 목회를 공유하고 있다.

뒤에 있는 도표는 평신도 목회의 관리조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조직 은 우리가 목회를 해 나갈 때에 서로 봉사 하고 복종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것을 말해 준다. 첫 번째 원은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전통적인 피라미트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는 목회에서 동역자라는 것을 믿으며, 어떤 사 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보다는 상호 의존적 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조직의 형태를 순환형으로 그려놓은 것이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다. 역할 은 다르지만 권위는 같고, 책임은 상호적이다.

기타 용어

우리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용어를 만들었 다. 그러므로 도표에 사용된 용어를 이해하 도록 하기 위해 설명하려고 한 다. 이 용어들을 주의 깊게 선택했다. 왜냐하면 주어진 역할들을 분명히 하기를 원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 하면, 거기에 딱 맞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다. 올바른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목회위원회(Pastoral Ministries Committee) - 교회 회중의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공식기관이다. 칼리지 힐 장로교회에서는 이 기관 은 당회(the Session)이다.

목회그룹(Ministry Group) - 당회의 감독을 받으면서 목회를 주관하 는데, 목회적 돌봄 사역을 책임맡은 목사를 포 함하여 12명에서 16명으로 구성된다. 비록 이 그룹은 목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역할 때는 예배, 교제(어려운 문제와 기쁜 일은 함께 나눈다), 그리고 양육 (주안에서와 목회사역안에서)으로 나누어서 실행한다. 처 음에는 목회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모였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번 씩 모인다.

부름(Calling forth) - 징집이나 등록이라는 용어 보다 이 용어를 사용 하는 것은 세속적인 조직의 특성을 의미하는 인간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목회에 부르신다는 개 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기다려서도 안되지만, 사람 들에게 강요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 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들이 사람들을 접촉해서 평신도 목회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그들이 평신도 목 회자가 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 님께서 그들을 목회직에 부르실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확인해보 라는 것 이다. 목회그룹 회원들이 해야할 일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하 는 것이다.

준비시키는 것(Equipping) - 이 용어는 사람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구 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보통 사용하는 용어인 훈련(training)은 이에 소서 4:12과 디모데후서 3:17과 히브리서 13:21에 나오는 준비시킨다 (equipping)'는 성경적인 용어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 하나님의 영은 준비 시키는 과정에 함께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적인 것 뿐만 아니라 믿 음, 사랑, 감정, 긍휼로 구비되도록 하신다. 준비시키는 주제에서도 강조 했듯이, 평신도 목회자 들은 무엇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될 필요가 있다. 나는 목회사역에 있어서 이런 면에 통합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준비 세미나에서 이것을 매우 강조한 다.

할당(Flocking) - 이것은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멤버들이나 그들의 가 족을 할당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5-10명을 할 당하는데, 전체 멤버를 합해 서 가족 혹은 양떼(flock)라 부른다. 목회그룹 중의 어떤 회원은 이 사역을 담당할 책 임이 있다.

교제(Fellowship) - 평신도 목회자들은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전체 적인 모임을 갖는다. 각 모임의 목적은 네 가 지이다. 예배 준비하기 나 능, 그리고 교제이다. 우리는 3개월마다 모이는 이 모임을 평신도 목회자 들의 교제(Lay Pastors Fellowship)라고 부른다. 목회그룹 중의 한 사람 이 이 모임을 계획하거나 조정자의 책임을 담당한다. 다른 회원들은 음료 수, 다과 등을 계획한다.

대화(Communication) - 평신도 목회자들과 회중들 사이의 대화는 매 우 중요하다. 월간소식지인 "목자의 소명"(The

Shepherd's Call)을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배부한다. 매월 교회 신문에 정기적인 글들을 실는다. 이 것은 비록 목회 그룹이 책임을 맡고 있지만, 교회의 사무직원들이 거의 다 만들고 있다.

평가(Evaluation) - 평가는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및 비교 하는 것이다. 계획된 것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어떤 형식적인 도구를 가지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목회의 약점을 발견하게 해주고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목회그룹의 회원들은 평가도구들을 개발하고, 과정을 시작하고, 결과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에 기초한 활동들을 추천해 주어야 한다.

평신도 목회자(Lay Pastor) -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요 15:16을 보라),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고(행 6:5), 할당된 사람들을 순수 하게 돌보는(벧전 5:2) 비전문적 교회 회원을 말한다.

목자(Shepherd) - 평신도 목회자로서 평신도 목회자를 목회하며, 그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그들을 "목회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래의 두 용어는 도표에는 없지만 목회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정의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목회(Ministry) - 이것은 신자가 성령과 교회의 부름에 응답하여 참여 하는 활동이다. 이 용어는 보통 프로그램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프로그램 은 성령의 참여와 교회의 독특성이 결합된 인간적인 의미를 가진다. 모든 신자는 성령께로부터 목회 은사를 받았다. 그러므로 목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인준(Confirming) - 이것은 평신도 목회를 위해서 지원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인 다음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활동이다. 목회 그룹이 이것을 책임지고 있다. 특별한 목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확신시 키기 위하여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인 준이 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일을 하도록 안내를 받든가 혹은 목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

동근 구멍에는 동근 썰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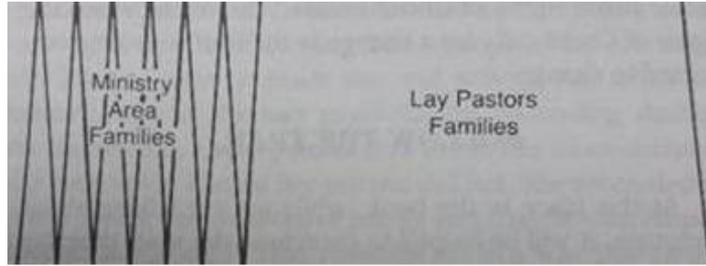
우리는 올바른 용어와 올바른 이해에 덧붙여서 그 일을 위해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목회그룹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맡기기 보다는 사람들의 은사를 발견하여 그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일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동근 구멍에 사각모양의 썰기를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꿀 수 있는 능력

이 목회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후 우리의 목표와 구조에 대변화를 시도했다. 성령께서 목회를 전적으로 감독하신다는 사실 보다는 구조를 만들 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능력에 좋은 감정을 가졌다. 이 구조 는 본래 우리 교회의 온 회중들에게 평신도 목회자들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옳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리 교회 내에 사역의 다른 분야(전도, 상담, 교육, 청소년, 주일학교, 선교, 예배)에서도 목회적 돌봄사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지도자들이 "우리 부서 내에도 목회할 부분이 아직 많은데, 왜 사람들을 빼가느냐"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비록 이런 문제가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떤 구조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나타내 준다.

평신도와 스태프들 여러명이 함께 모여 몇 주 동안 여러 차례의 모임을 가진 후에 다음 도표와 같은 조직을 개발했다. 목회를 인도하는 평신도와 그 목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스태프진을 가지고 있는 각 목회의 영역은 그 목회에 포함된 사람들을 목회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목회를 위해서 그들 나름의 모델을 개발한다.

평신도 목회는 각 목회영역들의 목회를 조정하고 그 지도자들을 책임있게 관찰한다. 우리는 6개월마다 다양한 목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재확인함으로써 이 일을 담당한다. 또한 모임 때마다 목회적인 활동을 상호나눔으로써 상호목회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CHPC Comprehensive Pastoring Plan

견고하지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목회 구조라는 것은 굳어버린 영원 불변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목회조직이 모래 알 처럼 구성되어서는 안된다. 조직은 견고해야 하지만 그러나 변화에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조직되는 특별한 방법을 보면, 우선 그 나뉠의 생명을 취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사라질 때까지 영구보존을 위해 싸우는 것 같다. 특별히 교회가 이런 속명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들은 기능과 형식을 너무나 구분하지 못한다. 목회가 지속적으로 적실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적 변화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조직의 외부 적인 형식보다는 투사로서 옹호하는 정신이나 목적을 원한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형식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형식을 만드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변화를 따라야 한다.

철로를 따르라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평신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그들이 현재 있는 곳에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갈 길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평신도목회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라. 이것은 기도나 진지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2. 사람들은 평신도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목회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라. 이것은 설교와 가르침으로 가능하다.
3. 교회의 공식기관을 통해 교회가 사람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는 방법으로서 이 목회의 공식적인 채택을 확증하라.
4. 목회나 행정과 같이 은사가 다양한 6-16명의 평신도들을 한 그룹으로 구성해서, 그들이 이 사역에 실제적으로 헌신하도록 하라,
5. 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6개월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계획한다. 연구는 성경과 이 목회와 관련된 저서들과 평신도 목회의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6. 평신도 목회의 신학과 철학과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반드시 기록하라.
7. 신학과 철학과 구조를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실험해보는 임상목회를 실시한다.
8. 사람들을 이 목회에 초청해서,
 - 그들을 준비시키고

- 가족을 할당해주고 PENYERATHER
- 그들을 파송하고
- 그들을 감독하며, 지원하고
- 그들을 자주 모아서 교제와 나눔과 격려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한다.

9.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10. 목회를 시행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령께서 인도하신 목회의 열매들을 기뻐하고 축하한다.

Note

1. Avery Dulles, *Mindel of the Church* (New York: Doubleday, 1974), p.66

제 11 장

평신도 목회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사람은 좀더 많이, 어떤 사람은 좀더 적게 필요할 뿐 모든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목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교회 목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 평신도 목회자들 중의 한 사람이 말했다. 나 역시 수년동안 목회를 한 교회의 목사로서 이 말에 "아멘"한다.

평신도들에게 아직 목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교회들은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평신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평신도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영감과 실제적인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더욱더 순수하고 효과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증거는 회의론자들의 세 가지 풍선을 터뜨린다. 평신도들이 과연 목회의 책임을 지기를 원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그들이 과연 목회사역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신, 평신도가 과연 순수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 등이다.

예상하는 바와같이 성도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이기적으로 탐을 내는 어떤 목사들은 평신도 목회자들과 그들의 양떼들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목회적인 관계를 목사의 고유한 성역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목사들이 목회의 권리를 평신도에게 주고, 평신도들이 목회를 할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면 그들은 새로운 즐거움을 갖기 시작한다.

평신도 목회가 왜 중요한지 평신도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다음의 몇가지 주장이 있다: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관심과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것은 누구나 은사를 가지도록 하신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3.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적인 관심과 돌봄을 원한다.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의 활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목회사역을 하는 스텝진들만 아니라 "모든 지체가 다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4. 사람들은 강단을 통해서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돌봐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5. 이것은 성경적이다.
6. 오늘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빨리 노쇠하고, 또 고립되어 있다. 가족들은 옛날처럼 혹은 하나님의 의도만큼 서로 가깝거나 서로 기대면서 살지 않는다. 그런데 평신도 목회는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껴진다 (요 13:34, 벰전 5:2).
7. 목사들은 모든 회중들을 충분히 돌볼 수가 없다.
8. 평신도 목회는 평신도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어떤 혜택을 준다.
9. 큰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적어도 평신도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어야 할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

10. 평신도 목회는 나의 주님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람들이 평신도 목회를 항상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나의 기도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

11. 독신자들의 경우에 누군가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는 편지 따위보다는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은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평신도 목회에서 가장 보람있고 만족해 했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대답한 내용이다.

1. 성도들이 우리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이다

2. 비록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즐겁다.

3. 내 개인적인 스케줄 중에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과 그 목회사역에 나의 가족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람있다.

4. 내가 전에 가질 수 없었던 아주 사랑스런 신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과 사랑할 사람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즐겁다.

5.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보람있다.

6. 내가 그들에게 전화할 때나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그들이 감사할 때에 기쁘고, 내 생애에 이런 새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즐겁다.

7.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사역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보람있다.

8. 내가 내 양떼들과 가진 목회적 관계를 통해서 얻은 축복들이 있다.

9. 나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교회에 뭔가를 주고 있고, 나는 하나님 과 교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 나는 보답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10. "나의 목회를 해냈다"는 즐거움이 있다.

11. 우리 양떼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특권이 있고, 본이 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격려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성장에 기여를 한다는 보람이 있다.

12. 사랑하라고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과 시간을 두고 그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

다음은 평신도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사역을 시작한 이후 가장 신나는 순간을 말한 것이다.

1. 양떼가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할 때

2.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볼 때

3. 성도가 병원에서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볼 때

4. 내가 심장마비에서 회복되고 있을 때 내 모든 양떼들이 나를 방문했을 때
5. 상가 집에 갔을 때 온 가족이 관의 머리맡에 둘러서서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바로 이것이 내가 전에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 결과라고 느꼈다.
6. 우리 양떼 중의 한 사람이 신장결석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내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서 나는 가서 기도해 주었다. 며칠 후에 경과를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 의사도 놀라면서 하는 말이 신장 안의 돌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7.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가족들도 발견할 수 없었던 메리의 사고였다. 의사와 간호원들도 나를 통해서 그녀에 관해 뭔가를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하였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그곳에 두신 것으로 믿는다.
8. 나는 어떤 목회도 필요없다고 고집하는 나이든 숙녀 한 분을 목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을 괴롭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싫어했다. 그녀의 생일날이 되었을 적에 나는 쇼핑을 가는 길에 꽃을 한 아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적으로 어찌해야 할지 생각이 났다. 신선한 꽃을 손에 가득 가지고 한 시간 안에 그녀 집에 갔다. 그녀는 나의 단순하고 꾸밈없는 몸짓을 받아들이고 두 시간동안이나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 대부분 그녀가 이야기 하였다.
9. 내가 바비를 위해 거기에 함께 있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녀의 신앙성장을 함께 나누었을 때
10. 내가 평신도 목회자가 된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내 어머니는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나는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내 양떼에게 전화를 할 수도 없었다.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은 대부분 나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준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 왔다. 그들은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거기에 맞게 응답해 주었다.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움은 그들을 통해 왔다. 그들의 편지는 감동적이었고, 내게 큰 힘이 되었다.
11.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녀는 평신도 목회자의 목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다른 교회에도 들락날락했는데, 그녀가 어느 주일날 오후에 교회의 잔디밭에 앉아 친구들과 함께 앉아 웃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12. 나는 특별히 신나던 때가 생각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전화하는 순간들 마다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된다.
13. 우리 양떼 중의 한 사람이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일
14. 5년간이나 계속 거부해 오던 한 부부와 결국 만나게 되어 우리 집에서 오후 내내, 그리고 저녁시간 까지 함께 교제하던 일

평신도목회자들이 경험한 것 중에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한 어려움도 있었다.

1. 매월 꾸준히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접촉하는 일
2. 우리도 바쁘고, 성도들도 역시 바빠서 매월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월말이 다가올 때마다 상당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느낀다.
3.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
4. 양떼와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30분을 내기도 힘들다. 양떼는 하루종일 일하기에 남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
5. 우리를 만나기를 원치 않는 양떼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는 일

6. 어떤 때는 자신감에 넘쳤다가, 또 어떤 때는 실망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가족에 대해 목회하는 일
7. 때때로 사랑스럽지도 않고, 우리의 사랑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8. 규칙적인 접촉을 일관성 있게 계속하는 일. 이것을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9.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10. 우발적이거나 피상적인 필요가 아닌 어떤 근본적인 필요에 대해 서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친해 지는 일
11. 자꾸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것.
12. 나의 어려움은 전화나 방문하는 것에 대해 수줍어하고 주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다.
13. 나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 의 연약한 노력을 사용하시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나를 쓰 셧을 것이다.

당신이 알듯이 PACE(기도, 시간주기, 접촉, 본이 되기)는 목회의 주요 골자이다. 다음은 평신도 목회자들이 이 네 가지에 헌신하면서 가졌던 생 각이나 느낌들이다.

기도하라

1.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2. 중요하다! 당신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일상적인 삶 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도함으로 그들의 응답에 함께 기뻐한다.
3. 나는 양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내 자신이 기도하는 훈련을 쌓게 되고 또 평신도 목회자로서 훈련이 된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더 나은 평신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
4.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지 못한 것을 고백한다. 나는 하나님 께서 그들을 늘 품어 주 시기를 기도했다.
5.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6. 이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쉬운 일이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 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를 할 수 있다.
8. 기도는 평신도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사람들은 나의 기도에 대해 감사한다. 그들은 기도를 부탁할 때에 특별한 요구들을 할 것이다.
9. 기도는 가장 중요하며 내가 자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10.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일어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처음에도 중간에도 그리고 마지막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11. 당신이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양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내어 주라

1. 그들을 위해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줌으로서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며 최우선적인 사람들이란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성도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시간을 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언제나 시간을 내어 줄 수 있고 이것을 편지나 전화나 그리고 만났을 때에 늘 강조한다. 나는 언제나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 내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 놓는다.
3. 이것은 쉬운 일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스케줄을 잡아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그리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늘 있다.
4. 내 양들은 내게 전화해서 일거리를 줄 수 있고, 약속을 해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등등을 안다. 그들은 결코 다 해결받을 수는 없으나 내가 뭔가 기꺼이 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접촉하라

1.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언제 전화를 해야 좋을지에 대해 도움을 얻으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의지한다.
2. 나는 아직도 내 양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매달 전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전화로 안될 때에는 편지를 쓴다.
3.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접촉하기가 수월하다.
4. 접촉은 관계를 세워 가는데 도움이 된다.
5. 만날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힘이 든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란 것을 알게 된다. 이후에 알고 보면 그것은 상급 받는 일이다.
6. 나는 규칙적으로 양떼와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방문을 고마워하는 것 같다
7.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보상이 오는 것을 알게 된다.
8.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그들의 수준에서 양육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이 되라

1.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계속 자라게 되는 좋은 기회요, 도전이다.
2. 나는 내게 맡겨진 성도들이 나의 순종의 본을 보고 긍정적으로 인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저 정기적인 예배와 봉사를 계속한다. 나는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그들이 보도록 하려는 것이다.

3. 본이 된다는 것은 신자들이나 부모나 평신도 목회자나 누구에게 나 늘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신뢰성을 제 공하는 것이다.
4. 본이 된다는 개념이 늘 그래왔듯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 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의 행위를 감시하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5.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실 나는 나의 성도를 격려해 주는 일이 더 "편하게 느껴진다.
6. 내가 보인 본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본을 통해 배웠다.
7. 나는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 기도했으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
을 때에도 그들이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줄 것이다.
8. 계속 성장을 도모하고 나의 양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 고 연구하고 경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기대에 어긋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돌봄과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한다.
9. 나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위대한 본을 보였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나는 본이 되는 것에 대해 성경적인 내용을 기억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평신도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니 이제는 목회를 받 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 12 장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푸딩(pudding)은 그 맛으로 말한다. 평신도 목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 목회의 맛이 어떤지에 대해 들어 보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평신도 목회자들이나 목회에 대해 흥미있고 중요하고 그리고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겸손한 경험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들의 반응 중의 어떤 것은 우리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것 을 얘기해주는 것이기도 한다.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만약 이런 목회를 해오는 동안 목회를 받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의견을 수 렵하였더라면 더 효과적인 목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을 쉽게 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진술에 따라 말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진술: 나는 나의 평신도 목회자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1. 그는 교회의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해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2. 그녀는 매우 신중하며 자애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도울 만 큼 충분히 말을 했고, 복음진리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3. 그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다 털어 놓을 수 있는 대상 (특히 독신자에게는 중요하다).
4. 내가 과부가 된 이후로 그녀는 내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 아 주었다. 따뜻하고 재미있는 친구가 되어 주었다.
5.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생각과 즐거움과 슬픔들을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은 가족처럼 가까웠다.
6. 그녀는 나와 교회를 묶어주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나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준다.
7. 그녀는 나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었고 언제든지 전화로나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8. 친구나 친척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화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평신도 목회자들은 이런 필요들을 채워준다.
9. 우리 집 뒷 마당과 우리들의 평신도 목회자의 뒷마당은 인접해 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의 뒷마당을 가끔 넘어 본다. 그녀는 그 너머에서 우리 집에 불이 켜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가 마당에 나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심쩍을 때는 전화를 한다. 이것은 노인 네인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10. 우리에게 도움이 매우 필요할 때, 그들은 나와 내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된다.
11. 그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기적으로 로를 확인한다.
12. 그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주고, 정서적으로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13. 그녀는 종종 나에게 전화하고, [오늘의 양식]이란 책자를 들고 오는데, 내가 없을 때에는 봉투에 넣어서

현관에 두고 간다.

14. 그들은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나는 그들 에게 여러번 얘기할 수 있다.
15.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한다. 우리는 일년에 여 러 번 식사를 같이한다.
16. 큰 일이 생길 때에는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준다. 특히 병원에 입 원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17. 내가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그녀가 내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한다.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고 그 녀가 나에게 전화한다. 우 리는 이렇게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다.
18. 그녀는 나에게 간증을 들려주고, 우리를 가축병원에 자동차로 태워다 주고, 시장 보러 갈 때 태워주고, 나의 얘기를 들어 주면 서 나를 도와 준다.
19. 만약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전화하면, 그들은 순수한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기 때 문에 나는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
20. 나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긴 해도 좋은 아들이 있어서 아주 행 복하고, 나의 행복과 슬픔과 고독을 나눌 수 있는 조카와 조카 딸이 있어서 꽤 다행스럽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면 그에게 언제든지 연 락할 수 있다고 확신을 준 평신도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더욱 더 큰 위로가 된다.

두 번째 진술: 내 생각에 나의 평신도 목회자가 내게 해준 가장 좋은 일 로 기억되는 것은...

1. 우리는 그들의 집에 놀러갔다. 우리 아들 케빈의 자전거를 자동차 안에 집어 넣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나 평신도 목회자 래리에게 내 아들이 원 웨이 갱(젊은이 그룹)과 함께 자전거를 탈 수 있도 록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마음이 아주 편했다. 크리스마스 때 나는 음식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갖 다 주었 다. 나는 그것으로 불편해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염 려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우리는 그 음식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겁게 보냈다.
2. 그는 내가 편안하게 함께 쉴 수 있는 사람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 언제든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크리스찬 친구이다.
3. 그녀와 함께 하면 마음이 편한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편한 상대이다. 나는 그녀를 만나는 순간순간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4.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만나서 확인한다.
5. 그들은 우리를 상담해 준다.
6. 언제나 나를 인정해 주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언 제나 현실적으로 말해준다.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거나 어떤 작은 그룹에 나와 내 남편을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7. 언제나 시간을 내어준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우리와 함께 기도한다.
8. 들어준다. 그녀는 정말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녀는 자기의 삶과 문제에 대해 나와 함께 이야기 한다. 그래서 나도 그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우리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전화를 한다든가 혹은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이었다.
9. 꼭 필요할 때 그들은 개인적인 우정과 사랑을 준다.
10. 내 남편이 엉덩이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우리를 자주 방문해 주었다.

11.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 참으로 감사하다. 크리스마스 때에 는 나를 국화 전시회에 데리고 갔다.
12. 우리 교회 목사들이 너무 바쁠 때 나를 돌보아 준다.
13. 내 남편이 아팠을 때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빌의 방문과 전화와 그리고 베풀어 준 돌봄과 관심에 대해 정말로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없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14. 아델레는 나의 평신도 목회자이다. 우리는 몇 번 만나지 않았는 데도 금방 친구가 되었다.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실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미 부로 느끼게 해주었다. 그들은 내가 새 아파트로 이사할 때도 도와주었다. 도둑이 우리 아파트의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공격했을 때 아델레는 급히 달려와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 며 위로해주었다. 칼리지 힐 장로 교회와 같은 큰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어가야 하기 때문에 진실로 성도들을 충분히 돌볼 시간이 없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바로 이런 갭을 메워 준다.
15. 나의 평신도 목회자가 누구인가를 알고서 그녀에게 전화를 하고 내가 먼저 그녀를 방문하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허리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평신도 목회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찬사들이 있다.

1. 우리의 평신도 목회자인 돈(Don)과 어슐라(Ursula)는 아주 특별 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사랑스럽고 모든 방면에 신중하 고, 함께 재미있게 놀고, 은혜스럽다. 모든 평신도 목회자가 이런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들은 전부 다 이런 식 으로 돌봐주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평신도 목회관계를 통해서 좋은 친구들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나의 평신도 목회자는 시작할 때 좋은 친구였는데, 지금은 더 친해졌다.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3. 그는 나를 개인적으로 돌봐주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느껴진다.
4. 나는 나의 의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한다(이 사람은 독신자이다).
5. 나는 그녀에게 시간을 내어줌으로 그녀에게 도움이 되고, 그녀가 나에게 시간을 내어줌으로 내게 도움이 된다. 즉 평신도 목회사 역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된다.
6. 나는 그들이 나를 성서의 원칙에 따라 인도해 주는 것에 대해 감 사한다.
7. 나의 평신도 목회자는 완전히 준비되어있으며 능력이 있다. 이것 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모든 평신도 목회자가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열정과 훈련 그 이상을 요구한다. 인격 과 통찰력이 중요하다.
8. 우리는 전화를 자주하고 2, 3주마다 꼭 만난다. 우리는 서로 서 로 이것을 기대한다.

다음의 것은 내가 최근에 기록한 일화들이다. 내가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기록했다라면, 지금은 책으로 몇 권은 될 것이다.

1. 이 메모는 평신도 목회자가 친구를 통해서 내게 보낸 것이다: 플 로렌스 킹은 가능하면 4월 1일 이전에 자기 집에서 성찬식을 가 지기를 원했다. 그녀는 4월 1일에 플로리다로 떠나려고 한다. 그 녀는 기관지염을 앓고 있으며 또 다른 문제들도 있다.
2. 어떤 교인이 예배에 자주 빠졌기 때문에 3M(Missing and Marginal Members)에서 봉사하는 회원 중의 한 사람이 전화를 했다.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의 대답내용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들은 정확했다. 그녀는 금년

에 한 두 번 예배에 참여했다. 그녀는 시내 이쪽에서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으나 직장의 일 때문에 찾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는 자기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평신도 목회자들이 자기를 잘 돌봐 주고 있다고 말했다.

3. 한 평신도 목회자는 80세 된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남편에게 소개를 시키자, 그 이후에 그들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 평신도 목회자는 할머니를 자주 집으로 모셨다. 의사에게도 정기적으로 모셔다 드리고, 시장도 함께 봐 드렸다. 할머니는 뭔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방문해 주기를 바랄 때 주저 없이 그 평신도 목회자에게 전화했다.

4. 내가 어떤 여자 모임에서 당신의 평신도 목회자가 "당신이 상상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포인세티아(poinsettia, 식물이름)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자, 알마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5.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성도를 방문했는데, 그녀는 자기가 어떻게 병원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내가 가고 있는 병원에 입원한 교인 명단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알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 그녀는 "아마도 내 평신도 목회자인 보니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평신도 목회자가 음식을 갖다 주었다고 말했다.

6. 평신도 목회자인 론 울프는 매주 한번씩 모이는 아침 기도모임에 프레드를 데리고 왔다. 그는 몇 달 전부터 발작증세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양육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치유되었다.

7. 평신도 목회자인 루스 오번은 제니 스미스가 독감을 치료하는 2 주 동안 그녀의 아이를 돌봐줄 다른 사람을 찾아 주었다.

8. 평신도 목회자인 린다 던컨(린다는 20대이다)은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80세된 한 노인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 할머니는 그 평신도 목회자에게 생일카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꼭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평신도 목회자는 할머니의 85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했다.

9. 남편과 아내가 헤어졌다. 뇌졸중으로 남편의 성격이 바뀌어졌는데, 이전의 부정적인 성격들이 더 부정적이 되었다. 평신도 목회자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접촉했으며, 영적으로 목회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다. 전문가들이 상담을 했으나 둘 사이를 화해시킬 수는 없었다. 평신도 목회자는 내게 전화해서 자기 친구 중의 한 사람인 정말로 괜찮은 상담자를 소개시키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상담자에게 이 부부를 소개해 주었고, 그들은 만나서 상담을 하였다. 그 다음 주일 그들은 교회에 같이 나왔으며, 그 이후로 다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와 같은 간증을 가능하게 한 평신도 목회는 큰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와 중형교회에서도 가능하다. 작은 교회의 사람들은 좀 의아해 할지 모르나 14장에 가면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교회들은 평신도 목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자.

제 13 장

다른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가?

캘리포니아의 글렌달러에서 전화왔어요.”라고 비서가 말했다.

"여보세요... 올 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평신도들을 위해서 평신도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도 평신도 목회를 시작하고 싶거든요." 이 요청을 받고 평신도 목회자 한 사람과 나는 그 교회에 가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0여명을 상대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가까이에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참석했다.

"금년 말 마지막 주나 내년 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평신도 목회에 관 한 세미나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편지는 800명의 교인이 있는 인디애나주의 미시간에 있는 교회에서 왔다. 그들은 평신도들에게 새로운 평신도목회 비전을 실어주려고 했다. 나는 4명의 평신도 목회자들과 한 팀이 되어갔다.

"우리는 50명을 선발해서 평신도 목회자로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5명이 함께 간다고 답장을 보냈다. 이 교회는 워싱턴 DC에 있는데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대일의 보완하고자 했다.

이 전화는 워싱턴의 씨애틀에서 왔다.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평신도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평신도 목회를 위해 조직을 만들었고, 평신도 목회자로 훈련받을 사람들이 여러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오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와 함께 오실 수 있는지요? 나는 두 명의 평신도 목회자와 함께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15시간의 준비 세미나를 가졌다.

이상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문의해 온 것 중의 몇 개에 불과하며 계속해서 세미나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수년간 여러 교회 들은 하나님께서 개발하게 하신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평신도 목회의 모 맏을 채택하거나 적용시켰다.

국제적인 회의

그 동안 평신도 목회를 위한 국제적인 세미나가 세 번 개최되었는데 말 은 교회에서 평신도 목회자와 스텝들이 참여하였다. 평신도 목회에 대해 여 문의한 적이 있거나 훈련 세미나의 매뉴얼이나 비디오 테잎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만이 참석하였다.

세 번의 국제회의가 모두 신시네티에서 개최되었다. 그 당시에 나는 미조리주의 캔사스시에 있는 제2장로교회의 집 케니 목사님과 함께 첫 번째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두 번째 세미나는 1985년 6월에 개최되었는데, 이때 목사와 평신도들 에게 주어진 임무는 3차 세미나를 계획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세미나는 1986년 6월 27-29일에 열렸는데, 이 목회를 개발한 교회와 이 목회를 실시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함께 모였다. 3일간의 이 세미나가 끝난 후에 도 의견이 모아져서 세미나를 며칠 더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세미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들 중에 얼마를 선택해서 6개의 질문으로 된 설문지를 돌렸는데 다음과 같은 응답들이 나왔다:

1. 평신도가 순수한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신약성서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목회직)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평신도가 목회사역에 참여하도록 의 도하신 것임에 틀림없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목회에 불러 서 개발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평신도들은 분명히 순수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 예수님은 반드시 신학교 졸업생을 자기 제자로 삼는 것을 선호하 신 것 같지 않다. 그는 12명이면 돌봐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 신 것 같다. 이런 기준에 맞추어 목회자를 모시는 교회는 거의 없 다. 나는 평소예 반드시 유급 사역자만을 써야 한다는 것에 중회 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7-13에서 본 을 보였고, 바울은 이점에 대해 에베소서 4:7-12에서 신학화하였다.

3) 나는 우리 목자들(shepherds)이 목회사역을 할 때에 나타내는 돌봄과 긍휼과 큰 사랑과 인내를 보고 탄복했다. "목자들이 신학 교에서 목회상담 과목을 6시간 배우는 것처럼 배우지 않으면 평 신도들은 목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만한 생각이다.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은 목회를 방해하는 것이고 이기적이고 태만한 것이다. 대개 교회에서 생동감 넘치는 목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신도들이 목회하도록 준비하고 훈련시켜야 할 시간과 정력과 자기희생을 다른 일에 사용하여 매우 지치고 힘들어 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4) 그들은 소명감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목 회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목회사역을 위 해 훈련을 받아야하고 격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틀 에 박힌 목회적 접근 을 수용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것을 가지고 목회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평신도 목회자를 세우는 일은 사람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성경적 이고 효과적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평신도 목회 자들을 임명하고, 회중들에게는 평신도 목회에 대한 성경적인 근 거를 가르쳐야 한다. 만약에 전 교인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평신 도 목회는 대단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평신도 목회에 대한 간증과 좋은 사례들은 회중들과 잘 공유해야 한다. 목자들이 평신도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초하여 훈련하여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평신도가 목회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발견했는가?

1) 내가 믿기로 목회사역은 영적인 은사이다. 하나님은 신학을 졸업 한자들에게만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나는 평신도들이 목 사들보다 목회사역에 능력이 더 많고 은사가 더 많다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

2) 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평신도들이 목사들만큼 이나 목회를 잘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아주 헌신적이며 남 을 잘 돌보는 마음이 있는 신자들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 련이라는 것은 아주 헌신적인 평신도들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목회적인 잠재능력을 발전시켜 주는 일이다.

3) 우리 교회의 평신도 목회는 대단히 성공적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에 평신도들은 목회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다.

4)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은사나 경험이나 동기나 훈련에 따라 일하 는 것을 보고 그들은 우리와 같은 "전문적인 목사들만큼이나 능 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5) 평신도들은 지식이 많고, 책임감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방문 기록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잘 정리하고, 잘 보살피며, 잘 들어주 고, 잘 참아주는 힘이 있다. 그들은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만큼 의 잠재적인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질들은 성경지 식 이나 부드러움이나 분별력 같이 한 사람이나 어떤 직책이나 안 수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좀 낫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다 성품이나 기질상 목회를 더 잘 할 수 있다. 요컨대, 자질은 안수부여와 상관이 없다.

3. 평신도들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는가?

1) 목사들이 그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어떻게 격려해주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2) 평신도들의 효과성은 안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가슴과 그 인격의 성향에 달려있

다.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꺼이 주님께로 인도하 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3) 나는 몇가지 이유에서 평신도 목회가 효과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들이 그 일을 받아들이고 훈련만 받는다면 그들은 시간을 낸다. 그들은 목회적인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다. 그들은 인내하고 잘 참으며 동정심이 강하다.

4) 그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일한다.

5) 나는 어떤 사람은 비효과적으로 일하나 어떤 사람은 매우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았다.

6) 평신도들이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기술을 사용하는데서도 나타나며 열정과 충분한 이해로 훈련받은 평신도 목회자로부터 목회를 받은 신자들에 의해 표현된 감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 가지 예가 있다. 한 번은 암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진단을 받지 않은 한 성도가 병원에 있었는데, 그 성도가 평신도 목회자에게 문병을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여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평신도 목회자와 상의하고 싶었다. 이 성도는 이미 얼마 전에 목사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신도 목회자는 병원에 가서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고, 그녀 가까이에서 함께 있었다. 그 암 환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평신도 목회자가 자기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다.

4.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평신도의 목회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1) 일반 성도들은 질적으로 높고 성령충만한 돌봄을 받게 되면 어떤 형식이나 근원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적으로 좋은 돌봄을 받지 못할 때에는 평신도이건 목사이건 간에 그들의 목회사역에 대해 화를 내게 될 것이다.

2) 일반 성도들이 평신도 목회자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목회 지도자들이 평신도 목회철학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으며 또 평신도들이 얼마나 목회할 권한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는 "평신도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목사의 양을 훔쳐 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평신도 목회는 목사들이 평신도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개발 하려는 노력에서 성취된다.

3) 목사들이 마땅히 해야하지만 그러나 목사들이 지속적으로 목회를 할 수 없는 지역이나 그들의 목회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들의 목회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4) 처음 믿는 사람이나 평신도 목회를 수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신도 목회에 대해 설명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 교우반에서 이것을 소개한다. 목자들은 새로 온 교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새 교우들은 목회 위원회에서 전체 목회계획을 듣는다. 목사들은 아직도 병원에 있는 환자와 위기를 당한 성도들을 돌봐야 하지만 꼭 그들만 돌봐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평신도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가?

1) 첫째 직업, 둘째 가족들, 셋째 방해되는 문화적인 관습 (목사와 평신도에 대한 이원론적인 구도), 넷째 미루는 것 (평신도 사역에 대한 동기부여의 부족), 다섯째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기에 목회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등이다.

2) 설교자들이 하는 것과 꼭 같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 결코 남에게 줄 수 없다. 돌본다는 것은 풍성함의 표현이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강 같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을 것이다.

3) 그들도 종종 목사들과 같이 자기들이 돌보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상실이나 슬픔에 대해 당황해 한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주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평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가지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떤 평신도는 병원심방 같은 일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낀다.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목양하는 일은 많은 주의가 요구되며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소모된다.

4) 그들은 아직도 목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목회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 아직 잘 준비되지 않았거나 특별한 목회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평신도 목회자들은 평신도 목회를 할 적에 자신이 속한 그룹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6.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평신도 목회자에 대한 유용한 모델을 발견했는가?

1) 그렇다. 아직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번 가을에 시 작할 계획이다. 우리는 그것과 비슷한 모델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다. 구조가 좋지만 좀 복잡(평신도 목회자 목사 목사)한 것 같으며 부르기에도 좀 어색한 호칭인 것 같다.

2) 우리 교회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3년 동안 약 300여명이 이 목회에 참여하고 있다.

3) 우리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평신도 목회자 모델을 그대로 빌려 왔으며 비록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채용했지만 계속 개발해 나가기를 원한다.

4) 그렇다. 우선 준비 세미나, "모집" 아이디어, 프린트 된 자료들, 그리고 목회그룹 등,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다. 준비세미나 매뉴얼이나 여타의 자료들을 사용한다.

5) 그렇다!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큰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신도 목회의 전략을 연구하고 도입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교구나 지역계획을 세웠고, 다른 사람들은 알려진 필요에 따라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나름대로 돌봄 사역을 하였다. 내가 내린 결론은 교구/지역/목자들의 사역계획은 좋으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목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런 계획들이 행정 편의적이거나 혹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전 회중이 셀 그룹으로 나뉘어 지는 셀 그룹을 주장한다. 이런 경우 모든 구성원들은 능동적이 되고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다. 이런 유형의 잇점은 실제적인 목회사역이 세포 그룹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목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한다.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평신도 목회는 이 모든 것을 결합하고 종합한 것이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돌봄과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 사역이다. 이것은 셀 그룹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성공은 셀 그룹의 기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 나와 우리 목회그룹은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모른다. 자, 이제 오하이오 주의 벨 브룩에 있는 작은 교회의 담임목사의 간증을 들어보자.

제 14 장

작은 교회의 목사는 어떻게 말하는가?

1985년 5월에 오하이오 주의 벨 브룩에 있는 벨엘루터교회의
토마스 패리쉬(Thomas Parrish) 목사가 쓴 것임.

나는 우리 교회의 230명 전 교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해 달라는 요구를 보고 좀 놀랐다.

신자들은 자동차 엔진과 같아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내가 여기서 조정이라고 말한 것은 PACE(기도, 시간주 기, 접촉, 모본) 라는 사역에 기초해서 계속 목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위기목회를 해 왔다. 갑자기 아픈 사람이 목회를 받 았다. 위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판단되어 주일 예배 이외의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사역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의 목회접근은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요는 실제적이다

나는 벨엘교회에서 7년 이상을 사역하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신자가 다 른 신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목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서 한 말은 우리 목회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었다. 내가 여기서 "이론적" 기초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목사-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목 회를 위해 성도(평신도) 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교회의 리더로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론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를 모른 다는 것이었다. 바울의 말에 동의하는 평신도 목회를 위 해서는 기능적인 기초가 필요해 졌다.

시 작

나는 약 18개월 전에 칼리지 힐 장로교회에서 실시한 전도 클리닉 도우 미 세미나에 참석했다. 나는 바로 거기에서 멜빈 스타인브런 박사를 만났 다. 그는 목사들에게 평신도 목회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라는 도전을 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평신도 목회자들이 일반 신자들의 필요를 매일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 리의 전도 활동은 헛수고만 하는 회전식 문 이 되고 말 것이다. 만약 그들 을 상대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자 마자 그들은 곧 바로 빠져 나가 개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한 센스가 필 요한 사역이다.

나는 벨엘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으며 다른 목사들이 이와 비 슷한 문제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들었 다. 교회에 한번 들어와서 허니문 기간을 가졌던 초신자들을 잃지 않고 어떻게 계속 다니게 할 수는 없는가? 스타 인브런 박사의 아이디어와 그 실제적인 접근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얻 었던 것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이고, 또 일해 볼만한 방법이었다. 그 때에 처음으로 목회적 이론이란 것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앨빈과 처음 만난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벨엘 교회의 지도자들과 평신도 목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평신도 목회가 예배창석이나 어떤 교제활동 그 이상을 넘어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평신도 목 회는 신자들이 매일 부담하는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평신도 목회 자가 잘 훈련받아서 동 료 크리스찬의 감정적인, 영적인, 또 지적인 필요에 대해 실제적으로 목회 할 기회가 주어 진다면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 즉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갈 6:2)고 하는 것을 실천하 기 시작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1984년 9월에 나는 멜빈 스타인브런에게 전화해서 우리 베델교회의 평신도 목회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더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어 정돈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스타인브런과 그 교회 평신도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하는 목회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우리 교회의 40명 이상의 평신도 가이 특별 세미나에 참여했다.

공유하는 목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초신자이든 기신자이든 간에 그들이 신도 목회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나서 흥분이 고조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멜빈 목사님은 그 다음달 자기 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가까이 우리를 초청했다. 인원조정이 되어 나와 6명의 회원들에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평신도 목회자 준비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훈련 세미나는 평신도 목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성경적인 근거를 잘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들이 공유되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목회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주말 훈련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칼리지 힐 장로교회에서 돌아와 우리는 평신도 목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과 성격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즉시 만들자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주저하면서 천천히 진행해 나가자고 했다. 한 사람은 베델교회 성도들은 평신도 목회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연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목회할 '시범적인 가족들'을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시에 우리 베델교회는 새신자반을 운영하였다. 그 반은 우리 교회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고,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있었다. 그 반은 10가정 정도로 구성되었다. 10가정이 공부하면 모두 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여기야말로 평신도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 생각하였다. 기도한 후에 나는 평신도 목회자 한 명에게 두 가정을 맡겼다. 그들은 PACE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 새신자들을 바로 바로 접촉했다. 나는 새신자 반에서 평신도 목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곧 바로 평신도 목회자가 접촉할 것이라고 확실히 말했다.

첫 번째 목회접촉

모든 평신도 목회자들은 접촉에 뛰어 들고, 그들이 가족을 할당받은 이후 2주 안에 가족들을 목회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접촉은 새신자의 집에서 주로 실시되었는데, 평신도 목회 프로그램에 대해 평신도 목회자가 설명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어떤 평신도 목회자들은 회의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만났다. 이것은 사실 대부분의 새신자들에게는 새로운 개념이었으나 그들은 새 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다른 평신도 목회자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만났는데, 문자 그대로 새교우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이나 사랑에 탄복했다. 한 평신도 목회자는 우리들 중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목자가 되는 일에 전념 하였다.

처음 몇 주 안에 집에서 평신도 목회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 새신자 중에 조카 한명이 아주 심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새신자는 이 흥한 소식을 듣고 즉시 평신도 목회자에게 전화를 해서 안내와 도움을 청했다. 조카가 운전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고 평신도 목회자에게 말했다. 이 젊은이의 부모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다. 그들은 이 일로 매우 좌절했다. 평신도 목회자는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한지 몇 분 후에 그 부모는 평신도 목회자가 온 것에 대해 화를 냈다. 그들은 교회가 과거에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분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신도 목회자가 목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큰 좌절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평신도 목회자는 여러 주 여러 달 동안 신실하게 병원을 방문하고, 새교우와 그 젊은이의 부모를 돌보았다. 얘기를 돌봐주고 자동차로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태워주고, 기도해주고, 저녁 늦게까지 함께 얘기하는 것으로 정말 계속해서 목회를 하였다.

그때는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왜 오느냐는 것이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 그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외과수술을 한 부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목회적 돌봄을 받은 새 교우들은 그들이 눈으로 본대로 스스로 다른 교우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특히 그 젊은이의 부모도 평신도 목회자의 신실한 사랑에 탄복해 마지 않았다.

평신도는 목회할 수 있다

이러한 평신도 목회의 예는 평신도 목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은 아니다. 이 실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삶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신도는 다른 평신도를 효과적으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훈련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쓰임 받겠다는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경험을 나누는 것

나와 평신도 목회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의 좌절만이 아니라 기쁨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 ※ 상호 목회를 한다. 그리고 평신도들을 평신도 목회 프로그램으로 통합 신하는 계획을 세운다. 이 모임에서 여러가지 느낌들과 경험에 관해 서로 주고 받는다.

미루는 일

모든 평신도 목회자들이 동감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전화나 방문하는 일을 미루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접촉하는 일이 즐겁다고 했으나 조직적인 체계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들은 지난달에 더 많이 접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평신도 목회자가 정말 흥미있는 얘기를 했다. 그는 말하기를,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과 할당된 양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지는 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평신도 목회자는 교인 중의 두 가정을 돌보고 있는데, 이 일에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지만 아울러 다른 사람의 영적인 면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느낀다고 했다.

연합하는 일

그들은 마음이 하나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자들 중에 있는 가족들을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알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이 어디 서 일하며 그들의 취미는 무엇이고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면서 예배시간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이상으로 서로 알기를 원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기 보다는 서로를 깊이 알기 시작했다.

뼈격거리는 바퀴

우리는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에 대해 목회를 받아들이고 목회를 하는 등 평신도 목회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앤엘 교회의 교인 중의 한사람이 말하기를 "격거리는 바퀴는 언제나 기름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직거리지 않는 바퀴라 할지라도 기름은 필요하다"고 하였다.

번엔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마음을 열고 평신도 목회의 가족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그들의 필요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사소한 것들이다. 그들은 그들과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부터 사랑 받고, 반겨지고,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들이 실제로 목회를 받을 때 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목회 할 방도를 모색한다. 이런 과정의 열쇠는 평신도 목회자들이 일관성 있게 접촉하고 목회하는데 달려 있고, 결과적으로 그 목회를 받아들이는 사람 들에게는 효과적인 목회적 돌봄이 되는 것이다.

파송하는 권위와 목회자

나는 지난 7년 동안 번엔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계속 중의 직 분에 대해 강조해왔다. 신자들은 서로 돌봐

주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어떤 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곤 한다. 대부분의 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봉사를 하고 싶어하나 스스로 그런 일에 뛰어들 용기와 확신이 부족하다. 우리는 평신도 목회 프로그 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권위있게 파송을 받아야 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종의 직분에 대한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들 스스로 다른 사 함의 삶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목회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위 하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어떤 공식적인 일이 주어졌다는 우리로서는 이 권위의 다이내믹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도자와 비전으로 "부름"을 받았 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꼭 같은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교인들 과 충돌한다. 그러나 우리는 안수를 받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소명을 받 았다는 사실에 의해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동시에 평신도 목회자들도 목 회사역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권위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델교회에서 평신도 목회자들과 첫 모임을 가진 후 즉시 느낀 것이었다. 두 가지 질문이 제기 되었다. 첫째로, 언제 회중들 앞에서 이 목 회에 "부름"을 받았다고 공포할 것인가. 둘째로, 목회할 수 있는 권위있는 증서를 언제 교회의 이름으로 줄 것인가?

이런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는 권위있는 공개적인 광고가 필요하다는 것 이 분명해졌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교인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이 사역의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의도적으로 연기했다. 한편, 나는 평신도 목회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그들은 평신도들이 목회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지지해 주었다.

조직적인 접근

"일반 신자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있는데 왜 구태여 교회내에 평신도 목회사역을 위한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우리가 처 음 평신도 목회 프로그램을 시작했을때 들어온 도전적인 질문이었다. 베 델 교회에서는 목회와 봉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교인들 중의 몇 사람만 뽑아서 특별한 사람들 만 실시하는 목회로 오해하고 있었다.

몇 명의 신자들이 상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신도 목회사역을 하고 서로 서로 돌봐주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 명히 알게 되었다. 어떤 성도의 활동은 매우 탁월하고, 매우 헌신적이고, 눈에 띄었다. 그녀의 친척 중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이 죽었는데 베델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시간을 내어 장례식에 참석했다. 또 한 명의 탁 월한 교인이 상을 당하게 되자 많은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사역이 탁월하게 이루어졌다. 세 번째 교인이 있는데, 그는 덜 유명한 사람으로 과거에 뭔가 문제가 좀 있었다. 그의 친척 한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 그런 데 베델교회 교인 중 단 한사람도 장례식 예배에 가지 않았다. 베델교회의 목사로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목회사역을 하기 위해 조직화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 적 돌봄의 특별한 책임을 맡기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소홀히 취급되거나 간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태복음 25:45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 바로 이것을 지적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 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조직적인 접근이 인위적이거나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 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사역이든 조직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언제 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조직적인 사역이든 아니든 간에 진실하지 못한 것이 언제나 생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라고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의 감정이 동의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 람의 필요를 돌봐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순수 한 감정은 순종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간혹 감정이 순 종보다 앞설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사역하려고 할 때에 사랑의 순수한 결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돌보고 있는 사람 들 사이에서 자라나게 된다.

목회사역을 위한 조직적인 접근은 이 사역에 헌신한 회중이라면 언제라도 조직을 적용할 수 있다. 뱌엘교회의 경우를 보면 교인이 230여명 되었을 때 평신도목회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다. 모든 새 신자들은 곧바로 교회의 환영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이 사역으로 잘 연결되었다. 교회의 기존교 인들에게 접근할 적에는 그들이 원하거나 이 사역에 마음을 열어주는 대로 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부모들, 이혼한 사람, 노인,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들이 먼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금년 말에는 목회가족에 다 포함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교인 개개인이 평신도목회에 대해 마음을 연다면 목회가 족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최근에 우리 평신도 목회자 중의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한 젊은 여인이 우리 교회에는 목회적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새신자였지만 신앙이나 봉사나 전도에 있어서 급성장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믿음이 없기에 지속적인 인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즉시 그녀를 목회가족에 포함시켰다.

평신도 목회자는 그녀의 필요에 따라 신실하게 목회를 하였으며, 이것을 그녀의 전체가족을 상대로 목회할 기회로 삼았다. 평신도 목회자는 가끔 그녀의 집에 들러서 남편과 얘기하곤 했다. 그녀는 남에게 전혀 마음을 열 것 같지 않던 자기 남편이 최근에 평신도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고 얘기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목회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위해 기도했다.

세 가지 목표

뱌엘교회에는 평신도 목회의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 12절을 성취시키기는 것이다. 성도들이 평신도 목회사역을 위해 준비되기를 원한다. 성도들에게 의미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목회를 하도록 기회를 준다면 이것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연구하고 훈련시키는 모든 목적은 신자들 각자가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실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과 위로의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신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 목회는 일대일이다. 뱌엘교회는 230명의 작은 교회이다. 전통적인 목회방식 하에 있는 안수받은 목사 한 사람인 내가 평신도 목회자들이 만들어 내는 것과 똑같은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번 혹은 두 번 심방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매주 230여명을 일대일로 접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수로 보면 일주일에 80가정을 심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사역이 한 두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가정에만 국한 된다면 나머지 성도들은 실망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12명을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고 이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신 것은 정말 잘 계획하신 일이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목표는 교회를 일종의 간이 음식(fast-food) 체인 점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드는 일이다. 교회를 단지 영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일요일 아침에 와서 수준 높은 성가를 감상하고 설교를 듣고 애기들을 돌보고 헌금을 내고 그리고는 가버린다. 만약에 다른 교회가 그들을 자기 교회로 나오도록 안내하면, 그들은 다음주에 그 교회로 가버린다.

이런 방식의 접근과 정신은 결코 한 가족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이 되라고 부르셨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연합되어 있다. 오직 평신도 목회자와 그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소그룹만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 작은 가족은 지역교회와 지상의 전 교회의 일부가 된다.

벤엘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사랑가운데 이 세 가지 목 표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의 말:

이 보고서는 어떤 규모의 교회이든지 평신도 목회자에 의한 목회가 필 요하다는 것과 만약에 뜻이 있다면 길이 있 다는 것을 증거한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목회 활동이 다른 교회의 상황에(만약 우리의 모델이 유용하다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 교회에서 돌봄목회에 참여하고 있는 평신도들을 평신도 사역자(lay ministers)라 부르는 것이지 평신도 목사(lay pastors)라고 부르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회는 평신도 목회자 프로그램 (Lay Ministers Program)으로 설계 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5가목 이하를 할당하여 시작하였다.

반드시 어떤 목회형식이 아니라 이 책에 있는 평신도 목회의 모델을 잘 적용하면 이 목회원칙은 평신도에 의해 효 과적으로 목회를 수행하고자 하 는 교회라면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그의 교회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것은 평신도들이 목회사역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평신도 목회를 개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성령은 조직의 원칙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 목회의 효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그리고 다 른 많은 교회의 요청에 따라 그 교회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우리의 준비 세미나에 참석하고 우리의 모델을 채용하는 것은 또 하나의 좋은 확증이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두가지이다. (1) 우리들이 한 것과 같이 평신도 목회의 모델을 채택하고 개발시키는 꾸준한 교회의 흐름은 결국 급류를 타게 되는 것이다. (2) 평신도목회에 대한 국제적인 지도자 모임이 계속 열려서 평신도들도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교회간에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나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에서 8년째 "피부로 느끼는 사랑"의사역을 한 것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 책은 정말로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당신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목사와 평신도는 동역한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참고서적

- ▶ Campbel, Alastair V. *Rediscovering Pastoral Car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 ▶ Collins, Gary R. *The Joy of Caring*. Waco, TX: Word Books, 1980.
- ▶ Detwiler-Zapp, Diane, and Dixon, William C. *Lay Caregiv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2.
- ▶ Feucht, Oscar E. *Everyone a Minister*. St. Louis: Concordia, 1974.
- ▶ Carlow, James. *Partners in Ministry*.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1981.
- ▶ Grantham, Rudolph E. *Lay Shepherding*.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80,
- ▶ Haugk, Kenneth C. *Christian Caregiving: A Way of Life*,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 ▶ Heusser, D. B. *Helping Church Workers Succeed*,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80.
- ▶ Menkin, Stanley J. *Helping Laity Help Other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4.
- ▶ Pohly, Kenneth H. *Pastoral Supervision*, Houston: The Institute of Religion, 1977.
- ▶ Ryan, Juanita, *Standing By*. Wheaton: Tyndale House, 1984,
- ▶ Southard, Samuel, *Comprehensive Pastoral Care: Enabling the Laity to Share in Pastoral Ministry*.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75. *Training Church Members for Pastoral Care*,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82.
- ▶ Stedman, Ray C. *Body Life*. Ventura, CA: Regal Books, 1979.
- ▶ Stone, Howard W. *The Caring Church*,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3.
- ▶ Tillapaugh, Frank R. *Unleashing the Church*. Ventura, CA: Regal Books, 1982.
- ▶ Ver Straten, Charles A. *How to Start Lay Shepherding Ministrie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3.
- ▶ Wagner, C. Peter, *Leading Your Church to Growth*, Ventura, CA: Regal Books, 1984.
- ▶ Wilson, Earl D. *Loving Enough to Care: It Could Change Your Life*, Portland, OR: Multnomah Press, 1984,
- ▶ Wilson, Marlene. *How to Mobilize Church Volunteer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3,
- ▶ Yohn, Rick, *Discover Your Spiritual Gift and Use It*, Wheaton: Tyndale House, 1982.

Note

The publishers do not necessarily endorse the entire contents of all publications referred to in this book.

역자 (서병채목사, 김종태목사)



서병채

Sungkyul University, Korea (B.A)
McMaster University, Canada (M.Div)
Methodist Graduate School (Th.M)
Graduate Theological Foundation, USA (Ph.D)
Yale University, USA (Divinity, postdoc., 2006)
Oxford University, UK (Wycliffe, postdoc., 2012)

Cambridge University, UK (ICE, 2018)

Founding President of PACE Int'l Seminary, Nagaland India (2015-2020)

Founding President of Melvin University, Kenya (since 2021)

CEO of MB Int'l Ministries, Seoul Korea (since 2025)

email) presidentmelvinuniversity@gmail.com

현, 멜빈대학교 총장



김종태

총회신학대학(B.A)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Div)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Th.M)
Fuller Theological Seminary(D.Min)
(전)평신도목회연구원 학감
(전)할렐루야교회 부목사, 행정담당

(전)선한교회 담임

(현)칼빈대학교 교수

(현)디지털융합교육원 교수

감수자 (김상복목사)



서울대 졸업, 미국 Faith신대원(MDiv/STM),
Grace신대원(Th.D), 워싱턴신대(DD),
Trinity 복음주의신대원(D.Litt),
워싱턴 신대교수, 베델교회 담임,
ACTS 조직신학교수,
할렐루야교회 담임, 원로목사,
아시아신학연맹(ATA)회장,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회장 역임,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설립총장, 교수,

명예총장, 4대총장/Chancellor

현, 햇불트리니티 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